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1월 4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196호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잘 먹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소시지 반찬좀 싸주세요'.

서울 옥수동 옥정중학교 양호실에는 매일 아침 도시락 7개가 가지런히 놓여진다. 셋째, 넷째 수업시간이 끝날 즈음 7명의 학생들이 하나 둘씩 소리없이 도시락을 가져간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 쯤에는 빈 도시락들이 다시 놓여있다. 어떤 도시락은 깨끗이 씻겨져 있고, 어떤 도시락 안에는 아기자기한 내용의 쪽지가 들어있다.

하지만 예쁜 가방에 밥통과 반찬통, 김치통까지 든 이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가 누군지 학생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살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도시락을 받아가는 아이들도, 도시락을 보시하는 사람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몰래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는 바로 학교 근처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스님)의 재가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비구니 효인스님. 스님이 결식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한 때는 지난 9월. 결식 어린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방학동안에는 무료급식소로 점심 때 아이들을 불렀다. 주변 5개 초등학교 교사들을 통해 소개받은 학생은 1백여명. 하지만 단 2명만 찾아왔다.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몹시 꺼려했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고민 끝에 생각한 방법이 몰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저마다 다른 도시락가방을 준비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2일부터는 옥수동 관내의 5개 중·고등학교로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락이 35개로 늘어나 사회복지사 2명과 자원봉사자 6명의 도움을 받고 있다. (02)282-1100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자비의 도시락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기존거래 없이도 빠르고 공정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화 051)633-9120~3
불교신협 부산동구 범일2동 834-20

'3선공방' 심상찮은 행보

징계스님 28명 조계종 총무원 무단 점거
월하스님 종정교시 "3선 종헌종법 위배"
월주스님 "해종행위자 엄중책임 물을 것"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험로(險路)를 걷고 있다.

10월 24일 오후 조계종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스님등 28명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해 '총무원장 3선문제는 종단 화합차원에서 절대 부당함'과 '사면복권'을 내용으로 하는 '종정교시' 이행을 주장하다 전원 연행. 27일 오후 석방됐다. 이와관련 교계에서는 이들이 발표한 '종정교시'에 대한 진위여부가 논란되며 혼란 국면이 전개되기도 했다.

27일 월하스님은 정우스님(구룡사주지)이 대독한 '종정교시'를 통해 "총무원장 3선은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바 절대 부당하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3선 공방'이 '총무원 점거' '종정 교시' 등으로 확산됐다.

총무원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현 개혁 종헌을 수호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무를 운영해 갈 것"이라 맞섰다. 총무원장 3선반대를 위한 연대회의측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월주 총무원장의 3선 출마 야욕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월탄, 지선스님등 후보 진영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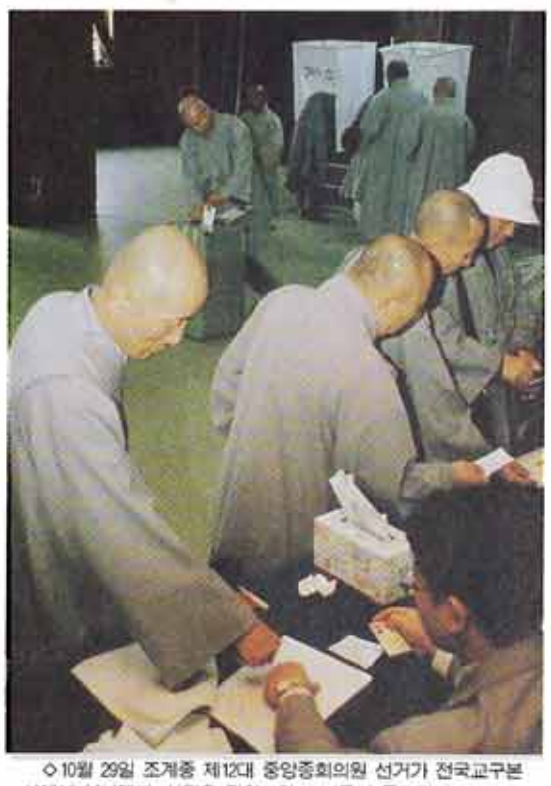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9일 담화문을 발표, 총무원 점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 과정에서 일탈하여 집단적인 폭력과 대중동원으로 종무행정을 마비시키고 종정(宗政)을 중단케 하려는 의도"라 지적하고 "총무원은 이러한 의도가 관철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것이며 모든 해종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3선 공방'의 향배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대한 방향타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연대회의는 11월 4일과 11일 대중법회를 연다는 방침이고 월하스님의 '종정 교시' 발표 후부터 원로회의 소집도 거론되고 있다.

원로회의가 소집될 경우 '3선문제'등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후보진영도 "이번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월탄, 설조, 지선스님은 9월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월주스님의 3선 저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10월 29일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전국교구본사에서 실시됐다. 사진은 직할교구 스님들의 투표장면.

조계종 종회의원 78명 선출

직선 48명-직능 20·비구니 10명

해인사는 투표 못해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10월 29일 완료됐다. 오전 각 교구종회에 이어 오후 1시부터 실시된 선거는 직할교구를 비롯 전국 10개본사에서 실시됐다. 이날 선거에서 투표없이 후보자를 당선시킨 교구는 제2교구 용주사 등 13곳이었다. 그러나 해인사는 일부 후보자의 서류가 누락돼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해인사 선거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추후 일정을 조정해 실시된다.

9월 26일 오후1시부터 실시된 직능직중앙종회의원 선출위원회에서도 10개분야 20명의 직능직 의원과 10명의 비구니 대표가 선출됐다. 중앙선관위는 11월 6일 당선된 중앙종회의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5면〉

한편 대각회는 정관개정 각서를 제출치 않아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임연태 기자

구족계 수계자격 강화

조계종 계단위, 갈마방침 공개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단일계단 수계산림의 수계 자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계단 유나 혜우스님은 최근 수계산림의 갈마방침을 공개, 구족계 수계 자격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계단위는 △동하안거중 위조자 △대교반이 없는 강원 졸업(예정)자, △승납 4명에 4동 하안거를 마치지 않은자나 강원이나 승가대학을 졸업하지 않은자 △기본습의와 오후불식을 이겨내지 못하고 흡연을 하거나 예식, 초발심자경문, 사미계율, 식차마나니계법 등을 숙지하지 못한자 △수계 승납 연한은 됐지만 기본교육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등에 대해서는 수계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11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속리산 법주사,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등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 5층탑인 팔상전, 쌍사자석등, 세계최대 규모의 청동미륵대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주사를 참배합니다.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조한 흥덕사가 있었던 곳으로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금속활자를 통해 본 선조들의 슬기"

'법주사·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출 발: 11월15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박물관 입장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효)
※ 11월로 불교문화 체험기행이 막을 내리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현대불교신문사 주관:혜초여행사 협찬:일양약품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품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앙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종회의원 당선자 명단 5면
"10만배 기도정진합시다" 23면
개신교 지도층 '훼불반성' 3면

教 示

오늘의 宗團現況이 甚히 念慮되는바 이에 教示를 내려 本人의 뜻을 밝히고져 하노라.

一. 總務院長 三選은 宗憲宗法에 違背되는바 절대 不當하다.
一. 宗團和合과 發展을 위해 宗憲宗法을 전향적으로 改定하기 바라노라.
一. 중징계자들을 선별하여 特別赦免 할 수 있는 法을 마련하라.
一. 부처님 根本戒律에 위배된 자(具足戒 未 受持者)가 宗務를 遂行하는 것을 是正하고 청정승가를 이룩하라.
一. 모든 宗徒들은 佛敎淨化理念을 되살려 제 2淨化 佛事를 하는 마음으로 모두 同參해서 宗團을 바로잡기 바란다.

나의 뜻을 元老와 重鎭, 本寺住持, 宗會議員들과 모든 宗徒들에게 밝히는 바이니 奉行하기 바라노라.

佛紀 2542年 10月 26日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尹日下

사 설

있어서는 안될 일

10월24일 일어난 조계종 총무원 접거 사태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4년만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조계종 선거를 앞두고 조계사 경내의 총무원건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불미스런 일이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우리 불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이 사태는 물론 4년반 전에 개혁회의에 의해 종권에서 밀려난 일부 승적 박탈자들이 저지른 '일과성 사건'이길 바란다. 조계종 총무원은 "해종행위자들의 종권복권 기도"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총무원에 있다고 공박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불자대중이 내리는 답은 간단하다. 승가전체의 책임이란 것이다. 조용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할 불교계의 선거가 이처럼 혼란상을 연출한 것은 '제도적 논리'를 떠나 승가에 대한 불자대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뻔하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낙엽 떨어지듯 신도가 떨어진다고 걱정이 태산같다. 지난날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에서 발생해 각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폭력사태가 야기한 불상사가 기억에도 새롭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인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군부독재시대가 지나고 문민정부라는 과도기를 거쳐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국가와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비민주적인 쓰레기를 치우고 민주적 공동체를 향해 힘을 합치고 있는 때이다.

이런 시류에 발맞춰 불교계도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전근대적인 폭력적 집단행동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우리 불자들이 늘 자랑하는 사상이 바로 '비폭력, 평화와 자비'가 아니던가. 아무리 불만스럽고 피해의식이 있어도 종헌 종법을 따르는 '정법정신'이 필요하다.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출세간법인 정법을 수호하는 것은 수행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의 임무이다. 나아가서 세간법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불자인 동시에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 속에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 서 있다. 첨단과학시대, 국제 정보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전근대적인 발상과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에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근대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개혁불사를 가로막는 암적 존재이다. 아무리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어렵고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대화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사태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교계 인사들은 깊은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 세속적 정치논리, 아니 그보다 더 치열한 정쟁을 보여준다면 중생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길을 잃게 된다. 이제라도 너와 나를 따지지 않고 보다 모범적이고 수행자다운 면모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12일로 코앞에 닥쳤다. 후보자들 간에 불필요한 중상 모략과 비방 그리고 종헌 종법을 어기는 불법선거로 과열현상이 나타나면 또다른 불미스러운 사태가 우려된다. 종헌 종법은 부처님 정신이다. 이 정신을 철저히 지켜 진정한 종책 대결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길 기대하며 이를 모든 사부대중이 지켜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초선 27명…종하스님 9선

조계종 종회의원 선거 투표율 57%…13개본사 무투표 당선

10월 29일 치러진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전국 10개 본사에서 표대결을 실시, 전체 유권자 1966명 가운데 1123명이 참가해 평균 투표참여율 57%를 보여 비교적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이는 94년도의 40% 안팎에 비해 17% 정도가 높아진 수치로 이번선거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지대한 관심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본사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로 전체 유권자 111명중 93명이 '한 표'를 행사해 84%의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저조한 본사는 제21교구 송광사로 158명의 유권자중 61명이 투표에 참가해 3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초 후보등록 때는 8개 본사가 정원 수에 후보자를 맡춰 무투표 당선을 예상했으나 신흥사 월정사 등 5개 본사가 교구차원에서 의견 조율을 보여 5곳이 늘어난 13개 본사에서 투표없이 당선자를 냈다. 정원이 3명인 제12교구 해인사의 경우 후보등록 막판까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선관위가 등록된 후보 4명이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결을 내리는 등 혼선을 빚다 끝내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해인사를 제외한 전국 23개 교구본사에서 완료된 투표 결과 제12대 중앙종회에서 처음 의원활동을 하게 될 초선의원은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10명인 비구니 대표 의원에서 6명이 초선의 길을 텄다. 또 제11대 종회에 이어 12대에서도 활동할 스님은 모두 42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제12대 중앙종회는 비교적 젊은 스님들이 대거 참가하게 됨으로 보다 젊은 종회로 출발하게 됐다. 제12대 중앙종회에서 활동할 의원 스님중 30~40대에 해당하는 55명의 스님 가운데 초선의원스님이 21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당선된 중앙종회의원 중 세납과 법납이 가장 높은 스님은 직능직 율원대표로 선출된 월서스님(36년생, 56년 득도)이며 가장 많은 선수(選數)를 기록한 스님은 제23교구 관음사에서 무투표 당선된 종하스님. 종하스님은 제4대부터 12대까지의 9선 행진을 기록했다. 제5교구 법주사에서 무투표 당선된 진구스님은 승납 최연소(82년득도), 제7교구 수덕사에서 당선된 정묵스님은 세납 최연소(62년생) 의원스님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투표가 실시된 교구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스님은 범어사에서 출마한 석호스님으로 투표인 169명 가운데 92표를 얻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한·중·일 3개국어 경전 편찬

불교우호위 합의 매년 4월 식목행사도

내년부터 매년 4월 한중일 3국이 같은 날 대규모 식목행사를 하고 3개국어로 된 경전도 발간하게 된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는 10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교류위는 이날 회의에서 매년 정기적인 회의와 수시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수행, 학습, 성지순례등 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3국불교우호교류 지도자 대회와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 자료는 교류 10주년을 기해 3개국어로 합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매년 4월 개최키로 한 식목행사는 각국이 같은 날 전불교도 차원의 행사로 갖기로 했으며 수종은 장생상록수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공동사용 경전은 반야심경 등 경전을 정해 3개국어로 편찬 교류회의 등 행사때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홍파 수석대표외 7명이 중국에서 성휘(聖輝)수석대표외 6명, 일본에서 미쓰다니 고쇼(水谷幸正) 수석대표외 8명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은 함께 마련한 호신불 금메달을 신재부 중국불교협의회 부비서장에게 증정하고 3국불교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임연태 기자

교구본사 주지모임 새 회장에 법장스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은 9월 27일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본사주지모임의 신임회장 선출은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지선스님(백양사주지)이 사임을 밝힘에 따른 것. <관련 인터뷰 4면>

이날 회의에는 12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선암사 주지에 세민스님 재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0월 29일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에 세민스님을 재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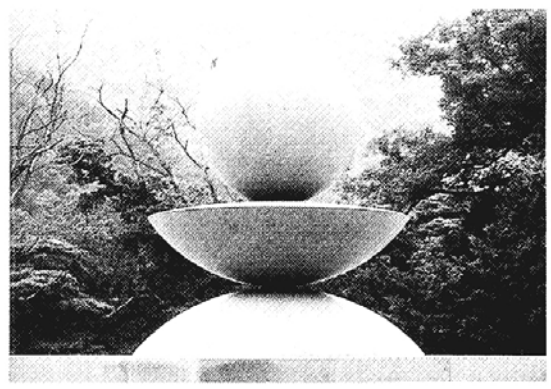
세민스님은 56년 지관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득도해 8,9,10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재무부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출강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봉은사 주지임명 놓고 승가대학인-신도 대치

후임주지가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후임주지로 거론돼 온 효종스님(중앙승가대총동문회장)과 무상스님(전봉은사주지)이 10월 30일 오후 5시 현재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50여명과 봉은사 진입을 시도하다 봉은사 대중 스님 및 신도들과 대치하고 있다.

두 스님측은 봉은사에 사중대표 및 신도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대해 봉은사비상대책위측은 "총무원의 임명장을 받은 후에 봉은사 주지로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해인사에 건립된 성철스님 사리탑.

성철스님 사리탑 완공 8일 회향법회

성철스님 사리탑이 완공돼 일반에 공개됐다.

해인사 일주문 밖 1백m 전방에 건립된 성철스님 사리탑은 조경을 제외한 면적 1백8평 규모에 높이 3.5m로, 설치예술가 최재은씨가 설계했다.

사리탑은 원(圓)·구(球)·반구(半球) 등을 기본개념으로,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자유자재한 세계에 도달하는 구도(求道)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성철스님문도회(회장 원택스님)는 스님의 열반 5주기인 8일 오전 10시 '성철스님사리탑 준공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조계종 26개 불교대학 실태조사

△조계종포교원은 11월 한달 동안 불교대학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포교원은 28일 실태조사 대상 26개 불교대학을 확정하고 포교원에서 제시한 필수교과목(불교입문, 불교교리, 불교사 등) 강의 여부, 비불교행위 교습 여부, 종단에서 인정치 않는 품계의 수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포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부산 유마힐포교원 치사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포교원은 실태조사 결과, 불교대학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비불교적 교습 행위를 한 불교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목사가 JTS 北 구호 비방

'말'지에 게재

정기열 티모니움 미국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월간 〈말〉지 11월호에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과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 민간기구인 JTS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륜스님과 최경숙 미국뉴욕JTS 상임이사는 10월27일 오후 참여연대 중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열 목사가 미국뉴욕JTS가 나진·선봉지역에 합법적으로 사무실을 개설, '영양식품 공장'을 운영하여 유치원과 탁아소를 지원하는 '나진·선봉 어린이 영양식 구호사업'을 있지도 않은 '빵공장'으로 둔갑시켜 '빵공장이 없으며, 지원주체도 달랐다'고 왜곡보도해 JTS는 물론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국내외 시민·사회·청년단체들의 명예에 지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월간 〈말〉지는 같은 날 "불교운동본부와 단체와 법륜스님의 북한동포돕기 활동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정치하나?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송월주 총무원장은 3선출마를 포기하라!



총무원장 3선 "된다""안된다"

30일 열릴 조계종 1박12회 임시종회에서의 27대 총무원장 선출문제를 놓고 교계는 3선출마를 시도하는 현 총무원장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재야세력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다.

조계종총무원은 총무원장선출을 안정적으로 다루 종회규정(16일)가 나는 직후인 18일부터 총무원장직 1층한쪽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간담회분위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시설보수공사를 내부 입주자 민원해결 아닙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선거는 규년 5월 말로 현 원장이 임기만료됨에 따라 연초부터 교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부분의 사안 즉 현 원장의 3선출마가 가능하냐는 법규상의 논란과 함께 3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5·6대의 주장이 교계 대부분에서 정도를 넘어 축각을 세우게 된 사안이다.

시비의 발단은 종헌 43조의 내용.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증임(重任)한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중임'의 의미는 재선까지만을 뜻한다는 재야의 주장과 부분이 아니라 거듭할 수 있는 뜻이라는 총무원측 인식을 주장

30일 종회 앞둔 조계종 긴장감 팽배

원장측 재임중 공로 많아…법적하자 없다

재야측 유신독재적 발상…총력저지 선언

○ 총무원장의 3일문제를 놓고 조계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종회의장단의 종회 진행 장면.

이 맞물려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3선과 관련해 양진영이 펴는 논리도 대립되 시리즈 연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총무원장진영은 지관의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재임기간중에 붙는다는 재야의 주장에 부분이 아니라 거듭할 수 있는 뜻이라는 총무원측 인식을 주장

단에으로 종단분규를 잠재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해냈다는 점기를 내리고 있다. 또한 막원만 업무수행능력을 갖고 있이 이를 대신 할 인물이 현재 큰 없는 실정이라는 대안부재 등을 거론하며 3선출마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야세력들은 최근의 여론조사결과(현대리서치 조사발표)에서 크게이 불교도들의 86.6%가 종교통합 연장과 종무분규재연 등의 이유를 들어 현 총무원장의 3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 총무원장의 3선출마구도가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유신구도와 흡사하다며 현 총무원장에 대해 반개혁적인 인물이라는 편가름 내리면서 종회를 추주하고 있다. 더우기 김무비림시간에 원장이 업무본다는 의료이 제기된 마당에 3선은 이와 상충이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현 총무원장이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은 안했지만 3선출마는 기정사실이다는 것이 교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한 종회의원은 "종회의원의 3분의 2가 넘 원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3선출마가 안에 정식적인 논란 거 없이통 역설했다. 본사 및 대형 사찰급의 주지스님들이 종회의원이 되고 이들이 총무원장을 선출한데 또 총무원장이 본사주지를 임명하는 상황구도하에서 일부스님세력을 빼고 나면 모두 현 원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묘한 구도때문이다는 것이다.

한편 재가불자 1천명이 22일 3선반대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신무도당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유일승가대학하생회 등 재야승가 8개 단체가 23일 '반승가종단세력추진의 불참입장'과 '성사법으로 현 원장의 3선저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연내에 긴장감은 30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취합한 기자)

법보신문 1994. 3. 28

우리는 94년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주 스님은 또다시 종정예하와
전 종도들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종헌 제19조에는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송월주 총무원장의 출마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총무원집행부와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추대위는 결정했습니다.

'3선출마 부당'을 천명하신 종정예하의 교시에 정면으로 불응하고 종헌을 무시하는 월주스님과 송월주 총무원장후보추대위야말로 해종행위자가 아닙니까?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정진법회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큰스님을 비롯한 전 종도들의 뜻을 모아 종단을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월주스님의 3선출마를 막아내고 종단의 수행가풍을 바로 세웁시다.**

■ 장 소: 조계사 대웅전
■ 일 시: 11월 4일 오후 2시
■ 문 의: 연대회의 사무실 (02)725-3766

불기 2542년 10월 30일

송월주 총무원장 3선 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

'종정교시' 일파만파

조계종 선거

청사점거 선거국면 급변

●…10월 24일 조계종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던 종진, 덕수, 동곡스님 등 28명의 스님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면서 선거국면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들 스님들이 '종정교시'를 내세워 총무원장 3선 반대와 사면복권을 주장하다 총무원이 요청한 공권력에 의해 전원 종로경찰서로 연행되며 사회여론의 촛점이 된 것. 총무원을 점거한 스님들은 조계종 제적 7명, 제적 멸빈 등의 징계 7명, 무적 14명 등으로 파악됐다. 총무원은 24일 밤과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종행위자들이 선거를 틈타 복권을 하려는 기도'라 일축했다. 연대회의는 오후2시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이 무기력하게 청사를 점거당한 것과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종단 위상 실추등을 강력 비난했다.

정우스님에게 '교시' 구술

●…24일 총무원 점거때부터 '종정교시'와 관련 모두 4건의 문건이 나왔다. 청사 점거와 함께 나온 '조계종도에 고함, 교시' 문건은 점거 스님들이 월하스님의 평소 생각에 자신들의 주장을 더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자로 발표된 월하스님의 '확인서'는 경찰에 연행된 28명의 스님들이 사법처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월하스님이 친필로 써 경찰관계자에게 보낸 것이 언론에 유출된 것. 또 총무원측이 25일자로 발표한 '본인에 대한 입장과 98년 10월 24일자 종정교시' 문건은 총무원이 통도사에 '종정교시' 확인여부를 물어 통도사측에서 총무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통도사 종무소에서 월하스님 뜻을 받들어 만든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월하스님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정우스님에 의해 대독된 '종정교시'는 월하스님이 정우스님에게 구술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스님이 대독한 '종정교시'의 내용은 △총무원장 3선 부당 △종헌종법 전향적 개정 △증징계자 선별 사면 △근본 계율에 위배된 자의 종무행정 수행 시정 △모든 종도들은 제2의 정화불사 하는 마음으로 종단을 바로 잡길 바란다 등이다. 월하스님은 '종정교시'에 대해 총무원이 '종정'이란 문구가 없는 점 등을 들며 의구심을 나타낸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종정'이라는 문구를 첨부했다.

"종헌종법대로 종무행정"

●…월하스님의 '종정교시'에 대해 총무원은 "종헌종법대로 종무행정을 수행해 나가며 선거도 일정대로 치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29일 담화문을 발표, 개혁종단의 정통성과 종헌 질서유지의 의지를 보였다.

교계 일각에서는 월하스님이 평소 종정이 아니라고 말했던 점을 들며 "새삼스러운 권한행사가 아니냐"는 반론도 펴고 있다.

원로회의 개최설도 거론

●…27일 정우스님이 월하스님의 '종정교시'를 발표한 직후부터 원로회의 개최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효림스님은 "당초 원로회의가 30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총무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 연기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의장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3선불가에 대한 입장도 종정스님과 같은것으로 안다"며 "다만 월주스님이 후보 등록을 해야 3선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원로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혜암스님 시자 각안스님은 "혜암스님은 현 상황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도 시기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선스님 출마 공식표명

●…지선스님이 28일 오전11시 총무원 청사 1층에서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출마 고불식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이날 '대화합의 종단운영 및 종무혁신' 등 7개분야 7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10월 24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점거했던 스님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선스님의 공식 출마 선언은 설조스님에 이어 두번째.

월주스님은 추대위의 추대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월탄스님은 교계와 일반 언론의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며 출마의사와 주요 종책을 밝히기도 했다. 지은스님도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다.

"3선 적부판단 먼저" 여론

●…3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헌종법에 근거한 '적부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를 심판할 수 있는 법규위원회에는 아직 3선관련 심판 청구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지 않는 것과관련 연대회의 측은 "3선은 법의 논리에 앞서 수행자의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월주스님측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심판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성명서-기자회견 잇달아

●…이번 선거에서는 전례없이 많은 성명서와 광고, 기자회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3선문제' 등에 대한 교계의 여론이 뜨겁게 달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 특히 24일 총무원 점거 사건 이후에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더욱 빈번해져 각 후보진영과 단체의 입장이 참예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선반대 오체투지 법회

●…총무원장 3선반대 범불교도연대회의는 30일 오후 2시 '월주 총무원장 3선 출마강행과 부정선거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참회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과 '원로대덕스님들께 올리는 글'을 통해 "종정교시를 받들 것"을 천명하고 "월주스님은 3선 출마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월하스님 전화 인터뷰

"평소 생각과 동일하다"



월하스님은 10월 29일 오후3시 40분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종정교시'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스님들이 총무원 청사에 들어 간 것은 나중에 알았다. 종로경찰 서장이 연락을 해서 몇명의 스님들이 종정교시를 수행한다고 총무원에 들어 갔다가 연행이 됐다고 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평소에 말했던 점이 있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서를 써서 보내 주었다. 누구든지 간에 내 의견을 주장하다가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장담당 관사와도 전화를 해서 다 옳은 소리를 한 것이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관사에게 내 뜻을 말했더니 잘 알겠으며 잘 처리되도록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스님들이 총무원에 들어갈 때 발표했다는 교시는 내가 그들에게 직접 말한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만들어 진 것인지 잘 모르지만 내용은 평소 나의 의견과 동일하다. 총무원에서 사면권 문제, 종단 재산권 문제 등을 들어 발표한 내용도 내가 평소에 말한바 그대로다. 그런 문건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정우스님이 발표한 교시는 내가 그 스님과 함께 앉아서 말해 준 것이고 그 내용도 나의 평소 생각 그대로이다.

임연태 기자

목어

스님들께

나라가 썩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악취가 날 정도입니다. 쓰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될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륜이 땅에 떨어져 윤리도덕이란 말이 간 곳 없습니다.

국회가 썩고 정치판이 썩어 개판이란 말이 나온지 오래됐습니다. 나라걱정보다 권력에 눈멀고 재물에 눈멀어 서로 헐뜯고 부정한 돈이 오가고 있습니다. IMF로 가슴아파하며 잠못이루는 정치인이 곶이나 될까요. 청렴해야할 공무원들까지 썩고있고, 신성한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눈쌀을 찌푸리다 못해 속상해하고 욕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국민들은 또 어떠합니까. 제 앞 챙기기에 바쁩니다. 나만 좋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소식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어쩌다 숨은 보살들이 있어 흐뭇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일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겠죠.

중생의 가슴 가슴마다 보살심이 잠재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의 한국불교는 어떻습니까. 썩고 있는데 빠질세라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정법을 일러주고 국민을 교화하여 '마음청정·국토청정'의 스승이 되어야 할 불교가 과연 제몫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총무원장 자리가 무엇이길래 세인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까. 세인들이 보기 민망하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비난이 나오고 등돌려 불교를 외면하면 어찌 시렵니까.

총무원장 선거를 종헌종법으로 해결안되면 부처님법대로 하면 될 텐데요. 만약 그렇게 못하면 한국불교의 모습, 조계종의 모습이 우습게 됩니다.

선거뿐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야 할 일이 한두건이 아니지만 우선 당면한 문제만이라도 슬기롭게 풀어주십시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께선 잠시 숨을 돌려 선거는 물론 일체의 생각을 놓고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그동안 갈고 닦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사의 향기와 함께 되살아 날 것입니다. 그것이 스님들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간청 하옵니다.

"개신교도·목회자·신학자들 훼불사건 진지하게 성찰하라"

월간 '기독교 사상' 11월호 '훼불특집' 실어

배타적 신앙교육등 반성 종교화합당부 호소문도

"한국 개신교도 전체,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금번 훼불사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용기를 지녀야 할 것이다."

개신교계의 대표적 권위지인 월간 〈기독교사상〉(발행인 김상근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이 최근 발행된 11월호에 사찰 방화와 불상 파괴 등 훼불문제를 60쪽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고 개신교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독교사상〉이 개신교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 개신교계내에서 훼불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와의 성숙한 관계, 악은 신앙'이라는 큰 제목을 붙이고 '기독교와 불교는 적대관계인가 협력관계인가?'(김경재 한신대 교수)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듯'(석마근 백담사 주지) '새로운 시대의 요청으로서의 종교간의 이해와 협력'(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종교학 교수)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의 문제'(이원규 감신대 교수) '누가 하늘을 독점할 수 있는가'(고진하 목사, 시인)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또 82년 5월~98년 8월 사이의 훼불일지, '종교간의 이해와 협력'을 주제로 김지길, 이종성, 장기천 목사 등 개신교 지도자 3인의 종교간 화합을 당부하는 간곡한 호소문도 실었다.

특히 김경재교수는 "제주 원명선원 훼불사건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한국 개신교의 신앙교육과 선교신학과 설교의 경향성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이 표출된 것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개신교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바르게 풀어내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정신적 성숙이나 문화창달도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도대체 누가 김수진씨(제주 원명선원 훼불사건 범인)로 하여금 이러한 신자가 되게 만들었는가" 묻고 "근본주의자들의 근본교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종말론, 사이비 순교신앙으로 순진한 교인들을 부추기고 세뇌시켜 죽음으로 몰고가는 거짓 지도자들을 엄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사건 발생원인을 △개신교의 순수신앙 변질 △문자에 얽매인 성경해석에 있다고 진단한 김교수는 "한국 개신교인들은 종교적 상징이 무엇인가를 배운 적도 없고, 오로지 문자적 성경무오설(聖經無誤說)에 의해서 교육되었다"며 종교상징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종교다원주의에 바탕한 새로운 신학의 정립을 촉구했다.

개신교계가 이같이 권위지의 지면을 빌려 훼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김경재교수의 지적처럼 "훼불 문제를 바르고 건전한 양식과 진정한 복음적 신학의 관점에서 물어내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다른 사회단체들로부터 '배타적, 독선적 집단'이라고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신교계의 최대 교단인 장로회 소속의 교인에 의해 원명선원 훼불이 일어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기독교(특히 개신교)의 경우 일반적인 시대 추세와는 달리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상을 반전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1997년 11월)을 보면 종교의 교리 차이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수용적인 태도의 비율이 84년 64.6%에서 61.7%로 오히려 낮아졌다. 개신교인 10명 중 7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불교인의 경우는 80.1%에서 87.0%로, 무종교인은 79.9%에서 84.2%로 증가했다.

민영진 〈기독교사상〉 편집위원장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독교인이 저지른 훼불사건에 대하여 기독교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불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길을 신학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땅히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해 조계종포교원과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스스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과 공격성의 지양을 호소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삼 화 문

— 해종행위자들의 준동은 척결되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선거시국을 틈타 과거 종단사 속에서 분규를 조장하고 승가의 화합을 깨뜨려왔던 일부 해종행위자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해종행위로 이미 제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들로서 개혁종단 출범 이후 안정된 종단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설 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종단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는 이번 선거과정에 끼어들므로써 자신들의 종단 내 입지를 다시 세우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무모한 의도에 부화뇌동하여 현재 많은 종도들의 참여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시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부대중의 염원과 헌신 속에서 이룩된 94년 종단개혁의 의의와 성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개혁종헌을 개혁 이전의 과거로 되돌이키려는, 종도들의 의지와 이익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와 지난 2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던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종도들과 법원으로부터 검증받은 본인의 원장출마 자격문제까지 재거론하며 지난 4년 동안 정상적으로 수행한 종무행정의 결과마저 부정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단의 발전과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략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종단개혁의 성과로 출범한 제28대 총무원은 종도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의미에서 임기 동안 해종분자들을 상대로 취해왔던 엄중한 입장을 흔들림없이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며 결코 종단에 혼란과 분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번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정착되고 안정과 화합의 토대가 갖춰진 바탕 위에서 종단발전과 21세기 확대된 불교의 역할을 전 종단 차원에서 모색해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따라서 종도들의 지혜와 원력을 한데 모아 앞으로의 종단 진로를 결정하는 종책선거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종도들을 실망시키고 전통종교로서의 불교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종행위자들의 의도에 동조하고 종도들의 가슴과 종단의 역사에는 또 한번의 되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유발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야기시킨 단초가 되었던 특정후보 출마자격의 시비가 특정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부정적인 선거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종헌종법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종단체제를 뒤흔들려는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종단행정의 수반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연대회의'의 일부 후보진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보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 해종행위자들의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해종행위자들과 나란히 서서 개혁종단과 개혁종헌의 정통성을 문제삼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원로와 중진스님으로부터 이런 주장에 동조해달라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등 실질적인 해종행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과정에서 일탈하여 집단적인 폭력과 대중동원으로 종무행정을 마비시키고 종정을 중단케 하려는 의도도 간파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은 기필코 이러한 의도가 관철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것이며 추후 예견되는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모든 해종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대화합을 염원하시는 원로 대덕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

종단은 이미 4년 전 끈질기게 발목을 낚아채던 종단의 분규사로부터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21세기 비약적인 발전의 궤도로 진입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총무원은 원로 대덕스님과 종도 여러분의 바램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종헌종법대로 선거를 치뤄나갈 것입니다. 결코 종정이 마비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끝으로 종단개혁의 소중한 의의와 개혁종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분들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행보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불기 2542년 10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교차로 승가



행자부장관 감사패 받아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10월21일 제5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자치부 김정길 장관으로부터 치안행정 발전과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청화스님 초청 대법회

법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11일 오후4시 정각원법당에서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0561)770-2016



해인승가대 총동문회장에

혜총 감로사 주지는 10월23일 구룡사에서 개최된 해인승가대 총동문회 98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해인승가대 4기로 졸업했다.



광동종고 추계 사찰순례

일면 광동학원 이사장(불암사 주지)은 10월 24일 광동종합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추계사찰순례, 10월 25일 광동여고 교직원 사찰순례를 각각 실시했다.



영가 합동천도재 봉행

영담 석왕사 주지는 10월 25일 오전 10시 석왕사 육화전에서 장례의례종합법당 창립 1주년을 맞아 영가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무의탁노인 초청 효도관광

설송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장은 10월 22일 지역내 무의탁노인을 초청해 남해 보리암으로 제4회 무의탁노인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자비관세음보살 석불 조성

송묵 동원정사 주지는 동원정사내에 7m 높이의 천수천안 자비관세음보살 석불을 조성하고, 10월 25일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실직자 위한 천일지장기도

도일 직지사 대구 수성구포교원 활룡사 주지는 10월 28일 이전 개원식 및 실직자를 위한 천일지장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회원 의견수렴·화합에 최선"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새회장 법장스님



"덕높은 본사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선돼 기쁘면서도 그분들의 뜻을 수렴해 종단과의 매개체로 역할해야 한다는 책무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조계종 '민족문화를 수호하는 본사주지모임'의 3대 회장을 맡은 법장스님(수덕사주지)은 자신감에 차 있다.

"종단은 종책을 입안하고 본사는 현장실행을 합니다. 각 말사들의 의견이 피부로 접촉이 되는 곳이 본사지요. 그만큼 본사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임은 전국 본사주지들이 서로 만나 포교 교육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종단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 본분입니다."

스님은 무엇보다 회원들간의 원융 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선거로 불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단현실에 대해 스님은 "종단발전에 퇴보하는 양상은 결코 없어야 하며 양보하고 스스로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네팔풍 문화공간 '예띠의 집'

이근후박사 삼청공원 입구에 열어



삼청동 공원 입구에 까페공간과 소모임을 즐길 수 있는 네팔풍의 문화공간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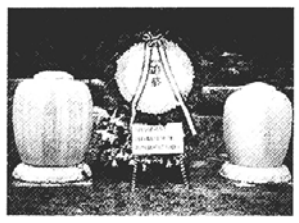
부처님나라 네팔에 20년동안 의료봉사활동을 벌여온 이근후 박사(이대 신경정신과·석불문화연구회장)가 사택을 개조해 마련한 '예띠의 집'으로 가족아카데미아(Family Academia)연구소의 사무실도 자리잡고 있다.

'예띠의 집' 마당에는 3개월 단위로 중견작가 작품 소품전이 상설로 열며, 도예가의 생활도자기 상설코너가 마련되고 있다. 또 지하의 50여평 사무실은 시청각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됐으며 사회교육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대여도 해준다.

'예띠'는 히말라야 설산 속에 살고 있는 전설적인 설인으로 셀파들에게는 그들의 염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존재. 이름에 걸맞게 '예띠의 집'은 맛과 멋을 즐기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문화와 문화인이 만나는 공간이다. (02)732-8144

위영란 기자

英 데일리메일지 회장 로더미어 덕유산 묻혀



10월 21일 오전 전북 무주 덕유산 백련사(주지 평상스님)에서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지의 회장 로더미어 자작(子爵)의 '부도(浮屠)'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부도 제막식은 로더미어자작이 사망하기 전 아내 이정선씨(48·재일교포)에게 "한국의 백련사에 부도로 남겨달라"는 유언에 따라 이루어졌다.

로더미어 자작의 부도는 백련사 일주문 앞 장모 최씨의 부도와 함께 나란히 세워졌다.

연출가 김상렬씨 별세



뮤지컬 '무애가' '님의 침묵' 등을 연출한 김상렬씨(57)가 10월 26일 오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불자연출가인 김씨는 탁월한 연출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28일 등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극인장(葬)으로 치러져 천안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우리는 선우 7돌 기념 십선계 수계

우리는 선우(공동대표·남지심 박광서)는 10월 24일 오후2시 창립 7주년 기념 십선계 수계법회를 수유리 화계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한국불교환경연구원 원장 법륜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불자 1백20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우리는 선우 윤용숙 이사는 향산장학회 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목동청소년회관 개관 10돌 기념법회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은 10월 26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초대 관장 혜춘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국장 종서스님, 양천사회체육센터 관장 성륜스님, 생명나눔실천회 회장 법장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명우스님은 "청소년회관은 사회의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차로 재가

가람시조문학상 받아



이상범 시조시인은 '천지간에' 외 2편으로 문학사상사가 주관하는 제19회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2일 세종문화회관.

'간행물 윤리상 출판부문 수상



장세우 대원사 대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하는 제9회 간행물 윤리상 출판부문 수상자로 선정, 10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발표



노부호 서강대교수(경불련 정책위원장)는 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리는 21세기 비지니스 포럼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위한 국정운영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초의문화제서 감사패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0월31일 해남 대둔사서 개최된 '제7회 초의문화제'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박태영·박종한(차인연합회 고문)씨는 초의상을 수상했다.

'빛은 동방에서' 강좌 신설



신상철 한국불교문화대학장은 17일부터 제1기 '빛은 동방에서' 전문강좌를 신설한다. 원효사상, 위빠사나, 불교영어, 아함경, 관음경, 불교사상통론 등을 지도한다.(02)336-1090

영호남 화합 국악한마당



김양일 울산일보 회장은 10월 30일 오후6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영·호남 화합의 일환으로 국악한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부가정보통신 MCI 설립



이호 前 불교TV 경영관리국장은 10월 14일 마포구 합정동에 PC통신, ARS, 인터넷, ATM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부가정보통신회사 MCI를 개업.(02)3142-9531

불교개혁과 자주종단의 뿌리를 부정하는 연대회의를 즉각 해체하라

민족을 향도하며 민족정신을 계도해 온 자랑찬 한국불교사의 최대의 치욕이 10·27법난이라는 것을 모든 불교도들이 잘 알고 있다. 이 불명예스럽고 가슴 아픈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종단없이 노력해 온 것이 80년대의 일이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10·27법난의 진실은 부도덕한 정권이 종권을 유린하고 불교개혁과 교단발전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법난의 피해 중심에는 당시 총무원장으로써 종단분규를 일소하고 정권의 속박에서 벗어나 화합종단, 자주종단을 건설하고자 했던 송월주 스님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쌓아왔던 역사적 성과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는 연대회의 일부 단체들에 참담함을 느끼며 10·27법난의 진상을 밝힌다.

10·27법난은 군사정권이 화합종단, 자주종단을 유린한 불교사의 치욕이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조계사 - 개운사 간의 분규가 1980년 3월 30일 쌍방의 합의로 20일 이내에 종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키로 하는 등 5개 조항에 대해 합의하면서 종식되었다. (**한국불교현대사, 동국대 석림동문회** 편)

10·27법난 며칠전인 10월 20일에는 조계종단 자율정화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불교관계법 개정 취지문이 나왔다.(**정토구현, 1988년 10월 25일, 정토구현전국승가회 기관지**)

당시의 문공부는 이러한 불교교단의 자주의식 강화에 당황하고,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송월주 총무원장의 취임등록을 거부하고 있었다. (**10·27 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1988년 11월, 윤월하, 김서운, 송월주, 유월탄, 이혜성 스님 명의 성명서**)

10·27법난은 "전두환장군 대통령추대 지지성명" 거부에 대한 폭력보복이었다.

1980년 8월 군사정권의 산하 정보기관은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던 전두환장군의 정치집권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조계종 총무원장의 명의로 발표해 줄 것을 송월주 총무원장에게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송월주 총무원장은 이를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거부하면서,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사정권에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이에 야비한 군사정권은 폭력으로 보복하였다. (**10·27 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성명서**)

제5공화국 지지성명을 당시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거부했던 사실과 전두환씨가 국보위상임위원장 시절 원로 대덕스님이 참석해 조찬법회를 가져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었다는 당시 천태종 총무원장 녹암스님의 증언으로 짐작되는 일이다. (**불교신문 1988년 10월 26일**)

10·27법난은 월주스님을 총무원장 직에서 강제로 사퇴시킨 종단사의 단절이었다.

수사결론이 중앙종회가 해왔던 일련의 일들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합법성을 바탕으로 스님께서 원장으로 선출됐다면 합법적인 종단이거든요. 그런데 왜 중앙종회를 해산시키고 총무원장의 사표를 강요해 그 후 소위 '불교정화중흥회의'를 출범시켰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대담자:성문-중앙종회의원, 월간법회 1987년 10월호**)

그들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자들에게 종단의 각급 직책을 강제로 사임하게 하여 정통종단의 종권을 단절시키고, 비정통 운영기구를 만들어 군사정권에 순응하게 하였다. (**10·27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성명서**)

불교의 최고 대표권자인 총무원장은 23일간이나 군수사대에서 감금된 채 조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총무원장직을 내 놓아야 했다.(**대승불교, 1988년 9월 30일 대승불교승가회 기관지**)

스스로 뿌리를 부정하고, 목을 조르는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말고, 연대회의 양심적 단체는 즉각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간곡히 요청한다.

10·27법난의 아픔을 당하고 많은 승가, 재가 종도들이 불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해 왔다. 10·27법난의 실체를 규명하는 투쟁속에서 불교운동이 발전해왔고, 단체들이 성숙해 왔다는 것은 모든 불교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월주스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모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한 것이 저간의 실정이었다. 80년 월주스님의 총무원장 재직시절을 화합종단, 자주종단의 단초라 여기고 수많은 인사와 단체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인식과 활동속에서 조계종단사에서 길이 빛날 '94년 개혁 종단 출범시에 모든 개혁세력이 합심하여 월주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당선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몇 몇 인사와 단체들이 월주스님의 80년 총무원장 재직을 정상적인 종무수행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는 10·27법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통과 핏줄을 부정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연대회의에 결합한 실천승가회와 각급 단체는 종단을 분란시키는 해종행위자들과 손을 놓고 개혁의 큰 물결로 신속하게 합류하라.

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해종행위자들과 개혁불만세력들이 개혁종단을 혼란으로 몰아가려 하는데 연대회의의 참가단체들이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쌓아온 종단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추락시킨 해종행위자들의 10월 24일 총무원 청사에 대한 폭력점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연대회의 공동의장인 진관스님이 폭력점거의 주역들인 사면복권추진위의 공동의장 또한 맡아 그들과 함께 행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80년대의 불교자주화 운동의 성과와 '94년 불교개혁의 성과로 현 개혁종단이 탄생됐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과 개혁의 물결에 의해 쫓겨났던 반개혁세력과 해종행위자들이 다시금 종단행정에 들어오려 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발전과 종단안정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종단을 혼란으로 몰아넣어 다시금 옛날의 영화를 되찾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시국의 긴박함을 인식하고 불교개혁의 지속과 종단발전을 염원하는 제 단체들은 즉각 연대회의를 해체하고, 불교개혁의 큰 물결에 합류하여 21세기를 향도해 갈 종단 건설에 매진하자.

불기 2542년 10월 29일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조계종 12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직선 · 직능직)

직선직

제1교구 직할


◇종림
△68년 고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재선.


◇광복
△71년 청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재선.


◇지현
△71년 법종스님을 은사로 득도. 청량사주지. 초선.


◇성관
△72년 정공스님을 은사로 득도. 화광포교당주지. 초선.

제2교구 용주사


◇정대
△63년 전강스님을 은사로 득도. 삼막사 회주. 8선.


◇세영
△76년 정무스님을 은사로 득도. 신륵사 주지. 재선.

제3교구 신흥사


◇청화
△64년 법인스님을 은사로 득도. 청평사 주지. 재선.


◇마근
△76년 무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백담사 주지. 초선.

제4교구 월정사


◇도완
△78년 희찬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흥사 주지. 초선.


◇정엄
△80년 희찬스님을 은사로 득도. 상원사 주지. 재선.

제5교구 법주사


◇지명
△62년 혜정스님을 은사로 득도. 청계사 주지. 재선.


◇진구
△82년 월남스님을 은사로 득도. 금성사 주지. 초선.

제6교구 마곡사


◇진각
△72년 도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고산사 주지. 초선.

제10교구 은해사


◇장욱
△73년 진경스님을 은사로 득도. 백제불교발행인. 재선.

제7교구 수덕사


◇인행
△69년 설정스님을 은사로 득도. 재선.


◇정묵
△76년 법장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덕사재무국장. 초선.

제8교구 법주사


◇법등
△61년 녹원스님을 은사로 득도. 직지사 부주지. 4선.


◇법보
△67년 녹원스님을 은사로 득도. 삼성암 주지. 초선.

제9교구 동화사


◇종운
△69년 종준스님을 은사로 득도. 안일사 주지. 초선.

제11교구 불국사


◇종상
△65년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불국사 부주지. 3선.


◇조광
△68년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재선.

제12교구 해인사

※선거 치르지 못함.

제13교구 쌍계사


◇영담
△68년 고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석왕사 주지. 3선.

제14교구 범어사


◇종분
△71년 능가스님을 은사로 득도. 보광사 주지. 초선.


◇법일
△80년 일타스님을 은사로 득도. 재선.

제15교구 통도사


◇정각
△61년 벽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도솔암 주지. 초선.


◇정우
△68년 홍법스님을 은사로 득도. 불교TV 대표이사. 4선.

제16교구 고운사


◇근일
△61년 도원스님을 은사로 득도. 부석사 주지. 4선.

제17교구 금산사


◇평상
△69년 월주스님을 은사로 득도. 백련사 주지. 재선.


◇석호
△76년 성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범어사재무국장 재선.

제18교구 백양사


◇성오
△59년 장근스님을 은사로 득도. 심향사 주지. 재선.


◇화범
△69년 운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재선.

제19교구 화엄사


◇진만
△68년 명선스님을 은사로 득도. 재선.

제21교구 송광사


◇영조
△68년 보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증심사 주지. 재선.


◇송삼
△75년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 향일암 주지. 초선.


◇원행
△73년 월주스님을 은사로 득도. 안국사 주지. 재선.

제22교구 대흥사


◇원학
△65년 도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용연사 주지 3선.


◇월우
△78년 천운스님을 은사로 득도. 대흥사 재무국장 초선.

제23교구 관음사


◇종하
△59년 고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음사 주지. 9선.


◇탄우
△78년 천장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촉사 주지 초선.

제24교구 선운사


◇대원
△75년 재곤스님을 은사로 득도. 재선.

◇법봉
△72년 익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초선.

제25교구 봉선사

◇일면
△64년 명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쌀암사 주지. 4선.

◇경훈
△76년 일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회암사 주지. 초선.

직능직

올원

◇월서
△56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조심호계원장 6선.

◇성우
△63년 고송스님을 은사로 득도. 파계사 주지. 3선.

선원

◇명진
△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진한정사 주지. 재선.

◇진원
△80년 혜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내소사 주지 초선.

강원

◇현응
△72년 종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 홍제암 초선.

◇지욱
△78년 삼호스님을 은사로 득도. 불국사승가대학장 초선.

교육

◇지하
△60년 수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중앙승가대학장 7선.

◇향적
△67년 일타스님을 은사로 득도. 교육원 교육부장 3선.

사회

◇법성
△70년 도문스님을 은사로 득도. 대승원 주지 재선.

◇법인
△80년 원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금선사 주지 재선.

복지

◇정우
△60년 광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금강사주지. 재선.

◇혜창
△62년 녹원스님을 은사로 득도. 사회복지재단 복지원장 4선.

문화

◇영배
△66년 경하스님을 은사로 득도 봉도사 재선.

◇연연
△72년 혜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알지암 암주. 재선.

법제

◇정휴
△61년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불교신문사사장. 5선.

◇법민
△72년 도원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음사 부주지 초선.

행정

◇현근
△62년 월용스님을 은사로 득도 조계사 주지. 5선.

◇장윤
△61년 상묵스님을 은사로 득도. 전등사 주지. 재선.

포교

◇지홍
△70년 광덕스님을 은사로 득도. 총무원기획실장 재선.

◇원명
△70년 성철스님을 은사로 득도. 연등국제선원장. 재선.

비구니

◇수현
△55년 보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안흥사 주지 재선.

◇법정
△58년 지택스님을 은사로 득도. 지비사 주지 초선.

◇도문
△59년 인홍스님을 은사로 득도. 석남사 초선.

◇일법
△59년 삼현스님을 은사로 득도. 대문사 주지 재선.

◇운달
△63년 지현스님을 은사로 득도. 미타사감원 초선.

◇본각
△68년 은년스님을 은사로 득도. 중앙승가대 교수. 재선.

◇지형
△67년 법인스님을 은사로 득도. 청암사 주지. 초선.

◇계호
△67년 진경스님을 은사로 득도. 보문사 주지. 초선.

◇해주
△72년 송관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국내 교수. 재선.

◇정분
△74년 묘각스님을 은사로 득도. 석불사 총무 초선.

건강의 신비
玉
옥목결이의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玉山家
(02)
777-0105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 기자회견문

-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스님, 중진스님 및 종도여러분께 가사장삼을 여미고 삼가 예를 올립니다.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종단내 혼란이 야기되어 승단의 화합이 저해되고 있는데 대하여 개혁을 주창해온 책임있는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종도여러분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종단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3선 강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장 스님의 3선 강행은 위로는 종정 예하와 원로 스님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는 종도들의 뜻을 저버림은 물론, 종헌 질서를 위배하는 처사입니다. 3선 문제의 해결 없이는 현재의 혼란된 모습을 극복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에 입각한 월주 스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는 종정 예하의 애종의 뜻이 담긴 교시가 화합 승단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종정 예하의 뜻을 왜곡하거나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종정 스님을 평소 잘 모시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종단은 총무원장이 독점적인 지위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94년 종단개혁이라는 엄청난 파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총무원장이 바뀌는 것이, 그 자리를 내놓는 사람이나 그 자리를 다시 잇는 사람이나, 종단 구성원 모두에게 자연스럽고 염려되지 않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종단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개혁종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종헌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제가 종단 소임을 맡게되면 단임을 구현하여 소임에 집착하지 않고 물러나는 미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여러분!

지금 우리 종단은 어느 때 보다 안정된 종단 체제의 정착과 종단의 화합된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힘은 화합에서 나옵니다. 우리 종단이 화합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종단운영에 있어 '총무원장 일인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이 종단을 운영하는 풍토가 되어야 하며, 하나의 문화로 배어나야 합니다.

긴호흡을 갖고 중단없이 개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을 이끌고 나갈 화합의 구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총무원장이 종단내 원로중진 스님들의 견해를 겸허히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종도들의 비판과 충고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종도 여러분!

먼저 소임자의 본래 역할은 승가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수행가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을 외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합되고 안정된 종단 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승단이 보다 더 청정해지고 수행가풍이 되살아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 본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리 승단이 희망의 빛으로 이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종교인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흐트러짐없는 수행자의 자세로 끝까지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스님 수행 이력

1946년 1월 6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에서 출생
1961년 5월 1일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에서 김석산(石山)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4년 3월	경상남도 범어사에서 동산 대종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1967년 3월	범어사 석암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2년 3월	서옹 대종사를 법사로 건당
1976년 1월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
10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1978년 9월	조계종 비상종회의원
1980년 4월	조계종 6대 중앙종회의원
1981년11월	제3회 '세계승가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1986년 6월	정토구현 전국승가회 의장
1987년 ~ 92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연합 공동의장
1981년11월	제3회 '세계승가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1987년 5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의장
1992년10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1993년 7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의장
1994년 3월	범승가 종단개혁 추진위 상임지도위원
1994년 5월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부위원장 및 개혁회의 의원
1994년10월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취임
1998년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 모임 회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 상임위원

불기 2542년 10월 28일

백암산 사문 지선 합장

열린마당

불교지도자의 덕목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10월 29일 중앙종회의원 81명을 뽑았다. 4년 동안 불교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 및 집행부 감사 활동을 벌인다. 12일에는 새 총무원장을 뽑는다. 또 중앙종회 의장도 뽑는다. 불교의 지도자는 불교만의 지도자가 아니다. 1천만 불자들은 물론 온국민의 정신적 사표이다. 더욱이 20세기를 마감하고 문명의 전환이 예고되는 21세기를 여는 시점이다. 지도자는 어떠 해야 하는지 불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편집자 주〉

자기허물 비판하는 용기

지묵스님 〈길상사 수련원장〉



우리 스스로의 허물을 대면할 수 있는 담담함과 아픔을 감수하며 씻어낼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때다. 우리의 허물은 무엇인가.

조계종의 현 종단구조는 행정기관이 너무 비대하다. 세속인의 눈에 총무원이나 중앙종회가 권력의 중심처럼 비쳐져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일진대 수행과 교육, 포교에 종력이 모아져야 hoi 당연한 이치이다. 차제에 총무원 중심의 종단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교육과 포교를 뒷받침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선거는 지도자를 뽑는 축제라고 흔히 말한다. 불교의 선거도 예외이지 않다. 불교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를 모시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일들을 보면, 권력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니 웬일인가.

현행의 조계종 선거제도는 세계에 어느 종교단체에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선거제도가 부처님의 정신에 합당한지, 혹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때다. 장로의 권위를 받드는 무형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상의 바램을 귀담아 듣는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한다.

시대흐름 간파 미래예측

이계홍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개인적 행복이면서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큰 영광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영명한 지도자를 만났다고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진면목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일단 지도자 반열에 오르면 할퀴고 물어뜯어 탕자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정서였다.

불자로서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는 것은 자명하다.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간파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비전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덕목이다.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보수적이고 퇴영적이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헤메고 있다는 얘기를 곧잘 듣는데, 이젠 그런 말 자체가 퇴보와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 또한 너무도 자명하다. 각자 다른 의견을 아우르는 통합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카리스마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키우고 따르는 토양이 갖춰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치 않을까. 인간이란 환경적·시대적 상황에 의해 탄생되기 때문이다.

삼귀의·사홍서원 지켜야

김문숙 〈부산불교문인협회장〉



삼귀의는 불자들의 기본적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삼귀의 봉창으로 정신을 가다듬는다. 거룩한 스님에게 귀의합니다 라는 귀의서약은 스님다운 스님에게만 귀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스님이라면 모두가 부처님의 화신이고, 현세의 부처님이니까 귀의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큰 절의 주지로 이름난 대덕스님이거나 어제 출가한 초보스님이거나 겨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고 자신은 부처되기를 발원하고 정진하므로 '스님'이라는 더 없이 귀중한 칭호가 주어진다고 생각된다. 아니 사부대중은 그렇게 믿고 있다. 추악한 권력싸움으로 불자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된다. 총무원장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여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사홍서원을 크게 되새겨 보는 것이 어떠 할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지도자라 해서 불세출의 영웅처럼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삼귀의와 사홍서원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수행자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21세기의 불교지도자 상일 것이다.

전통계승하되 혁신 인정

박법수 〈대불청 경기지구회장〉



사부대중이 승단 운영에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고 점진적으로 승단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분이라면 세간에 섞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수행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는 것을 복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과거사를 놓고 보더라도,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받았던 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워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매불매종을 일삼았다.

불교지도자는 또 승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불교의 승단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우수하고 창조적인 승풍이 있다. 그 승풍을 살려서 한국불교가 21세기 정신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불교의 전통을 복원하는 일은 시급하다.

아울러 환경·노사·통일 등 중생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에 부처님의 법을 투영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없는 가르침인 불교는 중생들을 위한 중생들의 귀의처이기 때문이다.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 (45년11~12월)

처덕언스님과의 대화

- 1945년 11월16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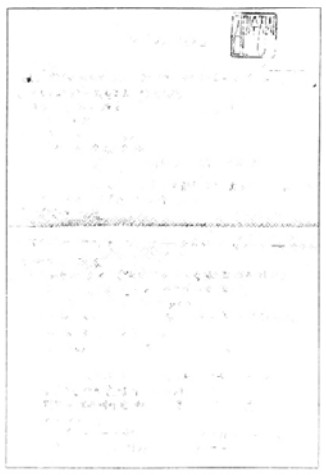
저녁나절 절 앞 백양관(白羊館) 근처로 산책을 나갔다. 이엉을 엮는 농부 서넛이 보였다. 백양관 맞은편 야랫집 문이 활짝 열렸고, 들여다보이는 부엌에 깨끗한 사발이 놓여 있었다. 음식점 같아서 술이나 한 잔 할까 하고 물었으나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일제의 전시(戰時)가 끝난지 얼마 안된 탓이려니 하고 그냥 절로 돌아오고 말았다.

저녁을 먹고 뜰에 무료히 앉았다가 최덕림 스님을 만나 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불교'란 대체 어떤 종교인가 궁금해 하니 불교는 종교 중에서 범위가 매우 넓은데 그것은 추구하는 영적(靈的) 세계가 무한한 것으로, 인간은 생사(生死)의 기로에서 동물과 구별되지만 불교에서는 우선 죽음을 초월하여 죽어서 인생(人生)세계를 버리고 영적세계로 간다고 믿는다고 했다.

스님은 유심론(唯心論)과 유물론(唯物論)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철학에서는 우주의 형성을 하나의 실체로 설명하려는 일원론(一元論)과 정신과 물질 두 실체로 설명하려는 이원론(二元論), 많은 실체로 설명하려는 다원론(多元論)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세상의 사물과 현상은 마음이 변하여 생긴 것이라는 화엄사상에 따라 마음 이외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유심론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철학으로 쏠린다는 생각에 불교의 이상(理想)이 무엇인가하고 물었더니 좌선(坐禪), 천화(遷化)를 최고의 이상으로 한다고 답하였다. 가만히 묵심(默心)하여 항상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통일시키는 선, 자신의 마음을 하고싶은 대로 하고 악의 인간세계를 떠나 영(靈)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는 최고의 이상이라고 했다.

얘기가 깊어질수록 궁금증이 더해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질문을 했다. 불교는 종교 중에서 이론이 가장 발달하였고 철학분야로도 발전하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올라 이 점에 관해 묻자 철학에서 아직 의문시되는 것이 불교철학에서는 해결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불교에 대해 알듯 모를 듯한 매력을 느꼈다. 불교가 일반 민중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정신지도로 맺어지는 효과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사회를 깨끗하게 이끌고, 신앙함으로써 수양하고 옳은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는 요지였다.

특히 불교는 귀일적(歸一的)이므로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 스님의 거침없는 답변이 인상 깊어 이야기에 열중하다가 보니 등잔불 돋우는 것도 잊었다.



◇김민수교수가 훈민정음을 기초로 작성한 한글강습회 국어교본.

청년들의 수련

- 1945년 11월17일(토)

오늘은 웬일인지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다. 절 음식은 다 채소로 만들었어도 맛이 꽉 좋다. 절이 아니면 도저히 겪어보지 못할 맛이다. 하루종일 강습회 강의안 손질을 계속하였다. 낮에는 청년 20여명이 행진해 오더니 극락교(極樂橋)를 건너오기 전 정렬을 하고, 정렬이 끝나자 무릎을 낮추어 행진해 들어왔다. 모두 군인으로 출정했다가 돌아온 청년들 같아 보였다. 절에서 청년 무슨 강습회를 일주일 연다고 들은 말이 있었는데 그들이 온 것 같다.

서옹스님과의 재회

- 1945년 11월18일(일)

오늘 아침에는 졸졸 흐르는 도랑물로 세수를 하려고 극락교 위쪽으로 나갔다. 세수를 하고 길로 올라서는데 위쪽에서 이상순(李商純·現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스님이 걸어왔다. 스님은 서울 청진동 조선어학회로 국어강사를 초빙하러 왔던 적이 있었다. 이희승(李熙昇) 교양간사의 소개로 나와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눴다. 서옹스님과 함께 절로 돌아오니 따뜻한 아침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차기 종단을 이끌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지선 후보 이어야 하는가?

귀의 삼보 하옵고!
존경하는 월하 종정예하, 원로회의의장 각위원 큰스님,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대덕, 오늘도 묵묵히 수행과 전법에 전념 하시는 대중스님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금번 제29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321명의 선거인단 대덕 스님 여러분!

현하 우리는 종단이, 종단 내외의 현안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차기 총무원장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종단 개혁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솔직히 의심함이 사실 입니다.
또한 이시대 왜 불교 이어야 만 하는가? 이 또한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바 입니다. 물질만능에 인간은 고립 반목되어 인류는 지금 공허한 심적 자괴감에 빠져 있음이 사실 입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채워줄 대안이 불교에 그것도 한국 불교에서 찾고 있음은 세계석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바탕한 우리 만의 독창적 찬란한 불교 문화 사상과 이를 제창한 원효, 의상, 원칙, 서산, 보우 및 근세 만해, 성철 스님등 걸출한 인물들이 이땅에 있음입니다.

종단을 이제는 더 이상 종책과 종무의 실험장 화할수 없습니다. 대중의 가슴에 종단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이시대 불교가 종단이 인천의 스승 으로서 대사회 책임을 지는가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한것이 현실 입니다. ◆IMF 외환관리 체제라는 건국이후 최대의 위기임에 우리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적 가치의 몰락 운운하는 지금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정서가 깃든 금강산을 목전에서 대기업과 타종교 그룹에 선점 당하는 지금 태평 하고 있습니다. ◆부모형제가 돈에 가치만을 두고 살인을 함에 너무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한국 이래도 되나를 곳곳에서 외침에 대사회 책임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생의 근본과 지말의 무명을 해결함에 서원을 다하고 있다 할수 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진리임을 더욱 당당 하게 증명 하여야 합니다. 물질앞에 너무나 허무 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정신 이로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때 우리는 제 29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책무를 다할 인물이 누구이며? 후보중 누가 가장 적임인가를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 하는 종정 예하, 원로 및 중진 대덕그리고 대중 스님 여러분!
선구자적 자세로 종단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 불교 문화를 창달할 인물 이어야만 다시는 시행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 무소유 정신에 입각한 그 불교적 세계관과 일상 생활상이 검증된 스님 이어야만 합니다.
● 수행과 교화에 남다른 구도자적 자세가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대국민 독창적 불교 문화의 새지평을 열수 있는 인물 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 와 세계에 불교를 전파 하고 인류의 문화 창달에 공헌 할수 있는 인물 이어야 합니다. ●현 국난인 IMF 사태를 해결함에 불교적 역량을 발휘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부대중에게 덕화의 미소를 보내고 존경을 받으며 화합의 장으로 종단을 이끌고 난제의 해결과 지속적 개혁을 이끌 스님 이어야 합니다.

대중의 마음속에 문중과 대소 상황을 떠나 실지 대세가 지선 스님 이라면 아류적 판단 일까요? 아닙니다. 실지 현 종단의 험난을 헤쳐 나갈 인물로 필연이라 생각 합니다. 현 우리 종단은 지난 94년 개혁 회의 이후 외형상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 으로는 고립과 반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승풍을 가장 진작 시켜야할 중요한 분수령적 시기입니다.
실지 모든 대중의 가슴 속에 종단과 현실에 있어서 무엇인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어려울 때 일수록 근본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종단 개혁의 불사는 바로 선구자적, 희생적 각오의 구도심이 있는 승려 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 입니다. **차기 총무 원장 후보중 누가 과연 진실로 불교를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가 바로 선택의 첫 기준입니다.** 혹자는 지선 후보는 개혁 주체세력으로서 현 종단의 모든 문제점에 책임이 있다 주장 합니다. 이를 전면 부정 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지선 후보 에게 종단의 개혁을 100% 맡겨본 사실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중대한 결심으로 종단을 이끌 진실한 행자를 지명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급속히 변화합니다. 우리는 종단을 더 이상 실험장화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할 일과 해결 하여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덕화가 있고, 힘과 용기가 있는 건강한 몸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중 누가 과연 현종단을 안정, 발전시키고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달하고, 승풍을 진작시킬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으로 발전적으로 종단을 이끌 우리의 도반과 같은 원장이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위대한 가르침을 침체와 사장에서 당당하게 대중의 가슴에 접속 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종단의 근본적 철학과 제도적 틀을 건축할 것입니다. 지선은 그일을 할 것입니다.
전 종도에게 책임의 종무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작은 총무원 큰종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종도 에게는 그 고고한 수도자의 상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서민 대중에게는 항시 의지할수 있는 견고한 지팡이로서의 목탁이 될 것입니다. ■ 국가 사회의 지도층에게는 올바른 보살행을 행하게 할 경책자로서의 목탁이 될 것입니다. ■지선은 암울했던 지난날도 그랬듯이, 앞날에도 사회와 국가를 밝히는 장명등으로서의 목탁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선이 총무원장 후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진실이 여기에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불기 2542년 10월 31일

실천적 불교문화 창달을 요구하는 전국대학교수연합 일동

● 오해와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한 분들의 명단을 게재하지 못합니다.

소설로 환생한 성철스님

정찬주 구도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영원히 회자될 불멸의 깨우침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법어를 남긴 우리 시대의 스승 퇴옹 성철스님. 그 모습과 가르침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정찬주(45)씨가 펴낸 〈산은 산 물은 물〉(전 2권, 민음사 刊)은 성철스님의 수행 모습과 일화가 생생히 펼쳐져 있는 전기이자 구도소설. 저자 특유의 서정적이고 담백한 문체로 품격을 지키면서 형상화된 성철스님의 모습은 천년의 풍우를 견딘 수승(殊勝)한 탑으로 다가온다.

조계종 원로회의장 혜암스님과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도선사 도우스님 등 성철스님과 인연있는 20여 스님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것도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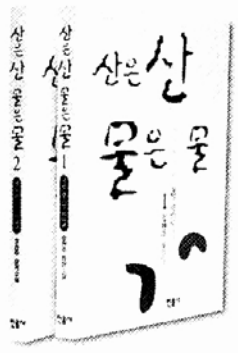
젊은시절 수행과정 장좌불와 일화 등 마치 생전모습 대하듯


◇정찬주씨

이야기는 서울지방검찰청 정익진 검사가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화두를 풀기위해 성철스님 수행지를 돌아다니는 것으로부터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성철스님의 수행과정과 일화들이 속속들이 드러난다. 출가전 일본을 다녀오면서 관부연락선 갑판에서 목숨을 던지려했던 방황과 하이네 시집과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좋아했던 젊은 시절 스님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선다.

그리고 8년간 한 순간도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고행, 출가 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중생의 죄를 대신해 절을 했던 백팔참회, 평생 생식을 했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정검사가 고행끝에 얻은 깨달음은 '성철스님은 없다'. 자신이 깨달은 마음자리가 곧 성철이요 부처임을 알게 된다. 결국 성철을 찾아 헤맨 1년간 자신은 늘 성철스님과 함께 생활해왔음을 깨우친다. 여기에서 저자는 정검사가 곧 우리들 자신임을, 성철스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추는 거울임을 암시한다.



저자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해인사 퇴옹도사 등 성철스님이 계셨던 곳은 모두 찾아다녔다. 이 작품을 읽어 본 성철스님의 딸 불필스님으로부터 "큰스님의 모습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다.

정찬주씨는 "독자들이 정검사가 된다면 스스로 자신이 곧 부처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각 권 7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심시심 〈148〉

생각 허공으로 흩이자

春日雲門寺 (춘일운문사)	봄날의 운문사엔
若耶溪上橋 (야야계상교)	야야계 시내 위의 다리
漣漪明鯉目 (연기명이목)	맑은 물결 반짝이는 잉어의 눈
花蕊動蜂腰 (화예동봉요)	꽃술마다 움직이는 벌의 허리
煩鼓妨詠嘯 (번계방영소)	번거로운 고동 시 읊음 방해되니
散慮落逍遙 (산려락소요)	생각 흩어 먼 허공에 떨어뜨리자
笑看烟禽向 (소간연금향)	웃으며 쳐다본 아지랑이의 새 가는 곳
山童夕採樵 (산동석채초)	산 마을 아이 저녁 땔감 벤다.

월하대사의 '야야계(若耶溪)'라는 시이다. 원래 야야계는 중국의 절강성 야야산에 있는 계곡의 이름이다. 이 시냇가의 바위 하나가 월의 미녀인 서시(西施)가 빨래한 곳이라 하여 유명해 졌다. 그래서 완사계(浣紗溪)라 하기도 한다. 이 야야계 위에 운문사가 있기에, 이 시는 첫 련에서 시의 배경을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그 주위의 풍광을 자연스럽게 읊고 있다.

물이 맑기에 고기의 눈빛이 밝다. 잉어의 눈이 밝다 하였으니 역시 그리 흔히 쓰이는 일상어는 아니다. 물의 맑음과 물고기의 밝음을 동질적으로 한 공간에 두었으니 이 맑음과 밝음의 대조가 봄날의 화사함을 돋보이게 한다.

갓 피어나는 꽃술은 벌들을 바쁘게 한다. 꽃술이 벌의 허리를 동요시킨다. 벌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꽃술이 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 쪽의 동작을 보이기 위하여 저 쪽 사물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수법이니, 이 또한 불교의 연기적 상상이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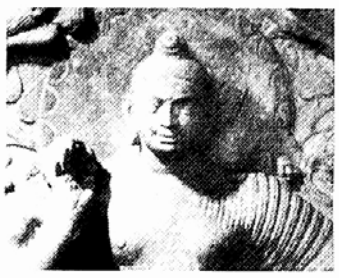
이럴 때 시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이런 외계의 번다함에만 주목하다 보면 생각이 흩어져 초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도피시켜야겠다. 그래서 저 먼 곳으로 시선을 돌려 저 한적하고 아늑한 곳으로 떨어뜨렸다. 이 시선은 새들이 날아가는 그 곳과 일치된다. 그러나 그곳이 새의 지향점이 아니라, 산마을 어린이의 나무하는 곳이었다. 이 고요와 한적을 저 나무하는 초동의 풀짐속에다 담아버리고 말았다. 위에서 말한 허공은 허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산 사람의 마을이었던 것이다. 역시 승 속의 거리를 단절한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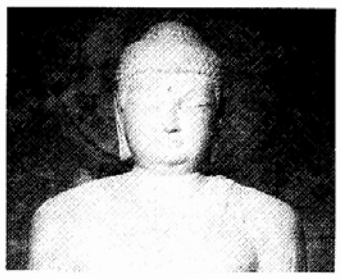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

K-1TV 4 · 11일 밤 12시 방영 인도 · 파키스탄 · 중국 불상 분석


◇그리스 쿠로스상.


◇인도 불상.


◇중국 용문석굴.


◇석굴암 본존불.

단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미소의 석굴암 본존불. 천여년동안 우리민족의 상징이었고 새 세기에도 한국인의 마음에 긍지를 불어넣어줄 그 미소는 어디서 온 것일까.

KBS-1 TV가 4일과 11일 밤12시부터 12시45분까지 45분간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2부작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는 석굴암 본존불 서산 마애삼존불 등의 고졸한 미소가 서기전 5백년까지 초기 그리스 조각에서 발견되는 '아르카익 스마일'과 같은 흐름이라고 규정한다. 석굴암 본존불에서 출발, 그 미소의 발상지로 추적되는 그리스 아테네까지 2만km 실크로드를 따라 미소의 근원을 하나씩 역추적해가는 이 기행다큐는 정수웅(다큐서울대표)감독이 기획·촬영·연출·대본·편집 등을 혼자 맡아 '1인 제작시스템'으로 완성했다. 이 프로에서는 중국과 파키스탄 불상속에 들어있는 미소들에 대한 현지 박물관장, 고고학자들의 분석과 고증을 통해 그리스·로마 문화의 미학을 의미하는 '아르카익 스마일'이 고대 그리스의 제우스상이나 아폴로 상에서 시작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학설을 설명해 준다.

특히 중국 운강 석굴 서안반-물관 및 인도 마투라박물관 사르나트 불상 등과 대륙 등방 끝에 위치한 석굴암 대불을 함께 소개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미소만은 이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정씨는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에서 완성된 아르카익 미소의 역사를 통해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고자 했다"고 이 프로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통일서예대전 대상에 조주연씨 한글서예

한국종교서예인협회(회장 법타스님)와 평불협, 한국종교인평화희의가 공동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에서 조주연씨의 한글서예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문부문 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이봉재씨의 '黃龍紫鳳', 통일부장관상에 이재무씨의 '夜坐聽雨', 행정자치부장관상에 최광일씨의 '趙璞선생 詩'가, 한글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박순아씨의 '금강유람가', 문인화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박경호씨의 '大意', 전각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이명실씨의 '김영재님의 저녁산 중에서'가 각각 선정됐다.

'나라의 통일, 종교간의 화해, 서예인들의 화합'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통일서예대전에는 한문 484점, 한글 379점, 문인화 101점 등 총 968점이 출품돼 특별상 8명 특선 95명 입선 27명 등이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조주연作 '통일기원'.

경주 나원리 5층석탑서 발견한 종이 현존 최고 다라니경 사경 '확인'

지난 96년 해체보수과정에서 수습된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국보 제39호) 사리함 안의 종이조각이 현존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사경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8세기초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에 따르면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나온 다라니경은 초기 사경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 최고본으로 알려진 황복사 다라니경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라니경은 각 다라니마다 77벌 또는 99벌의 필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인쇄술 발명의 계기가 되어 석가탑에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봉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지연 기자

이인자 일러스트전 '蓮'

경기대 이인자교수(산업디자인과)가 연꽃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전을 6~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화랑에서 갖는다. 이번 '蓮'전에서는 실을 이용한 오브제로 연잎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래픽화한 핸드드로잉 작품 26점을 만나볼 수 있다. (02)411-4761


◇이인자作 '연'.

화제의 전시

정경용 불교미술전

정경용씨(동국대 미술과 강사)의 불교미술전이 5일부터 12일까지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등 소조작품과 10대제자상, 감실보살사유상〈사진〉, 십일면 관세음보살상 등 석굴암조각을 채색으로 옮긴 불화, 비천상, 달마상, 용 등 70여점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02)733-5590



화제의 전시

문화재기능인 작품전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는 14일까지 충남 예산 덕산면 한국건축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문화재기능인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여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흥수 신응수씨 등 회원들의 작품 2백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0458)337-5877


◇조계수作 '대웅전'.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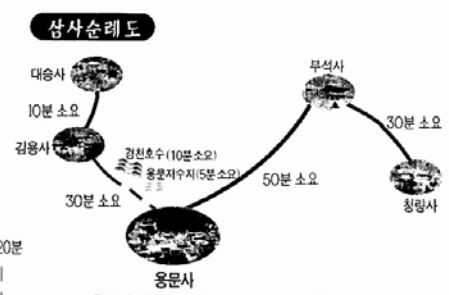
주지 청 안 합장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 10~6 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일 자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회 향** :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화산 큰스님,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 안 사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해외신간

부처님의 지각



영국의 저명한 정신치료학자 데이비드 브라지어박사는 최근 저서 〈부처님의 지각(Feeling Buddha)〉에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사성제로부터 긍지와 존엄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브라지어박사는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고(苦)를 회피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배가하도록 가르쳤다"며 "고(苦)는 삶의 전부가 아니며 일부분일 뿐이며 아픔·즐거움, 삶·죽음 등은 서로 뒤얽혀 있는 것"이라고 그 뜻을 설명한다. Fromm Intl 刊. p.p 208

거리의 제단



국제적인 참여불교단체인 불교평화교우회 상임이사 멜로디 체비스여사(美)는 폭력과 인종차별주의로 신음하는 사회의 고(苦)를 치유하겠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투영한 책 〈거리의 제단〉을 출간했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도시를 떠날 수 없는 현대인들이 서로의 연관성을 깨닫고,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아이, 이웃, 사회, 국가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복과 깨달음의 실체를 계속 묻는 책. Random House 刊. p.p 288

중국지장존순배

말법시대(末法時代)의 유일한 인도자이자 구제자로서, 옛부터 수많은 서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지장보살. 중국 지장보살 신앙에 대한 해설서 〈중국지장존순배〉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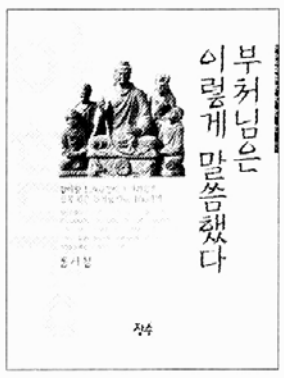
이번 발간된 〈중국지장존순배〉는 30여 사찰을 작가가 직접 순례하며, 사진과 함께 설명을 상세히 담고 있어 중국의 지장보살 신앙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시모야스바 요시하루(下休場 由晴) 著 / 주노서방(朱鷺書房) 刊.

가려뽑은 잡아함 100경의 지혜

홍사성씨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전을 읽는다. 순간 2천6백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부처님이 나타난다. "마음은 나의 밭이고 믿음은 나의 씨앗이다…." 생생한 부처님의 음성. 그 가르침을 받아들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진리이자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마음의 어둠이 벗겨지고 환희심에 사로잡힌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장승 刊)를 펼치는 순간 다가오는 느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잡아함경〉. 이 책은 〈잡아함경〉에서 가려뽑은 1백개의 가르침을 마치 녹음테이프를 듣듯 생생하게 전해준다. 저자인 홍사성씨(불교시대사 주간)가 수년간 〈잡아함경〉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들을 다시 재현해 놓아 경전을 읽는 감동을 높여주고 있다.

잡아함은 장아함, 중아함, 증일아함으로 구성돼 있는 아함부 경전중 하나. 아함부 경전이 비교적 부처님 말씀의 원형에 가깝지만, 이중에서도 잡아함은 더더욱 그렇다. 제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때그때 일어난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절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잡아함의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다. 50권 1,362경의 방대한 분량이기도 하지만 그 크기에 질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신 일상적인 교훈이 있고, 부처님의 인간적인 교화방법이 잘 드러나 있으며, 불자들이 꼭 알아야할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만 1백개를 골라 뽑았다. 그래서 더욱 금쪽같이 느껴진다.

경전 내용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쉽게 윤문해놓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또 각 경전마다 주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달아놓았으며, 경전 내용을 보강한 이야기와 경전에 드러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놓았다. 읽는데만 그치지 않고 깨닫고 실행해보라는 배려에서다.

주제별 정리…생활 적용안내
"생생한 부처님 음성 듣는다"

예를 들면 잡아함 42권 1153경 〈건매경〉의 경우 '바람을 향해 흙을 던지지 말라'는 주제어 아래 부처님을 향해 흙을 던졌으나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쓴 욕쟁이 파라트파차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보면 파라트파차와 같은 사람을 만나 뜻밖의 봉변을 당하기 쉬우나 이때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 대응하면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놓고 있다.

홍사성씨는 "방대한 경전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마치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값 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스트레스 명상 처방으로"

김정호-김선주씨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김정호 교수(덕성여대 심리학)와 김선주씨(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위원)가 공동으로 펴낸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아름다운 세상 刊)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성한 구성물이라는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명상 등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한마디로 고(苦)이며, 이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길을 찾는 것임을 전제한다. 외부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비현실적인 욕망과 비합리적인 사고가 스트레스의 주범이며, 이는 마음을 다스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 책은 설명한다. 그리고 불교의 가치관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내면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제시한다.

스트레스에 따른 여러가지 반응과 이로 인해 생기는 질병, 환경적·개인적 스트레스 관리방안이 폭넓게 설명돼 있다. 값 1만3천원. 한명우 기자

"기와 호흡 다스리면 질병은 없다"

눈길끄는 건강서 3권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강서들은 기와 호흡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임경택교수(목포대 정외과)가 20년간 국선도를 수련한 경험을 토대로 쓴 〈숨쉬는 이야기-단침과 열기〉(명상 刊. 9천5백원)는 단전호흡의 원리를 쉽게 설명한 책. 마음과 병과의 원리, 단전호흡의 원리와 함께 호흡으로 건강을 지키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선도기공시술법〉(하남출판사 刊. 1만2천원)은 기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 저자 김영현씨(선도기공단전호흡협회장) 역시 질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보고 육체적·정신적 조화를 통해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젊은 의사 김윤준씨가 펴낸 〈배짱으로 안되는 건강〉(키출판사 刊. 8천원)은 각 분야 전문의들의 도움을 얻어 각종 암 등 18가지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며, 환경과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故 이기영박사 추모전집 셋째권 '불교개론 강의' 나왔다



원효의 대승불교관 등 불교의 요체 명쾌하게

11월 8일 출판기념 법회

우리나라 불교학의 현대화와 원효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고 이기영 박사 추모전집 세번째 권이 나왔다.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엮은 〈불교개론 강의〉 상·하(한국불교연구원 刊)는 이박사의 투철한 신념이었던 원효의 대승불교관을 그대로 담았으며, 불교의 진리에 대한 요체가 자상하고 명쾌하게 설명돼 있다. 이박사가 한국불교연구원 부설 원효학당에서 강의했던 것을 정리한 것으로, '불연이기영전집'의 제24권.

상권 제1장 '삼승(三乘)과 일승(一乘)'에서는 원효의 불교관이 불교사상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밝혔으며, 제2장 '상보와 귀의'에서는 삼귀의가 삼승과 일승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는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하권의 제3장 '대승불전의 사상'에서는 여래장 사상과 화엄사상 등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들을 발생순서에 따라 묶었다.

불교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해설이나 현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핵심교의(敎義)를 담고 있어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어느정도 불교를 아는 독자들에겐 진리에 대한 불퇴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책이다.

故 이기영 박사 2주기 추모법회 및 이 책의 출판기념회는 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열린다. 값 각권 8천5백원. 한명우 기자

화제의 책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 법륜스님 지음

인류위기 극복의 열쇠는 연기법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인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법륜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은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연기법을 세계관으로 삼는다.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무아·무소유·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또 세상과 자신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고 참된 자기실현과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정토출판, 5천원〉

전탑 | 천득염 지음

한국전탑 특징-중국의 영향 '조명'



탑은 사용한 재료에 따라 목탑, 전탑, 모전석탑, 석탑 등으로 나뉜다. 이중 전탑은 벽돌을 사용해 탑을 축조한 것.

대원사가 계속해 펴내고 있는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220번째 〈전탑〉은 전탑의 기원에서부터 중국 전탑으로부터 받은 영향, 한국 전탑의 특징 등 전탑의 모든 것을 담았다. 안동 신세동 7층전탑 등 현존하는 전탑들을 세부적으로 조명했으며, 전탑과 양식이 비슷한 모전석탑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 컬러 자료사진이 풍부한 것도 이 책의 장점. 〈대원사, 4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3	100문100답(불·보살·신중편)	법 정	동쪽나라
4	산에는 꽃이 피네	고명석·고형렬	대원정사
5	화두, 혜능과 세익스피어	김 용 옥	통나무
6	신도포교지침서(하)	성 일	불광출판부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10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 도 원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전남 사찰 순례' 보성 대원사 펴내

전남 보성군 천봉산 대원사(주지 현장)는 전남 지역의 사찰을 소개한 안내책자 〈전남 사찰 순례〉를 펴냈다.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백련사 선암사 등 20개 사찰을 소개한 이 책자는 사찰소개, 주변관광지, 찾아가는 길을 정리해 놓았다.

또 유명한 문화재 등 사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도 실었으며 일어판도 함께 펴냈다. 비매품. (0694)852-1755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선각 변상판' 집중조명

6일 용인대 전문연 세미나

5각(五角)이라는 형태적인 특징과 함께 열반 순간의 장면을 금동판에 선각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발견된 '나말여초 금동선각열반변상판(金銅線刻涅槃變相板)'을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소장 김춘남)는 6일 오전 10시 용인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반신앙과 그 미술 - 나말여초 금동선각열반변상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회 정기학술발표회를 갖는다.

미리 배포된 자료 '나말여초 금동선각열반변상판 연구'에서 배진달 교수(용인대)는 "선각열반판에 표현된 열반상의 전체적 분위기는 당시의 보편적인 열반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교수는 "초기 우리나라 열반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되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권이 도상해석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밝히고 〈대반열반경〉을 중심으로 선각열반판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열반불상 신앙(김영태 · 동국대) △금동선각열반변상판 소고(이호관 ·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발표된다.

"공생위한 사회복지 절실"

동국대-교토불교대 '자비, 현대사회의 대응' 학술대회

인식전환-봉사자 관리 등 당면과제 인간다운 심성과 덕 자비서 찾아야

불교의 핵심이자 대의(大義)이며 본질인 자비(慈悲). 자비사상이 21세기 인류에 있어서 어떠한 방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 조명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총장 송석구)와 일본 교토불교대(총장 다카하시 코오지)는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에 있어서의 자비-현대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제5회 한 · 일 불교문화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자비의 사회복지적 가치와 실천'에서 김용택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대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불교의 사회복지 사업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타종교와 비교하여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세하고 실직자를 위한 사업은 양호한 수준이나 보육아동 · 청소년 복지는 초보단계, 여성복지는 시작단계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실태는 불교가 필연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회복지 사업을 종헌 · 종법상의 임의규정이 지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교사회복지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써 △불교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불교적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의 전문화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확립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관리 △교단의 지원과 재원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 김교수는 자비의 사회복지적 실천사상과 원리를 생명존중사상과 개인존중의 원리, 대승보살도 정신과 서원(誓願)의 자발성 원리, 기회균등사상의 원리, 연기(緣起)의 상의상관(相依相關)과 사회연대의 원리 등으로 설명하며 "불교의 사회복지활동은 교리 안에서 이미 당위적으로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라는 시간과 공간의 외부적 상황 속에서 한층 더 실제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국대와 일본불교대는 '불교에 있어서의 자비'를 주제로 27일 제5회 한 · 일 불교문화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스즈리가와 신순(硯川眞旬) 교수는 '자비사상의 현대사회적 전개-불교복지의 전개를 중심으로'에서 "자비사상은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세속적 현실 속에서 사회현상의 해석이나 사회적 제문제의 완화 · 해결 등을 위한 필연적 혹은 방편적으로 광범위한 지도성을 발휘해 왔다"며 "다가올 21세기에도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릇됨이 없는 목표와 그 방책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즈리가와 교수는 자비사상의 사회적 실천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기회균등 등 당연시화(Nomaleization) 개념의 구체화 △자립(自立), 공생(共生)을 목표로 하는 복지문화의 건설 △인권의식의 정착화 등을 지적했다.

'21세기와 자비'에서 목정배 교수는 "자비가 박애(博愛)와 인(仁)과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일지라도 '무차별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의 자비 덕목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교수는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나타난 자비의 종류, 즉 중생을 고려함으로써 생기는 자비와 세상의 이치를 고려함으로써 생기는 자비, 궁극의 진리를 고려함으로써 생기는 자비를 설명하며 "21세기의 목전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으로 귀중한 심성, 덕을 자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살사상으로서의 자비(모리야마 세이데쯔 · 森山淸徹) △초기불교교단과 사회의 관계(야마기와 노부유끼 · 山極伸之) △불교승려연금제도의 구성요소(김보현 행정학과) 등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불교적 세계관으로 21세기 문명전환"

동국대 불사연 '21세기 종교는 무엇인가' 세미나

"삶의 근원인 생사매듭 과학기술로 해결 불가능"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문명의 전환은 나와 남, 인간과 자연 및 모든 생명을 둘이 아니라고 보는 불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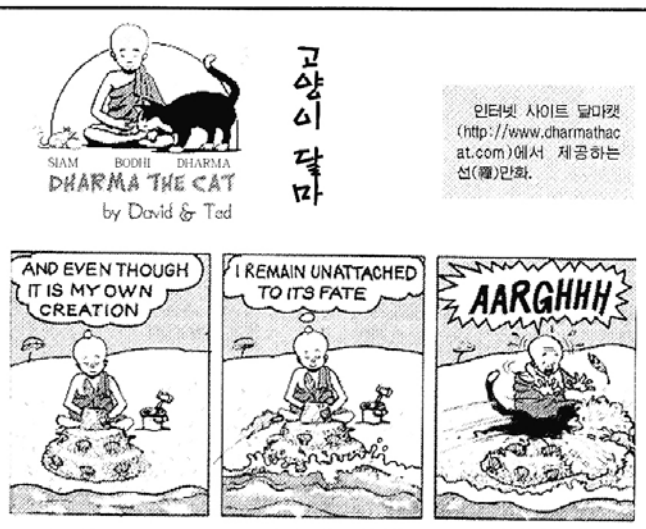
'21세기,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28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윤호진) 개원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강건기 교수(전북대)는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통해 "변화만름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21세기의 문명 앞에서 불교가 해야할 일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세계관을 제시하는 일, 자기회복의 원음(圓音)을 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적 권위는 축소되고, 그 영향력이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21세기에 종교적 요청이 메마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종교의 고유한 영역이 그것으로 대치될 수는 없으며 또한 미래의 세계 혹은 문명의 방향을 종교가 계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가 '으뜸가는(宗) 가르침(敎)'으로써, '으뜸'이라는 말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을 문제삼는 만큼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생사(生死)의 매듭이 과학기술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 강교수는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것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며, 따라서 종교에 대한 갈망은 과학이나 기술의 발달 등 외적인 여건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교수는 "모든 것을 둘로 보는 세계관을 기초로 과학기술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나인 세계관으로의 전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고 제언했다. 또 "과학기술의 눈에 지혜의 눈을 달아주는 일,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보살피는 일 등에 앞장서야 불교는 21세기에도 그 위상을 찾고 존재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해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독에 의해 해를 입는 것과 같다. 마치 불을 땔나무에 첨가해 주는 것 같아서, 그 불꽃은 영구히 꺼지는 일이 없게된다. 어리석은 중생이 소유에 집착함은 이러하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英 아우카나 트러스트

제임스 설립사이트… 회원 32만명

참선센터 · 절 운영 전통수행 강조

1980년대 영국에서 참선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25년간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온 영국인 승려 앨런 제임스가 설립한 사이트이다.

1985년 영국 월셔지역에서 설립된 이 단체는 불교자선단체로 변모하면서 등록 회원만 32만여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불교단체이다. 이 사이트에서 아우카나에서 운영하는 참선센터와 두 곳의 사찰(비구와 비구니 사찰로 구별되어 있음)의 수행관 · 법, 프로그램,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임스스님은 1940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런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으나, 곧 서구과학의 한계를 느끼고 나서 그의 관심은 동양철학과 종교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음의 길과 스승을 찾기 위하여 인도를 두 번 여행하는 과정에서 1968년 리차드 랜달 스님(태국)을 스승으로 맞을 수 있었다. 1971년 제임스스님은 스승인 랜달스님이 입적하자 태국에서 수행을 계속한 후 1980년 영국으로 돌아와 참선센터를 세우고 나서 바로 5년 뒤에 아우나카를 설립했다.

아우카나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행들이 사찰과 참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깨달음을 위해 모든 불교적 의식과 문화적 부착물을 배제하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 서구사회와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처럼 아우카나의 어떤 수행자들은 불교진리에 대한 헌신인 태도가 마침내 깨달음의 길에 이를 것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우카나에서 가르치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방법으로는 철저하게 계 · 정 · 혜 삼학에 근거한 전통적인 불교적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아우카나에서도 다른 승가 공동체처럼 사부대중 중 신도들은 스님들을 철저하게 옹호하며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

아우카나에서의 수행방법은 기본적으로 남방 상좌부 불교계의 전통 참선 수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대사회 · 문화적 조건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새로운 소수 계율도 채택하며 그들의 계율체계에 반영시키고 있다. 아우카나가 다른 불교종파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전통적인 불교계율체계와는 달리 비구 · 비구니가 동일한 계율 항목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아우카나 사이트에서는 참선센터, 사찰 등의 뉴스뿐 아니라 참선으로 표현되는 불교사상에 대한 영국 불교계의 논쟁을 담은 소식지도 열람할 수 있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아우카나의 수행관에 대해 영국 불교계의 전통주의자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다. 전통주의자들은 "제임스스님의 불교사상은 단지 동양의 문화가 서양에 이입되어 서양식으로 변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다소 급진적인 불교사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또 "제임스스님이 강조한 사성제(四聖諦)가 너무나 보수적인 사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http://www.aukana.org.uk/amon.html/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 · 제자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祈禱 기도
어나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국판 / 5,000원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범보시글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한 형 조

무문관 풍경

70

여인의 삼매

* 여러 부처님들이 모이는 곳에 문수(文殊)가 찾아갔다. 다들 제 본래 주처(住處)로 돌아갔는데 한 여인이 있어 세존 옆에서 깊은 삼매(三昧)에 들어 있었다. 문수가 부처님에게 말했다. "어떻게 여인이 부처님 옆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가 문수에게 고했다. "네가 그 여인을 두드려 삼매를 깨운 다음 직접 물어보거라." 문수는 여인 주위를 세 번 돌고 손가락을 튕겨 보았다. (그래도 소식이 없자) 범천(梵天)으로 올라가 신통력을 다해 그녀를 깨워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세존이 말했다. "수백 수천의 문수가 오더라도 이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우진 못하리라. 아래쪽 십이억의 항하사(恒河沙)의 국토를 지난 곳에 명명(冏明)이라는 보살이 있다. 그가 이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울 수 있으리라. 말이 떨어지자 명명대사가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세존께 예배를 올렸다. 세존이 명명에게 명을 내렸다. 명명은 여인 앞으로 나아가 손가락을 한번 튕겼다. 이에 여인이 삼매로부터 깨어나왔다.



그림 · 문병성

* 나 혜개가 말한다. "석가 그 늙은이가 일장의 촌극을 연출했네. 시원찮은 연극을. 자, 어디 말해보라. 문수는 일곱 부처님의 스승인데 어째서 여인의 삼매를 깨우지 못했고, 명명은 초지(初地)의 보살인데 어째서 그럴 수 있었던가. 여기서 절실히 보는 바가 있다면 업식(業識)이 다망(多忙)한 그대로 거대한 삼매이다."

* 송하여 가로되, 깨우든 못 깨우든 너와 나는 자유를 얻는다. 귀신머리와 도깨비탈이니, 실패도 그대로 풍류인 것.

女子出定:

世尊, 昔因文殊至諸佛集處, 値諸佛各還本處, 惟有一女人, 近彼佛坐, 入於三昧, 文殊乃白佛, 云何女人得近佛坐, 而我不得. 佛告文殊, 汝但覺此女, 令從三昧起, 汝自問之. 文殊 女人三 , 鳴指一下, 乃托至梵天, 盡其神力而不能出. 世尊云, 假使百千文殊, 亦出此女人定不得. 下方過一十二億河沙國土, 有冏明菩薩, 能出此女人定. 須臾冏明大士, 從地湧出, 禮拜世尊, 世尊勅冏明, 却至女人前, 鳴指一下. 女人於是, 從定而出. 冏明曰, 釋迦老子做者一場雜劇, 不通小小, 且道, 文殊是七佛之師, 因甚出女人定不得. 冏明初地菩薩, 爲甚却出得. 若向者裏見得親切, 業識忙忙那迦大定. 頌曰, 出得出不得, 渠 得自由. 神頭幷鬼面, 敗闕當風流.

이 화두는 〈제불요집경(諸佛要集經)〉에 나오는 설화를 차용했다. 내용은 경전이 훨씬 상세하고 구성도 복잡하며 상상력도 풍부하다.

어째서 지혜 제일이라는 문수가 아녀자 하나에 쩔쩔매고 있는가. 자만한 탓이다. 일곱 부처의 스승이며 부처님의 정법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아만(我慢)이 그를 눈멀게 한 것이다. 부처님은 문수의 뿌리깊은 무의식적 편견과 고착을 떨쳐주려 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등장시켰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의(離意)이다. "뜻을 여의었다!" 나와 남을 가르고, 못난 것과 잘난 것을 따지며, 선과 악의 질곡에서 신음하는 사바를 떠나라는 간곡한 뜻이 담겨 있다.

이 여인을 삼매에서 깨우는 사람이 명명(冏明)대사인 것 또한 예사롭지 않다. 지혜로는 그곳에 닿을 수 없다. 지혜를 떠나 혼돈의 무분별 속에서 진리는 베일을 벗는다. 그것이 진짜 지혜이다. 장자(莊子)에도 그런 우화가 있다. 우물 속에 바늘 하나가 빠졌다. 장안의 눈밝다는 사람을 모두 초대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장님 하나가 너무도 쉽게 바늘을 찾아냈다. 장자는 분명 삶의 역설적 비밀 한 자락을 읽고 있었다.

불교는 다양한 물굽이를 거쳐 왔다.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중심교설이 있다면 "분별(分別 vikalpa)을 떠나라"이다. 선 또한 그 교설의 변용 혹은 확장이다. 3조 승찬(僧璨)의 〈신심명(信心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지극한 도(道)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다만 이것 저것을 가리고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라. 분별은 대개 눈먼 욕망의 결과이다. 그 가운데 성적 욕망은 차라리 접기 쉽다. 육신의 욕망보다는 마음의 욕구가 더 다스리기 어렵다. 지배하려는 충동, 인정받으려는 욕구, 즉 니체가 말한 권력에의 의지가 그것이다. 문수는 여기에 저도 모르게 휘둘린 것이다. 무명의 뿌리는 그만큼 깊고 끈질기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종단이 또 술렁이고 있다. 벌써부터 불미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불자들의 우려와 탄식은 또 그만큼 깊어간다. 초발심을 돌이켜 룰을 지킬 것을 모든 불자들과 함께 소망한다.

욕망의 흔적을 지우면 혜개의 말마따나 삶의 일상들이 그대로 용궁의 삼매인 것을. 모든 것이 '나 밖에서' 일어나는 도깨비장난이니 이 게임에는 진 사람도 없고 이긴 사람도 없다. 문수도 없고 여인도 없다. 꼭두각시들의 가면극에 모든 것이 풍류라, 이 아니 좋을소냐.

"지고 넘어진 것이 곧 풍류(敗闕當風流)"라는 말을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달아주고 싶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지혜 제일 문수 왜 쩔쩔 맸을까

분별 · 욕망 지우면 일상이 그대로 삼매

욕망 반대편에 마음을 두라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0

오래 전 캘리포니아 선원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그곳에서 명상 강좌를 듣고 있던 사람들과 세간의 삶과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항상 두려움을 느낀다", "승진을 위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일한다", "일하면서 기으름을 피우거나 화를 낸다"고 말했다.

명상을 배우고 싶어 이곳에 온 사람들의 이같은 심경 토로는 바로 우리의 주변에 기생하면서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재가불자들이 명상을 방편으로 깨달음 혹은 행복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수행의 장애 ①

명상수행을 하는 우리가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장애물들은 정신적 수행의 여정에 당연히 놓여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게 중요하다.

이 장애물들은 항상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위에서 미약한 혹은 강력한 존재로 나타나 우리와 맞선다. 우리가 성공적인 명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떤 독창적인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장애물로 인해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실비아 부르스타인(Sylvia Boorstein)이 〈심리학회지〉에 게재한 '결혼의 다섯가지 장애물'이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공교롭게도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꼽고 있는 욕망·분노·불안·게으름·졸음·불신 등을 장애물로 설명했다. 또 부처님이 팔정도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이 부르스타인도 이들 요소들의 대립과 조화로 결혼의 과정을 설명했다.

> **더 좋은 것 바랄 때**
> **마음을 닫을 때**
> **욕망 · 불신 · 분노 생겨**

욕망이란 다른 것 혹은 더 좋은 것에 대한 바람이다. 분노는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생긴다. 모든 낭패감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졸음과 게으름은 세 번째 장애물이다. 이것은 수행자가 유·무정물과의 관계에서 자기 만족을 얻었을 때 나타난다. 불안은 그 반대의 경우다. 마지막으로 불신이 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닫고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할 때 생긴다. 불신에 찬 사람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이같은 삶이 바른 길입니까?" 등과 같은 말을 자주한다.

이같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찬차(Achaan Chaa)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교리 상으로 팔정도는 바른 이해, 바른 말, 바른 집중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팔정도는 바로 우리의 내면 즉,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두 개의 콧구멍, 한 개의 혀와 몸에 담겨있다. 이같은 여덟 개의 문을 통해 팔정도에 이른 우리는 마음을 통해 팔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의 변화를 바로 보고 말할 수만 있다면,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애물들 중에서 욕망이 가장 난해한 문제이다. 영국의 저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나는 모든 것과 맞설 수 있지만 오직 유혹만은 예외이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각양 각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바람', 우리에게서 이것은 저버리기 가장 어려운 습관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또 바라며, '바람'의 대상은 끝없이 변화한다. 욕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아찬차스님은 "욕망은 역겨운 것을 관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 육체적 외형을 보고 일으키는 집착은 하나의 극단이니 미음을 반대편어 두도록 해야 한다. 육체를 시체로 여기면서 썩는 과정을 관하거나 육체의 각 부분들, 즉 폐 지라 비계 배설물 등으로 관한다. 욕망이 일어날 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몸의 더러운 면을 떠올려보면 욕망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9

불교와 수학 74

전체와 부분

김 용 운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들을 수 있다. 그 환자는 심각한 고민으로 그 병에 걸린 것인데 의사는 마음과 육신의 관계를 잘 관찰하여 환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고 치료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한국은 심각한 한국병, 곧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힘써 그것을 일소할 것을 다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공무원을 적발하여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한국의 원형(마음)의 차원까지도 관찰하여 한국병의 원인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며 전체적인 문제로 고찰해 가야 한다.

시대는 관점의 변환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요청하고 있다. 쿤(T. Khun)이 1962년에 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paradigm)이란 말은 과학관이나 과학의 방법론의 변혁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쉽게 말해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꾸는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천문관찰을 할 때는 망원경을 쓰고, 세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사용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현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인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인과론, 또는 요소환원주의적인 안경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복잡한 것을 볼 때는 새로운 카오스(넓게는 복잡성 과학)의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학적으로는 카오스적, 또는 복잡성적인 사고이자 인간에 관한 것은 불교적 사고의 전환이다.

> **"전체는 부분의 종합 아니다"**
> **부분 즉 전체, 전체 즉 부분이니**
> **민족원형 알아야 한국병 치유**

이것과 반대되는 '요소환원주의'는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기계의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 지를 찾아내 부품을 바꾸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인간이나 사회를 관찰할 때는 그럴 수가 없으며 전체를 하나로 관찰해야 한다. 컴퓨터가 출현하기 전에는 '요소환원주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으므로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예 판단을 중지하거나 접근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의 능력은 엄청난 요소들의 관계를 파헤치게 한 것이다.

또한 이 생각은 레이저의 개발로 가능해진 새로운 사진기술 홀로그래피(holography)의 원리와도 같다. 그것에는 입체적인 상(像)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부만으로도 전체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구조는 최근의 대뇌생리학에서 주장하는 뇌의 구조와도 같다. 종전의 뇌에 관한 학설은 어느 부분이 기억, 이 부분이 운동신경, … 이라는 식으로 뇌전체가 각 부위로 나뉘어져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해당 부위가 손상되어도 그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음이 실증되었다. 뇌구조가 홀로그래피와 같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기로는 나뭇가지 하나의 접목으로 나무를 재생시킬 수 있다. 요즘은 인간을 세포 하나로 복제한다는 생명공학의 이론도 있다. 또한 생명조류로 유명한 러브록(Lovelock)은 지구, 우주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과학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이의 성질을 종합하면 전체구조를 알 수 있다는 요소환원주의 만능의 미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 같다. 요즘들어 차츰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전체는 부분의 종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사람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대우주와 대응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말하자면 인간의 세포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하늘의 별이라는 발상인데 인간을 대우주에 대응시킨 고대 인도사상이 복잡성 과학의 이름으로 재생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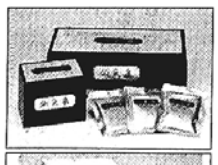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그 생각을 다듬어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과도 같다)'을 기본철학으로 삼았다. 불교는 주로 인간이나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간의 마음, 그리고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관심을 갖는다. 요컨대 불교적인 입장에서 대상을 관찰할 때의 안경은 복잡성 과학의 안경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한국병은 민족차원의 집단 구의식에까지 내려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과학이 컴퓨터를 비롯한 최근의 과학이기를 사용하면서도 겨우 손에 넣은 안경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신비의 약용버섯 아가리쿠스버섯

⊙한국에서는 1996년말 농촌진흥청에서 다년간 연구하여 인공재배에 성공 농가에 보급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아가리쿠스에서 액기스화하여 미국, 일본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및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분검사 결과 아주 우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강작용, 세포활성화작용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고 특히 암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
순환기계통 :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협심증등
소화기계통 : B형간염, 간경변, 만성위염, 변비등
뇌신경대사 : 당뇨병, 관절염등
호흡기계통 : 만성기관지염등
생식기계통 : 생리불순, 갱년기장애, 부인병, 유방염등



仙氣泉(골드)
· 아가리쿠스 추출액 100% (고형분 5%이상)
· 대용량 : 100ml × 30포
· 가격 : ₩660,000



아가리쿠스 건버섯
· 신토불이 한국산
· 용량 : 300g
· 가격 : ₩250,000

주식회사 아가리쿠스
강남구 역삼동 668-5번지
· 구입문의 · (代)02)564-6464

개정3판, 제주대학교 안창범 교수 지음
"우리민족의 고유사상"

♠ 구입안내



● 이 책의 주요내용 :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립된 天一 · 地一 · 人一 三神一體의 天道로서 동양사상과 동양문화의 원류임을 본서는 증명하고 있음. 그래서 모든 사상이 우리민족의 신선도에서 갈려나갔으며, 석가세존의 탄생지이시고 고행성도지인 雪山, 유교의 발상지인 崑崙山, 도교의 발상지인 三神山, 그리고 동학의 발상지인 龍潭이 모두 우리나라의 백두산(천지 용왕담)임을 본서는 증명하고 있음. 곧 석가세존은 한국 사람, 석가세존의 초전법륜지인 녹야원은 제주도 한라산(영실), 대승경은 원래 신선도의 경전, 대승경의 범서는 우리민족의 언어와 문자, 불상의 금관은 신선도의 상징, 대웅전 · 불탑 · 범종 · 석등은 원래 우리민족의 소산으로서 신선도의 유풍임을 본서는 증명하고 있음. 종전의 학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임. 불교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하고, 민족정기를 진작코자 노력하시는 분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임을 밝혀둡니다.

구입요령

이책(가로 15cm×세로 22.5cm, 칼라사진 10매, 350쪽)은 극히 새로운 연구물로서 정가는 1만5천원, 10권 이상 주문할 때 40% 할인(권당 9천원)함.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저자의 자택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음. 이곳으로 주문 바람.

■ 공급처 : 저자의 자택.
제주시 일도이동 1045의 8.
■ 전 화 : (064)752-4906

※책값은 농협(계좌번호 : 953-02-198788, 예금주 안 창 범)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언 제 : 불기 2542년 11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 어디서 : 충북 불교 자원봉사 교육센타
◆ 무엇을 : 제6차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실시
◆ 어떻게 :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나눔실천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 전문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에 관심 있으신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만 고귀한 삶을 투자한다면 그 생애가 얼마나 지루하고 무의미 하겠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초연히 보살행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자비나눔의 길 함께 찾아 나서 보시지 않으실런지요?

자비심은 청정한 물이니, 모든번뇌의 때 씻어주고
자비심은 타오르는 불꽃이니, 삿된 견해와 탐욕을 태우며
자비심은 밝은 태양 빛이니,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자비심은 인자하신 어머님이니, 모든 중생을 양육 하나니라
(강지수 글)

그대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 합니다.

문의처 0431)254-2258, 254-1457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한옥마을
충북 불교자원봉사 교육센타(지장정사)

충북자원봉사교육센타 원장 여현정합장
상담하세요.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 · 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뭇생명에 자비를"

救世-救難의 상징

육환장



◇연화좌대 위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광배가 큼직하게 조각된 육환장.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에 나타난 육환장. 일본 덕천미술관 소장.



◇연꽃모양과 관세음보살의 약병, 여의보주 등이 조각된 육환장.



◇쌍용과 오륜타피, 연꽃모양이 중심을 이룬 육환장.

깊은 병이 든 왕과 왕비의 약을 구하러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바리공주. 공주는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황금지팡이 하나를 받는데, 이 지팡이를 짚고 가니 험로는 탄탄대로가 되고 언덕은 굉지가 되고, 바다는 못이 되었다. 강물위로 던져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 건너기도 했다. 바리공주의 효성에 감동한 아미타부처님이 준 선물 황금지팡이는 바로 인간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걷어내는 신통력의 상징이었다.

'바리공주 신화' 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많은 전설과 설화에는 지팡이가 등장하고 그때마다 지팡이는 구세(救世)와 구난(救難)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스님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라 문무왕때 경흥법사를 병마로부터 구해준 비구니 스님은 지팡이 하나를 새로 조성한 불화 십일면원통상(十一面圓通像) 앞에 두고 갔다. 이후에도 경흥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비구니스님으로부터 여러번 깨우침을 받는데 그 비구니스님이 바로 문수보살의 화현이었다.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육환장(六環杖)은 구세구난 뿐 아니라 뭇 생명에 대한 자비와 법을 상징하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여섯개의 고리를 달았다고 해서 육환장이라 불리지만 바로 그 고리에서 육환장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섯개의 고리는 흔들리며 걸음을 옮길때마다 철그렁철그렁 소리를 냄으로 길위의 벌레들이 몸을 피해 살생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소리는 한순간도 수행자의 본분사를 잊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도 한다. 운수행(雲水行)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찾아 떠도는 선승들에게 있어 육환장은 구도의 법구이기도 한 것이다.

허응당 보우스님은 '과천 가는 길'이란 시에서 "이 좋은 봄날은 저물어 가는데/외로운 지팡이 하나 어느 산으로 가는가"라고 읊어 자신과 지팡이를 둘이 아니게 여기기도 했다. 육환장이 수행승의 또다른 표현인 것이다.

육환장은 아무나 들지 않고 도력이 높은 대덕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행의 한 경지를 내보이는 법의 상징이기도 했다. 불화에서 뿐아니라 조형물로 조성되는 지장보살은 긴 육환장을 소지한 것으로 표현된다. 이 역시 지옥중생 모두의 성불을 염원하는 지장보살의 대자비심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요즘 육환장은 그 형태에서나 쓰임새 면에서 본래의 뜻을 많이 잃어 버렸다. 자동차가 이동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키보다 큰 육환장을 들고 다니기에 번거로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육환장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걸음을 걸을때 몸을 의지 한다는 육환장의 일차적 기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벼워야 한다. 긴 막대와 머리부분의 장엄물을 합해서 들고 다니기에 적당한 무게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휴대의 간편성과 가벼움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다 보니 길이가 짧아지고 장엄물이 왜소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작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이는 지팡이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육환장에 대한 현실적 변명일 뿐이다.

육도윤회 뜻하는 여섯고리
걸음 옮길때마다 짤랑소리
벌레들 몸을 피하게 해
수행경지 나타내는 성물

학림스님 108개 만들어 보급

고려불화 속에 나타나는 육환장을 기본틀로 무게가 가볍고 장엄물이 웅장한 육환장 108개가 만들어 지고 있다.

작년 불교미술전람회에 33개의 주장지 세트를 출품해 입선했던 학림스님(예천 법화암주지)이 3년간 기울인 노력의 결실로 육환장 108개를 완성하기에 이른 것. 학림스님이 고려불화집에 나타나는 지장보살도의 육환장을 모본으로 시작한 육환장 제작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역시 불교의 가르침을 폭넓게 담으면서 장엄미를 살려 내는 것이었다. 청동이나 황동 주물로 장엄물을 만들 경우 소지하는 노스님들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스님은 방짜기법으로 황동판 장엄물을 만드는데 착안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오륜타파, 용, 연꽃문양 등의 조형물을 방짜기법으로 만들어 내고 주변의 테두리도 속이 빈 황동관을 사용해 장엄물의 무게를 1kg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 스님은 장엄물에 불교의 가르침을 담아내는데 몰두했다. 육도 윤회를 뜻하는 여섯개의 고리는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해와달, 부처님과 광배, 오륜타파, 연꽃모양, 사성제 팔정도를 상징하는 테두리의 마디, 관음보살의 상징인 약병 등을 응용해 4가지 모델의 장엄물을 만드는데 꼬박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장엄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중은 나무를 고르는 것과 나무를 건조시키는 일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소백산 깊은 골짜기를 헤매다니며 모양이 아름답고 단단한 나무를 채취했다. 물론 살아 있는 나무를 통째로 베기보다는 곁가지나 고사직전의 나무를 선택했다.

채취된 나무는 일단 겉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으로 켜고 1년 이상을 건조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무게가 최대한 가벼워 지도록 하기 위해 물에 푹 담궈두는 비법도 알게 됐다. 곧게 켜진 나무의 겉질을 벗기고 다시 1년여 동안을 건조시켜 두틀리거나 금이 가지 않은 나무를 엄선해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양을 살리며 사포질과 생옻칠을 일곱번이나 반복해 완성품을 만들게 됐다.

"일반적인 지팡이와는 달리 육환장은 불교적인 의미가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성물입니다. 요즘 주장자의 장엄물이 외국에서 수입될 정도로 국내에서는 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불교의 전통을 살리자는 뜻에서 육환장 제작을 시작했는데 3년간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여러 가지의 비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육환장이 법의 상징이란 점에서 너무 남용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라 판단되어 108개만 제작해 보급하고 더 이상은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육환장을 '법계를 떠받치는 기둥'이라 표현하는 학림스님은 서울칠보사 조실 석주스님등 원로 스님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육환장의 형태와 크기 등에 대해 조언을 들으며 보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취재수첩 육환장-외출용, 주장자-설법용

육환장과 주장자는 어떻게 다른가. 크게 석장(錫杖)이란 의미에 포함되는 지팡이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육환장은 외출용으로 주장자는 실내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즉 육환장은 길을 걸을때 몸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주장자는 법상에 올라 법을 설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요즘도 큰스님들이 상당법어나 일반 법회에서 설법을 할 때 주장자를 뭉뚱 치거나 높이 들어 보이는 등 법을 전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가(禪家)에서는 깨침을 독려하기 위해 주장자로 제자를 때리기도 하고 말없이 들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역시 깨달음의 경지를 일깨우는 말없는 경지(言語道斷)의 표시다.

육환장과 주장자를 포함하는 의미의 이름이 석장인데 석장이란 말은 범어 캐카라(khakkhara)를 극기라(隙棄羅)로 음역하고 유성장(有聲杖) 성장(聲杖) 명장(鳴杖) 지장(智杖) 덕장(德杖)등으로 번역한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소리가 나는 지팡이, 스스로 울리는 지팡이, 지혜와 덕의 지팡이 등 해석 그 자체가 육환장의 뜻을 전하고 있다. 육환장은 비구가 필수적으로 지니는 18물(物)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육환장과 주장자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학림스님.

동서양 모두 어진 동물로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18 사슴



◇하동 쌍계사 팔상불회도(八相佛會圖) '녹원전법상(부분)' 1728년.

십장생 중의 하나인 사슴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어질고 거룩하며 영생력을 갖고 있는 동물로 숭상되고 있다.

부처님 전생이야기에 사슴의 왕으로 태어난 보살이 새끼를 가진 암사슴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모든 동물을 구한 이야기가 있다. 또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첫 설법을 한 곳이 '녹야원(鹿野苑)'이다.

성현의 〈용재총화〉를 보면 고려 환암국사가 13살때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갔다가 달아나던 어미사슴이 새끼사슴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쳐 스님이 된 이야기가 나온다.

중세 기독교 교회 미술에서 사슴은 흔히 세례받는 물가에 등장한다. 사슴이 뱀을 물리치거나 해를 입지 않고 사악한 뱀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큰 이유는 사슴을 그리스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때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끌어주는 사슴 '루돌프'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장 유명한 사슴이다.

학림 〈예천 법화암 주지〉



◇휠튼의 화가. '성(聖) 짐과 암사슴' 1500년경. 영국 런던 국립박물관.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6)
(佛言)惡人聞善 故來攪亂者
(불언)악인문선 고래교란자
汝自禁息 當無瞋責
여자금식 당무진책
彼來惡者 而自惡之
피래악자 이자악지

'악한 사람이 착한 이를 찾아와 고의로 어지럽게 하더라도 그대는 스스로 말려들지 말고 성내거나 꾸짖으려 하지 말라.
그는 스스로 악행을 했을 뿐이다.'

(7)
(佛言)有人聞吾守道 行大仁慈
(불언)유인문오수도 행대인자
故致罵佛 佛默不對 罵止
고치매불 불묵부대 매지
問曰 子以禮從人 其人不納 禮歸子乎
문왈 자이예종인 기인불납 예귀자호
對曰 歸矣
대왈 귀의
(佛言)今子罵我 我今不納 子自持禍歸
(불언)금자매아 아금불납 자자지화귀

'악한 자가 어진이를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하늘에 닿지 않고 제얼굴에 떨어지는 것과 같고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면 먼지가 상대에 이르지 않고 제게 되돌아오는 것과 같다.
현인은 훼방할 수 없으니 화는 반드시 해하려는 자를 멸한다.'

(9)
(佛言)博聞愛道 道必難會
(불언)박문애도 도필난회
守志奉道 其道甚大
수지봉도 기도심대

'널리 듣는 것만으로 도를 좋아해서는 필시 깨우치기가 어렵다.
뜻을 굳게 하여 도를 받들어야 깨우침이 매우 크리라.'

(10)
(佛言)觀人施道 助之歡喜 得福甚大
(불언)도인시도 조지환희 득복심대
沙門問曰 此福盡乎
사문문왈 차복진호
(佛言)譬如 一炬之火
(불언)비여 일거지화
數千百人 各以炬來 分取熟食除冥
수천백인 각이거래 분취숙식제명
此炬如故 福亦如之
차거여고 복역여지

'남이 도를 펼치는 걸 보고 이를 도와 기꺼워하면 그 복덕이 매우 크다.'
어떤 사문이 물었다. '이 복에 다함이 있습니까?'
'비유하자면 하나의 횃불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횃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나누어 음식을 끓이고 어둠을 밝혀도 그 횃불은 그대로 있을 터이니 복도 또한 그와같다.'

龍眼

"악한 사람이 고의로 어지럽게 해도 그대는 성내거나 꾸짖으려 말라"

(8)
(佛言)惡人害賢者 猶仰天而唾
子身矣
자신의
猶嚮應聲影之隨形 終無免離 愼勿爲
유향응성영지수형 종무면리 신물위
惡
악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켜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고의로 나를 매도했지만 내가 잠자코 대꾸하지 않았더니 욕하기를 그쳤다.'
내가 제자에게 물었다. '네가 어떤 사람에게 예물을 주었으나 그가 받지 않는 다면 그 예물은 네게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제자가 '되돌아 옵니다' 했다.
'그렇다. 이제 네가 나를 욕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너 자신에게 되돌아 간다.
마치 메아리는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는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 끝내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삼가 악을 짓지 말라.'

큰스님 수행한담

"비교하는 분별심서

혜운스님 〈여여선원장〉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동아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이 폭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서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사를 갔지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님이 하나뿐인 나를 키우셨는데 일타스님의 막내외삼촌인 진우스님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분 덕택으로 동학사의 남무불스님한테 한학을 배우러 다니게 됐는데 어린 마음에 스님들의 생활이 참 근사해 보였습니다. 결국 47년, 해인사로 가서 향곡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당시에는 입산하러 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던지 "저기 미친놈 또 하나왔다"면서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하고 장작불 때는 부목 3년에 반찬만드는 채공과 공양주시절을 포함, 10년은 족히 걸려야 정식으로 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처럼 몇 개월만에 중이 된다는 것을 상상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담금질과 망치질을 오래할수록 견고한 칼이 만들어지듯 오래도록 단련시킨 수행자는 엇길로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행자시절에 공양주와 채공소임은 거의 내 몫이었는데, 어느날 문득

"공양주노릇 오래 하면 복덕이야 많이 짓겠지만 그것도 업에 지나지 않을뿐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지 않은가? 머리깎은 이유가 무엇인가, 화두를 챙겨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조바심을 내던 어느날 한 노장스님이 "공양주만 하면 복덩이밖에 안돼. 밥 지으면서도 화두를 챙겨야한다"는 말씀에 일하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동중정(動中靜)하고 일동일정(一動一靜)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들어야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지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맡은 일속에서 화두를 들수 있습니다. 꼭 좌선을 해야만 도를 깨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좌선을 하면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루 24시간이 다 참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하루종일 앉아 있을수도 없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바로 생활속에서 선을 해야 합니다.

참선은 묘함이 성성(惺惺)한데 있으니 몽롱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며 화두가 끊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틈새에도 갖은 망념이 침입해오니 빽빽하게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화두를 의식적으로 들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화두가 현전해지는데 이때는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끊어짐이 없게 하면 멀지않아 현묘지도(賢妙之道)를 보게 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 혈기가 고르지 못하는등 병이 생기니 바른 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은사인 향곡스님은 경전은 가르쳐주시지 않고 선방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대학이나 강원에 보내 글공부를 시켜놓으면 주지같은 행정승을 하다가 환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글공부시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요. 그때는 스님들 스스로도 선방에서 참선해서 견성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으며 주지직 같은 사판은 서로 맡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맡은 주지직도 임기만료전에 내버리고 떠나는게 유행이었지요.

약력
- 1931년 충남 대전 生
- 47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향곡스님을 은사로 득도
- 49년 범어사 금어선원 안거이래 12하안거 성만
- 61년 동화사 염불암 주지
- 81년 여여선원 선원장에 부임
- 조계종 제7대 중앙종회 의원,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고문역임
- 96년 선학원 이사
- 現 대구 여여선원에 주석

"현대인들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꼭 좌선해야 득도한다 생각말고 각자 맡은 일 속에서 화두드세요"

요즘은 어찌된 게 한 번 말으면 자꾸 더하려고 해요. 해인사주지로 발령받은 문정령스님같은 분은 밤중에 걸망을 지고 달아나기까지 했어요. 주지 안하려고 말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선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들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까닭은 무릇 무상정등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의 정리(情理)나 세상의 명리에 끄달리지 않고 여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속을 등지는 것이지요. 출가사문이 재산을 축적하고 명리를 좇아서야 차라리 속인으로 남아있음만 못합니다. 그러한 일을 볼 때마다 같은 승려로서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지요.

다산선생의 글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인불경심상정(與人不競心常靜) 위공무사몽역한(爲公無私夢亦閑) 사람과 더불어 경쟁하지 아니하니 마음이 항상 고요하네. 공을 위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니 꿈속에서도 또한 한가롭네"

참으로 와 닿는 바가 있어 늘 곁에 적어두고 경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따지는 분별심에서 갖은 번뇌가 싹트기 시작하고 도에서 어긋나게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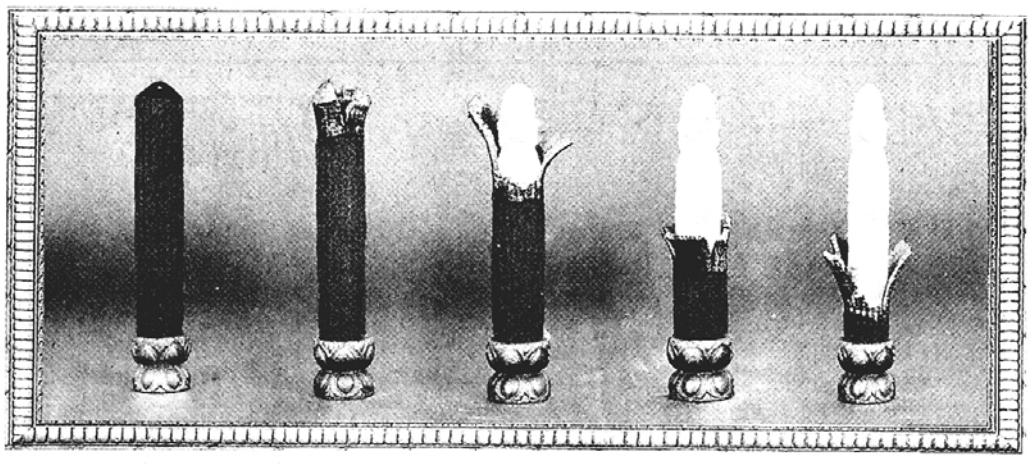
은사스님은 피부가 검고 체격은 우락부락해서 처음 대했을 때는 다소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더욱이 스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하셔서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님은 36세되던 해 문경 봉암사에서 둘도 없는 도반인 성철스님을 비롯하여 청담 보문 자운 스님 등과 청규를 제정하고 용맹정진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성철스님이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산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는 옛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막혀 침식도 잊고 일념삼매에 들어가니 어느날 대문앞을 지나다가 홀연히 당신의 양손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확철대오하셨다고 합니다.

확철대오한 스님은 천하의 총림에서 사자후를 하셨는데, 그 기봉이 험준하여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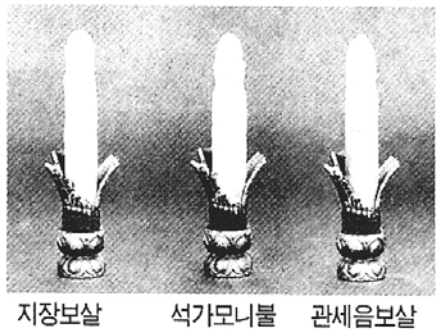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한 후에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내부적으로는 타고 남은 재가 흰색법상의 부처님 형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 뜻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 즉 몸을 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법리와 상통합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석가탄신일, 백중, 법회 및 2·3종 기념행사와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향입니다.
향이 타는 도중에 부처님의 법상이 출현하고 부지불식중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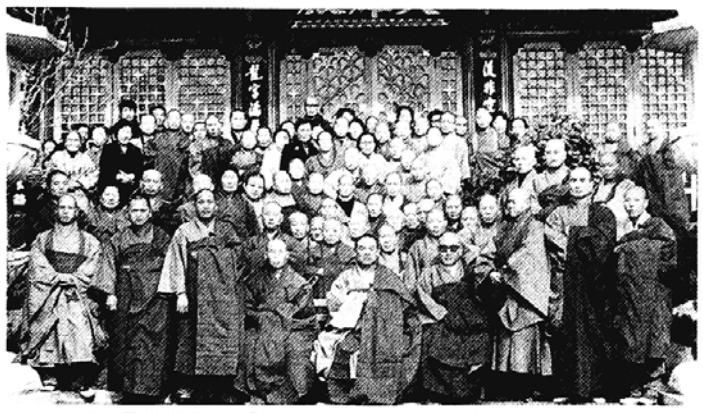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총판 및 대리점문의
Tel : 051) 466-3731~2 Fax : 051) 466-3733

卍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卍

큰스님 수행한담

온갖 번뇌 생겨요”

“담금질 오래한 칼 견고하듯 오래 단련시킨 수행자 엇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70년대 중반 부산 묘관음사에서 운봉스님의 추모재를 지내고.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혜운스님, 그 옆부터 월산·향곡·활안·진제 스님.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고 거두고 놓음을 자유자재로 하셨습니다.

6·25전쟁이 나던 해 겨울 천성산 내원사에 있었고, 선암사와 예산 수덕사 선방 그리고 월내 관음사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일복이 많아서인지 공부할 여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중스님들이 공양주와 채공을 자꾸 맡겨요. 요즘은 여신도가 채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에는 공부하는 절에는 여자들이 얼씬도 못했기에 스님들이 일을 다 했습니다.

부산 선암사에 있을 때입니다. 화두를 얻으러 향곡스님이 계시는 조실방으로 갈려고 해도 용기가 나질 않아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화두를 얻으러가는데 어찌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스님은 황벽스님과 임제스님간에 벌어진 선문답을 통해 화두를 내려주셨습니다.

황벽스님 문하에 1천2백여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목주스님과 임제스님이 계셨습니다. 목주스님은 임제스님이 하도 천진해보여 접근을 했습니다.

“스님, 여기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소?”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목주스님이 다시 “황벽스님을 친견하셨소?”라고 묻자 임제스님은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임제스님은 물어볼 만한 체험이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조실방을 찾지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주스님은 일러준대로 여쭤보라고 하면서 ‘여하시불법적적대의(如何是佛法的的大意)’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임제스님이 황벽스님을 친견하자마자 ‘여하시불법적적대의?’를 묻자 황벽스님은 다짜고짜 주장자로 임제스님을 사정없이 두들겨패며 내 쫓아버렸습니다. 임제스님은 그런 식으로 3일간을 두들겨 맞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에게 내려진 화두였습니다. 불법의 적적대의를 물었는데 왜 두들겨 팼는지를 깨닫거든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몇번 찾아 뵙고 일러봤지만 번번이 제지를 당했습니다. 스님은 가끔 공부가 어찌 되었는지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수좌들은 주먹으로 쥐어박기도 하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수좌들 한테는 한밤중에 슬며시 찾아와서 지켜보곤 하셨습니다. 화두를 타파해야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하면 단박에 깨달아야지, 생각하고 따지면 벌써 본질에서 만리나 멀어지고 천가닥이나 어긋나고 맙니다. 생사심(生死心)을 완전히 타파하면 무수한 세월동안의 근본 무명업식과 번뇌가 일순간에 녹아 없어져 저절로 밝아집니다. 그때에는 보리니 부처니 법이니 하는 소견도 사라져 여여적멸해지니 비로소 자유자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스님은 다섯가지의 소중한 삼매법문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간의 경계를 꽉 다잡아 터럭만큼도 새어나가는 것이 없게함으로써 온 세상사람들이 허를 댈 수 없도록 하는것이니 이것은 ‘바른 명령’(正令)입니다. 둘째는 정수리에서 방광하여 천하를 두루 비추고 모든 것을 환하게 아는 것이니 이것은 ‘금강눈동자(金剛眼睛)’입니다. 셋째는 쇠를 다루어 금을 만들고 금을 다루어 쇠를 만들며 갑자기 잡았다가 갑자기 놓나니 이것은 ‘주장자’입니다.

넷째는 천하사람들의 혀끝을 놀리지 못하게 하고 숨도 쉬지 못하게 한다음 거꾸로 삼천리를 물러가는 것이니 ‘도량(氣宇)’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문수보현보살과 천하선지식이 이 세상에 모두 함께 출현하시어 대광명을 발하고 한량없는 삼매와 법문과 방편과 신통으로 대법륜을 굴려 한순간에 무량중생을 제도한다 하여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아보지도 않는 것이니 이것은 ‘특별수용경지(封疆處)’입니다.

이상의 삼매 하나하나를 모두 밝게 증득하여 어디에서나 자유자재하여야 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지요.

“승가의 자리싸움 출가 본뜻 어기는 일 스님들이 속인의 행태 좇아 가서야…”

범어사 원응료, 도리사 태조선원, 오대산 상원사에서도 공부하다 61년 10월에 동화사 염불암에 와서 절도 새로 짓고 한 2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해인사 백련암에 있을때는 아직 20세가 되기 전이었는데 공양주 해가면서 용맹정진한답시고 백일기도 1천일기도 등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장삼을 입은 채로 잠시 쉰다고 드러누웠는데 깨어보니 어느새 뒷방에 와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진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진도 역시 젊을 때 해야 그 기상이 씩씩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젊으니까 나중에 나이들어 여유생기면 수행해야지, 또는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해야 하니까 나이들어 열심히 수행하자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젊을 때 그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수행하면 더 잘 이룰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수행이란 미루면 안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의 행태를 속인들이 본받고 살았는데 요즈음에는 스님들이 속인들의 행태를 좇아가고 있어요. 선거하는 모습도 그렇고 한번 당선되면 내놓지 않으려는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은사스님은 선학원이사장을 두번이나 했지만 몇개월정도 하다 내버리고 떠났습니다. 죽을 날이 다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집착하고 끄달려서야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잦은 종권쟁탈로 갈등이 심해지면 절집안이 불안해지고 어수선해지기 마련이어서 불자들만 손해봅니다. 후보자끼리는 앙숙이 되고 말입니다. 추대형식이 아닌 선거제도는 정말 본받을 게 못되는 것 같아요.

최근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이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총무원장 자리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기 위해 심부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고귀한 자리에 나아가려는 분들이 왜 그렇게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분별과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수 있겠습니까?

넓은 포용력으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겠습니다. 종권쟁탈의 이전투구는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심명〉의 첫구절을 보면 “지도무난(至道無難)이요 유혐간택(唯嫌揀擇)이니 단막증애(但莫憎愛)하면 통연명백(洞然明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을진대 어찌 남을 헐뜯고 비방하겠습니까.

절집안 풍토도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나이들고 힘없는 스님들은 절안에 있지도 못해요. 북한동포를 돕고 실직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집안의 어른들을 먼저 존중해야 그 집안이 잘됩니다. 평생을 수행에만 정진해온 종단의 노스님들이 숙식이 어려워 이곳저곳을 떠돈다면 그 어찌 자비문중이라 하겠습니까.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정행 〈장호원 컨트리클럽 사장〉

“나는 항상 기도한다…기도의 힘을 믿는다 기복이 아닌 정진하는 마음을 위해”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어렵거나 힘든일이 있을때면 부처님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어느덧 내 수행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꼭 어느 절에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일도 회사일도 원만하게 해결해 내고자 항상 기도를 한다.

남편의 장기이식수술이 수포로 돌아갔을때에도 나는 남편과 함께 경기도 천보산 불암사에 들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무조건 남편의 병을 낫게 해 달라는 기복이 아니라 남편이 어서 육신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병을 회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병원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해 사람들이 부축해야만 겨우 발을 내딛어 걸을 수 있었던 남편은 기도를 시작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매일 한시간 정도 산행을 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보이게 됐다. 매일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보내던 중 남편은 꿈에서 부처님을 뵙고 새 삶을 얻는 선몽을 하게 되었다. 친청어머니의 고희로 고향에 내려갈 준비중이던 나에게 이식수술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기다려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얼마후 삼성의료원 간이식센터에서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면서 밤늦게 불암사로 전화가 왔다. 삼성의료원 측에서는 또한번 실망을 주지않기 위해 완벽한 수술준비를 마친 후 다음날 아침 간이식을 위해 병원으로 빨리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해주었다. 그 연락을 받고 나는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때가 바로 올해 4월 3일이었다.



모든 세계의 바다는 한없는 인연에 의해 성립되고 있음이 확실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미 성립되었고, 현재 성립되어 가고 있고, 또 장래에도 그럴 것이다. 말하자면 여래의 신력과 자재한 원력때문이었다.

수술에 앞서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어주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20명의 의료진이 집도한 그 긴 수술은 성공을 거뒀다. 사실 간이식 수술은 올해 초 뇌사판정의 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몇몇 사람이 새생명을 얻었지만 몇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사람은 수술 거부반응으로 삶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수술전 남편에게 고통스러울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라고 일러주었고, 남편은 그 덕분에 진통제를 거부하고도 아픔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성심으로 명호만 불러도 능히 고통을 여의케 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력으로 남편의 몸은 수술후 3주만에 거의 회복될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후 남편은 “내 인생은 49세로 마감되었고 이제 나는 1살로 다시 태어났다”라며 새로운 인생을 남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돌이켜보면 부처님이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신것은 이 세상에서 아직 남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자신의 생명을 남편에게 베풀어 준 기증자의 뜻 역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라는 고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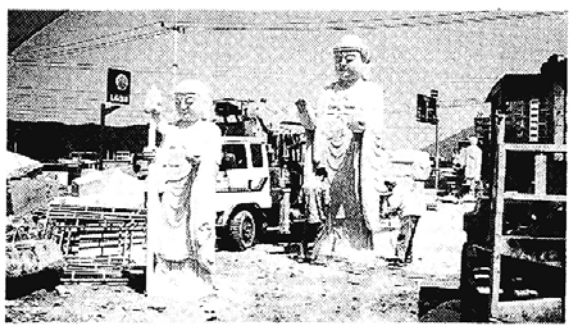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던가. 나 역시 남편을 도와 덥으로 사는 삶을 더욱 가치있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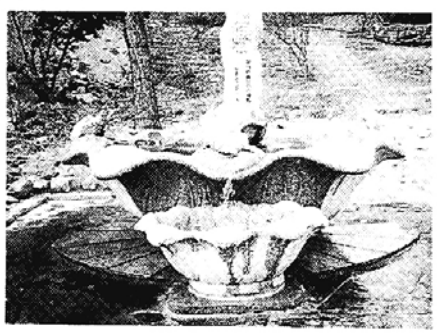
〈보왕삼매론〉의 “병고로써 양약을 삼아라”라는 교훈이 새삼 나 가슴속에 와 닿는다. 남편의 병을 함께 겪으며 그 힘들었던 일이 내게는 귀한 수행의 체험이 되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정진하다보면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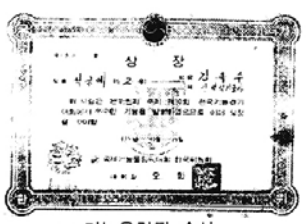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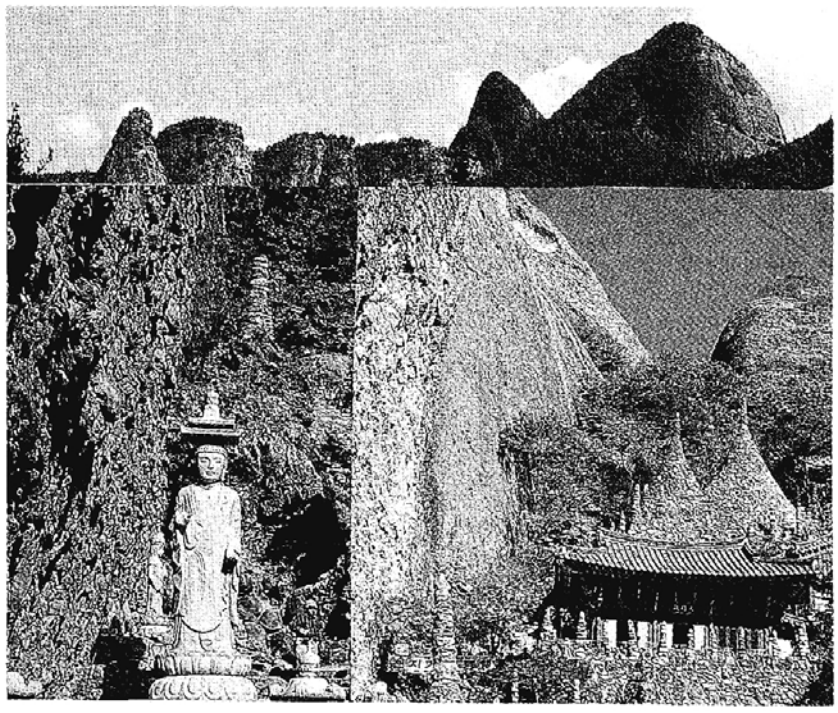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법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836-7527(FAX겸용) 자 택 : T)0653-831-3953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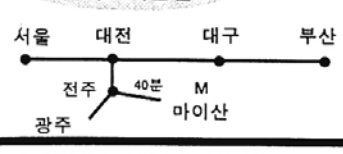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마음의 눈 뜰때 사물 바로 보여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7

눈 눈은 신체의 한 부분이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속담은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마음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며, 말을 안해도 눈으로 뜻을 전할 수 있다. 육근중 하나인 안근이 분별심을 여의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때 '정견(正見)'이 열린다. 해탈에 이르는 팔정도의 실천은 정견에서 시작된다.



◇온갖 나쁜 것을 물아내는 사천왕의 부릅뜬 눈. 통도사 사천왕 지국천왕.



◇손연철作 현대불화 '천수천안'.



◇미간에 또 하나의 눈이 그려져 있는 고려 '지장시왕도'. 1320년 作. 일본 지은원 소장.

사찰의 초입, 왕방울만한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장승. 웃옷을 벗고 하의만을 입은 채 검은 눈썹을 치켜올리고 눈을 부릅뜬 사천왕. 이들은 왜 눈을 부릅뜨고 있을까. 그 위엄으로 온갖 나쁜 것을 물아낸다고 하여 사천왕의 눈을 악안(惡眼)이라고도 한다. 신성한 가람에 들어가기 전에 세속의 번뇌로 흐려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탐진치 삼독심을 물아내라는 경고성의 눈이다. 사찰을 외호하는 수문장으로서 악귀를 내쫓아 청정도량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마음속에 깃든 잡된 번뇌를 뿌리뽑기 위하여 강하고 무서운 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은 언제나 대상과 함께하고 대상과 하나로 어울리느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면 대상을 선하게 보고 비열한 마음을 가지면 대상을 나쁘게 보게 되느리라.〈잡아함경〉"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의 중요상을 역설하고 있다.

수행자를 '눈푸른 납자'라고 지칭하는 이유도 수행자는 항상 맑고 지혜로운 눈(明眼)으로 정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근(眼根)

안근은 6근(根)중의 하나이며 눈의 감각을 생기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사대(四大)로 이뤄져 있으며 그 체질은 맑고 고요하고, 육안을 갖고 볼 수 없는 것을 승의근(勝義根)이라고 한다.

안식으로 하여금 형태·색채 등을 감각케 하는 시각기관인 눈·귀·코·혀·몸의 다섯 감각의 기능을 불교에서는 오근(五根)이라고 하며 오근을 통솔하는 기능을 의근(意根)이라 하여 오근과 의근을 합해 육근(六根)이라고 한다. 육근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 경계를 육경(六境)이라 하며 그 인식하는 것을 육식(六識)이라고 한다.

■정견(正見)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제거하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는 지혜를 뜻한다.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나의 육신과 정신은 실체가 없는 공한 것으로 물거품처럼 무상한 것임을 확실히 아는 지혜가 정견이다. 바로 보는 것이 바른 삶의 시작이다.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 33응신중 한분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과 그 손에 천개의 눈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조각된 숫자는 40개이다. 그 하나하나의 손들이 25유(有)를 구제한다고 보기 때문에 1천개가 되는 것이다. 왜 이처럼 많은 손과 눈을 가지고 있는가. 자비의 화신인 천수관세음보살이 각각의 손과 눈으로 시방세계 모든 중생의 아픔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무릎을 낮추며/두 손바닥 모아/천수관을 앞에/비옵는 말씀 두나이다/즈믄(천) 손 즈믄 눈을 가지셨사오니/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두 눈 없는 나오니/하나를 주시옵시라/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쓰올 자비라고 를 것인고.

향가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는 희명(希明)이라는 여자가 5살에 실명한 아들로 하여금 분황사 천수관음상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광명을 찾게 한 노래로 전해오고 있다.

한편 탑에도 눈모양을 새겨넣는 경우가 있다. 네팔의 바뭇다(카스티)의 대탑과 차루마티 탑은 사면에 각각 눈과 백호가 있는 정방형의 구조로 조성돼 있다.

안근이 청정하여 있는 그대로 보면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이 열린다

천수천안 시방세계 중생 苦 살피는 눈

사천왕눈 삼독심 쫓으려 부릅뜬 모습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손과 눈. 그 많은 손과 눈으로 일체중생의 고(苦)를 살피고 구제한다.

■오안(五眼)

△육안(肉眼): 인간의 소유하고 있는 육신의 눈이다. 사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뇌구족한 범부의 눈이다.

△천안(天眼): 보통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보는 초인적인 눈이다. 신통력에 의해 모든 것을 간파하는 지혜의 기능을 하며 초자연적인 시력을 말한다. 백계의 천인이 소유하고 있는 눈으로 중생의 미래, 생사를 아는 능력이 있는 신성한 눈이다.

△혜안(慧眼): 지혜의 눈으로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는 눈이다. 이승(二乘) 사람의 눈으로 진공무상(眞空無相), 즉 일체의 현상은 공으로 정해진 특질(相)이 없다는 것을 궤뚫어 본다.

△법안(法眼): 제법을 볼 줄 아는 눈으로 지혜의 눈이다. 그래서 선문에서 올바른 세계에 대한 견해를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 한다. 보살은 이것으로 모든 사상(事象)의 진상을 알고 중생을 제도한다.

△불안(佛眼): 깨달음을 얻은 자의 식견으로 모든 것을 멀리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는 눈이다. 즉 앞의 4가지 눈을 모두 갖춘 부처님의 눈이다.

■미간백호(眉間白虎)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32상의 특징 중 하나. 미간에 하얗고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광명을 발한다고 한다.

좌우 눈썹 가운데 백옥같은 빛이 있는 상(相)을 가리키며 제3의 눈이라고도 한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불상·불화등에 생명 불어넣는 의식

점안(點眼)

개안의식(開眼儀式)이라고도 한다. 불교신앙의 대상에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의식으로, 즉 눈이 열려야 생명력을 갖게 된다. 불상이나 불화, 만다라, 석탑, 불단 등을 새로 조성하거나 개수하였을 때 반드시 공양하고 불구의 근본서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점안의식을 행한다.

〈석문의범〉 점안편에는 불상점안과 가사점안, 조탑점안, 나한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등 10여가지가 나온다. 모든 불상이나 탑이 처음엔 종이, 돌, 나무의 천연물에 불과했으나 그 자연물에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예술품이 된다. 그런데 그 예술품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살아계실 때의 불보살의 위신과 영감을 불어넣게 되면 부처님의 신통력과 영험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불구는 점안의식을 봉행해야만 신앙의 대상이 된다.

△불상점안의식: 팔부신장을 청하여 도량을 옹호하게 하고 시방의 불보살께 불상, 탱화에 대한 내력을 설명한다. 도량을 청정히 한 다음 부처님부와 연화부, 금강부 등을 초청하여 점안을 거행함을 알리고 증명해 줄 것을 청한다.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심안 무진안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빌고 권공 예배한다. 오색실을 사용하여 부처님의 천안통과 천이통 타심통 등이 청정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한 뒤 불상의 눈을 붓으로 그리게 된다. 이러한 점안절차가 끝나면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삼신불께 증명을 받은 불상증명창불로 마친다.



◇스님들에 의해 불상 점안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건국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우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천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냐현상"으로 길고 춥다는 올겨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따뜻한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력기기전문업체 금강기전
〒 430-043
본사: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 774-5
전 화: 0343)468-7200(代)
영업부: 0343)445-6090
FAX: 0343)445-3370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무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0343)468-7200(代)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체,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1-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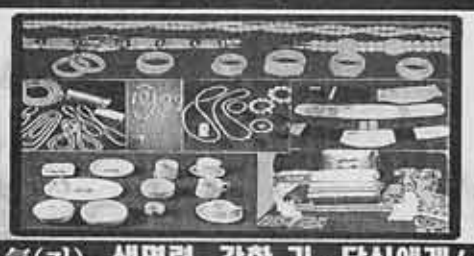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운 당신에게!



▲옥산기 측정값이 측정 10분후 적은 손의 분당 파장이 활발하다
연속 사용전 1.5mV 연속사용후 3.0m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찻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증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 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玉山家 옥만을 직접에서 사용한 소감입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옥산가 옥이 저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져서 손목터널에 신속은 백발초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 (주문전화)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 들고 나는 그자리서 해결해야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오고 드는 구멍이 한구멍이니 거기서만이 대처 할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덥고 춥고 간에 마음이겠죠. 마음이란 고놈이 바로 부처라는 이름이죠. 어떤 때 생각하면 재미도 있어요. 정히 덥다 싶으면 물 속으로 뛰어들어 가구요, 또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나무 밑으로 들어가구요. 혹여 마음이 들어간다고 해서 몸뚱이가 어찌 더움을 가시게 하고 또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가 이러시겠죠. 거짓말이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마음으로서 빚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몸뚱이도 마음으로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땀방울이 하나 나올 때에 둘 셋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둘 셋씩 나오는 땀방울을 하나로 줄일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그래서 제일 첫번째에 내 몸 한덩어리 개체를 불국토라고 한다. 내 불국토를 건설하지 못하면 바깥 불국토를 건설하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학술적이라든가 또는 팔만대장경의 법문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문이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부르고 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났으면 자기를 낳게 해 준 그 자체가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따로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부모를 육의 부모와 똥시에 같이 믿는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소박하고 작은 마음이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또 법의 부모는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예요. 그러기에 같다는 것이죠, 즉 자기 조상이며, 조 자기 조상 자체는 바로 공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소박한 마음과 나의 조상, 즉 말하자면 주인공과 일체제불의 마음이 더불어 같다, 이거죠.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백날 가도 깨우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마음이라는 것은 적으나 크나 동시에 같습니다. 내가 내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지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로 내 몸 속에는 바로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없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돌아서 현재로 다시 오는 그 길에서, 우리가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지금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느냐 하면 기필코 우리는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겠기에 그립니다. 이 몸 속에는 세계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세계가 있듯이 한 몸뚱이가 지구라면 그냥 세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의 문제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길이 한 길이라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과, 그냥 보고 듣고 생각나는 말 이건 천지차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구불만도 나오고 때로는 욕망, 어떤 때는 욕심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라, 한번 굴려서 놓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라 이런 겁니다.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어진 인연, 즉 인과로서 많은 인연을 둔 사람, 세균성을 많이 영접한 사람, 즉 말하자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쳤다거나 하는 문제들의 인연들 말입니다.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사람, 이런 점이 없잖아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관계에 인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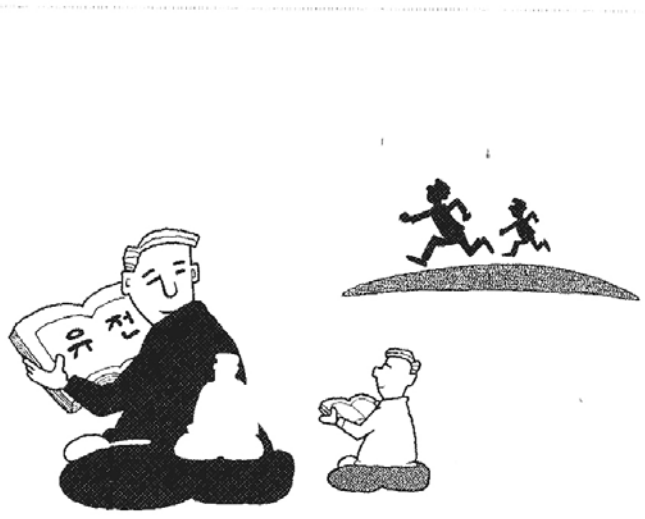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육의 부모 법의 부모 같기에 동시 믿어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것 오는 법 없죠

그러기 때문에 뱀의 소굴을 때려잡는다거나 한다면,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영향이 가거든요. 그걸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함으로써 여지없이 그게 유전이 돼서 '내 자식들도 그랬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고생 좀 해봐라' 하는 거죠, 모두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주둔해 있는데다가, 안에서도 자기 주장심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중심이 없는 집이 되죠,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매달리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바깥으로 절하고, 모든 게 바깥으로만 하니까요. 안에 자아가 본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세워놓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돼서 마구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끌어들이고 안에서도 일으키고 즉 말하자면,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시면서 "너희들, 갔다 올 때까지 놀아라"이렇게 하면, 애들 데려다가 놀면서 그냥 은통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안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 집에 오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좋구나, 그러니까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런다면 정신분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도 하나고, 주인도 하나인데 딴 주인이 와서 거기서 산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주인이 심부름하는 자기 시자를 리드해 나가야 될텐데 주인이 또 하나 생겨가지곤 자꾸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 가지 말라 뭐 갖은 잡견 다 하고 말입니다. 영계성이라는 것은 이런 도리를 알고 죽은 영계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죠. 사람을 이리로 가랬다, 저리로 가랬다, 먹지 말랬다, 나가지 말랬다 온통 야단법석을 하니까 이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부름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신분열이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안에서 주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런 것을 병원에 데리고 가봤던들 뭘하며 약을 먹여봤던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물방울 두 개를 하나에다가 붙이면 물방울을 하나가 되지 둘이 되지 않는다. 오만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해놓으면 그냥 영이지 오만 숫자의 영이 아니다는 얘기죠, 영 자체도 공했다고 했는데 주인에다가 모든 걸 맡겨서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분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항상 들어서 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종이 떨어진 거를 주워보라고 하시면서 "냄새는 어떠하냐?"하고 물으니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했지요. 또 가다가 새끼 떨어진 것을 주워보라고 하니까 비린내나고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건 무슨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향을 쌌던 종이를 따르려느냐? 아니면 생선 묶었던 썩은 새끼를 따르려느냐?" 하셨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썩은 새끼를 따라간다면 그게 악종(惡種)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깡패소굴에 들어가면 벗어날 길이 없듯이 말입니다. 향을 쌌던 종이 즉 향내 나는 그 향수는 선종(善種)의 인연이죠. '바다의 향수' 이러죠. 바다의 물이 다 향수같다면 우리 몸에도 물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전체가 향수라면 얼마나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연이라는 자체가 바로 악종의 인연이냐 선종의 인연이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악종의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지금 자식들로 하여금 속도 썩거니와 불구도 나오고 별 일이 다 벌어질텐데 이렇게 나오는 인과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반면 선종으로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선종을 낳게 되겠지요. 그런 가정은 애들이 극진하고 말을 잘 듣고, 속 안썩이고, 그냥 순수하게 살아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다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과성에 연결돼서, 고리와 고리가 물고 나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그 종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선종이다, 악종이다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연을 자꾸 만든다면 아니되죠. 그래서 과거는 돌아갔기에 없다고 하는데 그 뜻은, 이미 내 몸뚱이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다 하는 겁니다. 또 내 몸뚱이 속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 속에, 인과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전성이라는 그 문제도 살생으로 인해서만이 연결됩니다. 또 살생도 물론 거기에 그 3/9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유전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버지가 속병을 앓았다면 속병을 앓은 것을 대처해서 또 자식이 속병을 앓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렇게 남의 애를 태우고 꼭 그 값어치대로 했기 때문에, 값어치를 분가하고 또 자식이 그 값어치를 하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개미가 개미를 낳지 딴 종자를 낳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소가 소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 딴 거 낳는 경우는 못봤어요. 만약 들연변이가 있다면 딴 거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예요. 지금 염주알을 꿰어 백팔염주를 꿰어놨죠. 자기의 종자가 종자대로 이렇게 꿰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꿰어져 있어요. 우리 사는 것이 그 염주가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 없듯이 우주의 전체를 꿰어논 것처럼 그렇단 말입니다.

유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끊으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0)

열매는 씨앗에서 생겨났고 그 씨앗은 이전 열매에서 · · ·

그 무엇이 싹을 틔워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나를 싹틔운 그는 누구인가? 곧 참 나 주인공이다. 그럼에도 중생은 그 씨앗을 잊고서 '지금의 나'에게만 매달리기 때문에 온갖 고에 휘말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씨'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최초의 씨앗은 이제 지금의 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열매가 영글었다면 그 열매는 곧 처음의 씨앗과 다르지 않으니 지금의 나 속에서 참 나를 찾아야 한다.

자기로부터 우주의 근본이 나오므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우주의 어떠한 작용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지구를 집어삼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자기의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의 근본보다 더할 것이 없다. 광대하고 적적하면서도 신령함이 내 안에 남김 없이 깃들어 있으니 내 안의 불씨 하나가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그 뿌리가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뿌리가 없다고 단정할 것인가. 목수는 자기 마음대로 집을 설계하여 짓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마음먹은 대로 자식을 낳지는 못한다. 어떤 부모라도 목수가 집을 설계하듯 그렇게 자식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설계한 것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제기하는 삶의 비밀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사는 이치를 보라.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지 집이 있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와 같이 이 육신을 지어 놓고 들어가 사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라.

나의 육신은 마치 내가 헌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영원치 않아 무상하다는 것을 지켜 보라. 나의 의식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지켜 보라. 지켜 보면서 과연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나왔다가 어느 구석에서 사라지고마는 허망한 존재이면서, 그나마 고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고통받다가 멸망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인지를 밝게 알아야 한다. 정말로 그러한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주재자, 참 자기가 있다.

육신이 나인가, 의식이 나의 주처인가, 의지가 나의 주처인가. 육신도 내가 아니고 의식도 내가 아니고 의지도 내가 아니다. 그러한 나는 비록 애지중지 해왔다 해도 다 비실재요 가화합이요 인연 소산일 뿐이다. 그러므로 허망하다 함도 당연하다. 중생은 여태껏 그러한 나를 위해 살았고, 그러한 나가 나인 줄로 아는 그릇된 소견을 갖고 있었기에 말이다.

열매는 씨앗에서 생겨났고 그 씨앗은 이전의 열매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이전 열매는 또다시 그 이전의 씨앗에서 생겨난 것이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열매는 미래로 또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이니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어느 때의 열매를 '이것이 열매다.' 하겠는가. 고로 끝간데 없이 이어지는 열매의 참



성품을 찾으라는 것이다.

나무를 살리려면 뿌리에 영양분을 주어야 하듯이, 사람이 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본래 성품 자리를 밝혀야 한다. 본래 성품 자리인 주인공이야말로 곧 사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나를 있게 한 이도 주인공이요, 나를 데려갈 이도 주인공이다.

가을에 잎 떨어진다고 나무가 뿌리째 죽는 것은 아니다. 뿌리는 그대로 살아서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이 핀다. 나무가 그러한 자기 뿌리를 보지 못하듯 인간도 제 뿌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체가 없는 뿌리이지만 말하고 움직이게 하는 근본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먼저 참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 과거로부터 수없이 탈바꿈을 해 가지고 자기 형상을 형성시켰건만 그것을 모른 채 지금 현실의 나만이 내 실상인 줄 알고 애를 쓰고 있으니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갖가지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고 듣고 앉고 서고 말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소소영영하게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내가 있으니까 상대도 있듯이 바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일체가 있고 또 우주 천지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눈 한번 깜짝하는 사이, 빛보다 더 빠르게 우주 천지 어디든지 연결되어 비춰볼 수 있는 신통 묘용의 한마음 주인공이야말로 바로 나의 진면목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말을 했다. 내가 지금 움직였다 말하고 움직인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가? 내놓아 보라면 내놓을 수 있는가? 말하고 움직인 그것을 누가 했는가? 바깥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감지할 수가 없다. 그 근본을 주인공이라고 한다 한마음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 자기라고도 한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주인이라 하고 운전자를 그 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겠는가. 주인공을 모른다면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숨을 들이고 내쉬는 것을 보라. 들이쉬고 내쉬지 못한다면 죽을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와 같이 생활 속에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지 않는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끌고 왔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근본, 이런 근본이 주인이 아니라면 주인이 있다는 것은 증명도 못할 것이다.

중생으로서의 나(我)가 부정된 그 자리에 중생의 나가 아닌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 바로 참된 나의 주인공, 한 번도 나지 않았으므로 아예 죽을 바가 없는 무량겁의 나, 더러움에도 아예 물들 줄 모르고, 괴로움이란 것으로부터도 초월하여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의 지고지락한 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영원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협찬 :김 재 한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여기 부처 아닌 사람 어디 있나
본래 그대로인데 '자기' 믿어야

☞ 15면에서 계속

면 지금 공부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전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인과성 이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안하면은, 항상 얘기하듯이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나온 거라면 거기서 대처해야지 다른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구멍도 그 구멍, 드는 구멍도 그 구멍, 우리가 숨을 쉬었으면 숨을 쉰 그 자리에서 또 쉬어야지 딴 자리에서 숨이 나오는 겁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한 구멍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듯이 마음 그 자리에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도 딱 한자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은 한 궁전 털구멍 가운데서 보살을 낳고, 털구멍 가운데서 모든 세계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업보성하면 오간지옥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차원이 낮아지면 인간에서 좌천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좌

이 공부는
남들도 절에 가니
나도 다녀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천되면 저 땅 속에 기어다니는 벌레로서 땅 속에서 사는 수도 있죠. 혹시 바가지에다가 죽을 쑤어가지고 무당이 칼을 들고 던지면서 하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이걸 먹고 썩 물러나라!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내, 밥내도 못맡게 지옥성에다 넣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 것과 같이 인간이 돼야 국냄새 밥냄새를 맡지 어떻게 맡겠습니까? 만약에 땅 속에서 사는 벌레나, 굴 속에서 사는 살모사나 뭐 그런 뱀 종류라든가 벌레 종류라든가 이런 거라면 국냄새 밥냄새를 못 맡죠. 그게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결정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칼로 썰어도 썰어지지 않고 아주 굳세고, 아주 늠름하고 여여한 것이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이름이 부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빌고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오신통이라는 이름이 컴퓨터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입력됩니다. 업보성이라든가 영계성·유전성·세균성·인과성 이 자체가 몽땅 차례차례로 닥치는대로 거기다 놓으니까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나가면 자손대에도 다시 바뀌어지는 거죠.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일체 목신들 즉 말하자면 식물들도 전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부 통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신을 하는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다 하면 모두가 통신을 엮어주는 직원이 돼줍니다. 엮어서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돌 아니게 통신이 되게끔 해주죠. 식물이라는 그 자체도 모든 목신들, 풀신들이 천차만별로 있죠. 거기엔 수풀을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나무를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또 어디 도(道)면 도, 시(市)면 시, 이렇게 맡아서 다스리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로 주림신이라고 하고, 해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도 주(主)자(字) 빼놓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마음 빼놓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이것을 다 부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만 물론 부순다 하고 안간힘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여하게 편안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 몸뚱이 하나는 한쪽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처럼 바로 선장에 꿰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와 같구요. 선장이 끌고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몸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배를 탄 중생들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파도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과 같고,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선장이 잘 이끌고 가는데,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중생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하고 안에서 뛰면 바깥에서도 뛰고, 바깥에서 뛰면 안에서도 뛴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이 배가 몸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분들은 "허허 파도가 치면 치고 배가 엎어지겠으면 엎어지고 말겠으면 말고, 내가 공했는데 배가 탄 것은 어디 있으며 배를 안타는 것은 어디 있겠느냐? 파도친 것은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럴 때는 그냥 안에서 빙긋이 웃음이 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배는 지나갈 수 있고, 무사히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부도가 났네, 뭐가 났네 하는 것도 이 도리를 몰랐을 때에 그렇게 해놓은 것을 어떡합니까? 수습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 고놈한테다 맡기고, 하늘이 무너지고 회사가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하고, 거기다 딱 맡겨놓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맡겨 놓으세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 것을, 왜 불편하게 사십니까? 자식이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 간다, 부모가 둥둥 떠내려 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요동치지 말아야 자식도 건지고 부모도 건지지 마음이 요동치면 같이 다 죽어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랬답니다. 부모가 고생고생하다가 늙어도 고생을 면치 못하고 애를 쓸 때, 애쓰는 것을 볼 때는 그냥 물에 떠내려 가도 어머니만 건져라, 그 어머니의 시자는 건지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떠내려 갈 때는 아직도 시자 노릇을 좀 더 할테니까 즉 그 몸뚱이가 젊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와서 건지게끔 마음을 내는거죠.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도 건지게 되고, 깔려 죽는 것도 다 살게끔 되는 거죠. 이것도 마음의 도리가 아니라면 절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절대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임신을 해서 별을 낳을 때에 수없이 낳고, 수없이 들이고, 또 수없이 낳아도 근본이 아니라면, 이 마음의 중심 근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이고 낼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그 위성이 떴다고 하더군요. 무궁화호라든가 말입니다. 그게 뜰 때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길 그랬습니다. "허허, 이 마음 공부들을 했더라면 들이고 내는데 저장처를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 더 달았으면 제대로 될 것을, 모자라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위성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서 돌아가는데 인간의 마음이 한 것이지 딴 데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한 거지 딴 데서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올렸든지 내렸든지 간에 마음이 선장이죠.

여러분 중에 차원을 셋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첫째는 나를 지금 간곡히 관하고 들어가는 사람, 둘째는 관하고 들어가서 나를 탄생시킨 사람, 셋째는 탄생을 시킨 후 점차적으로 점수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세단계가 있다 한다면, 그 첫단계에 공부하는 사람이 윗단계에 말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한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집을 지을려면 바로 이 주춧돌부터 아주 완전하게 해놓고 집을 지어야 되니깐요. 위성이 지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돌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마음이 벗어나야, 우리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없어도 바깥으로 다닐 수 있는 건 마음이예요. 물체는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물체가 아닌 마음은 이 우주 삼세를 한 찰나에 돈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그뿐이 아니예요. 전체를 공 하나 갖다 놓구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무슨 까닭일까요. "전체를 갖다가 요렇게 갖다 놓고 봐도 이건 도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죠. 보는 것이 무슨 도겠느냐만은 우리가 저 위성을 만들려면 일단계, 이단계 차례로 겉껍데기를 만들죠. 겉껍데기 만드는 것과 같이 그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지, 오신통이니 뭐니 이것도 종합해서 모두가 혼자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보는 것, 듣는 것, 상대를 아는 것, 또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 또 내가 가고 옴이 없이 이렇게 가고 오는 것 이런 것이 종합돼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몸, 정상인. 그러듯이 우리가 그 정상인 하나가 정상인답게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지구 바깥을 벗어나서 돌거니와 아니 다른 행성 가서도 돌고, 다른 행성이 만약에 우리 지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돌이 아니게 만드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평등공법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겠죠. 그 속에도 평등공법이라 할지라도 중용이라고 말하죠. 여러가지로 이름이 주어지지만 하여튼 그것이 보고 듣고 하는 진짜는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보고 들었으면 주어라, 보고 들었으면 결정을 지어라, 보고 들었으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잘되고를 알 수 있으니 수습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말해 줄 사람한텐 말해주고, 그냥 건져 줄 사람이라면 건져주셨던 거죠. 예전에는 양을 많이 잡아서 바쳤답니다. 양을 바치려고 짊어지고 갈 때는 양을 건져주고, 소가 죽을 때는 소를 건져주고 해서 부처님 눈에 띄었다면 그건 인도로 환생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더운데 내가 시원한데로 놀러가지, 왜 더운데 거기 가서 끼어 앉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지내보니까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또는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누가 주면 주는대로 끌어다가 먹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또 나한테 온 거 박차서 내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두가 순리적이고 합리화해서 항상 모두를 내 스승으로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내 몸으로 본다면 그게 거짓이 아닐 겁니다. 수없이 몸을 변하게 만들어서, 키가 모자라서 못 먹을 때는 키를 키우고, 다리가 모자랄 때는 다리를 키우고, 배가 좁을 때는 배를 크게 하고 자기 소관대로 자유스럽게 몸뚱이를 만들어서 사니까요.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생각으로 진화가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몸 자체도 개선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참나를 발견하려고 찾고 믿는 것 말입니다. 믿는 것은 그런 걸 하려고 믿는 게 아니예요. 아픈 것을 나을 량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죽을 것을 살 량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면 시자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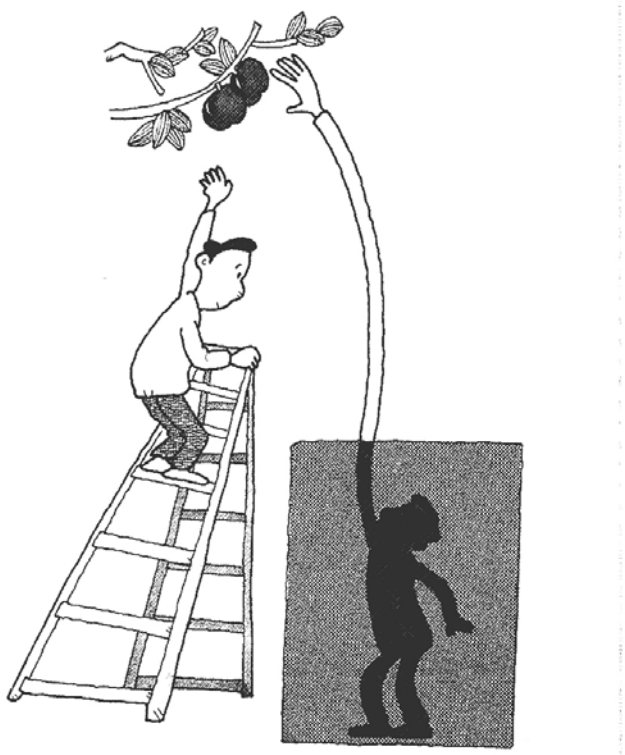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과의 나쁜 습성이 나오면
상대방 생각해서 한번 굴려 놓아요
그러면 그런 습성이 없어져요

쁘든 좋든 아버지이듯이, 어머니가 못나고 잘나고 병신이든 내 어머니듯, 그냥 무조건 믿는 그 속에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은 거기서 다 대처가 되는 거니깐요. 그렇게 믿지 않고 이름만 부르고 한 가지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건 참 더디죠.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앞에 닥친 것을 어쩌겠습니까? 너 아니면 해결 못한다 하구선 마음을 조급하게 두지 말고 안되든 되든 일단 맡기고 지켜보세요.

어떤 스님이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짚고선 어느 마을을 건너가는데, 그 마을에 불이 나서 막 타오르고 아우성을 치더랍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몸뚱이가 뛰는 게 아니라 주장자를 척 물에다가 치니까, 그 물이 그냥 구름으로 화해서 전부 비로 내리더랍니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뭐 그냥 불이 단번에 꺼지더랍니다. 그쯤은 돼야지요, 허허허.

그러니 몸뚱이는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저 허공에서 만약 비행기가 잘못돼서 죽는다고 해보세요. 몸뚱이가 아무리 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나요?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지요.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 술을 한잔 마시구선 몸이 불편하니 조종을 잘못 하는데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수차적으로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조종사 속으로 들어가서는 "에이, 이놈아 정신차려!" 그러구는 콱 찔렀단 말입니다. 이거 야단났거든요. 그냥 수습을 한 거죠. 비틀비틀 하면서도 괜찮았답니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듯이, 이 공부는 남들도 절에 다니니까 나도 절에 다녀보자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를 필수적으로 쓰듯이 밥을 필수적으로 먹듯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으니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내 탓이지 남의 탓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소엘 가든지 법당엘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는 있는 것이지,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데를 찾아서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진동수 觀도 수행방편인지요

문 마음을 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부처가 되고 싶은 열망은 간절합니다만 그것도 욕심인지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마음을 관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편을 찾는데 예를 들자면 '옴 진동수'라든지 또는 냉수 온수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냉온욕같은 방법으로 몸 안에 나쁜 것을 제거시켜서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으로서 조금 빨리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는지요?

답 진짜로 믿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통신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나오는 구멍에다 진짜로 넣는지 들어갔는지, 그래서 거기에 통신이 되면 한 찰나에 대뇌로 갑니다. 대뇌로 가서 소뇌를 거쳐서 아주 찰나에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 모두 제거할 건 하고 수습할 건 하죠. 그게 가능하죠. 모두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 데서 되는 거지, 부처도 이름입니다. 여기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처님이지. 자기 아닌 속에 진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부처가, 부처 아닌 부처가 본래 그대로 있으니 그 자기를 진짜로 믿어라. 콩씨 하나 심어서 콩싹이 나겔랑은 그 콩싹은 제 뿌리를 진짜로 믿어라. 믿어서 콩싹이 왕성했을 때는 자기 종자를 다시 얻느니라 이런 거죠. 다시 종자를 얻을 때에는 한 종자가 수만 개로도 되고, 그랬을 때 수만 개의 종자로 다 먹이고도 한 종자는 되남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육체단련도 공부 도움 됩니까

문 관하는 마음은 천차만별이 돼서 마음 하나만 관하기는 힘들겠고, 그래서 몸이 우선 건강해야 마음을 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쓰면 어떨런지요?

답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건강하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한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잘될려고 하지도 말고 못될려고 하지도 말고 닥치는대로 거기다 어차피 맡겼으면 심부름꾼은, 즉 말하자면 하인은 주인이 하는대로 따라갈 뿐이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따지지 말아라, 주인도 따지지 않는데 왜 하인이 따지느냐, 그러면 종문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깐요 하여튼 그렇게만 맡기세요, 그렇게만. 우리가 옛날에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다 했지 조금도 참견한 예가 없지요. 하인 노릇은 자기 자식까지 전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문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주인 노릇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주인일에 참견하다가 그냥 오히려 종이 죽어버리면 주인도 찾지 못하니까요.

집안 해충을 없애고 싶은데…

문 저희가 특히 여름철에 살다보면 집안에 각종 벌레, 해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것을 먹거나 버릴 때는 한마음 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살아있는 놈을 귀찮다고 '한마음!' 하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살아있는 걸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거는 차원의 단계가 다릅니다. 지금 갓 배우는 사람한테는 살생하지 마라 이러지만 다 배운 사람 앞에는 무조건 먹어치워라 이럽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얼마나 고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다 깨우친 스님이 많은 벌레등지를 다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살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죽여도 건진 것이고, 살려도 건진 것이고, 줘도 건진 것이고, 안줘도 건진 것이고 그냥 모두 건져지는 겁니다.

장기이식 받아도 괜찮은지요

문 장기이식이 많이 보편화된 요즘, 스님 법문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나 신장같은 걸 이식받았을 때 혹시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 다섯가지 문제가 같이 딸려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이식을 받아서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그거야 선심이니까 선과에 들어가는 거죠. 즉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준 사람을 둘로 보지 않고 자기로 본다면 아무 문제도 없죠. 그러나 둘로 본다면 또 그게 인과가 되죠.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제3의학·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특별할인판매(수량한정)

동충하초 + 상황버섯
(1개월분 각 10만원)

■ 셋트로 구입하시면 불로환약을 무료로 드립니다. (판매가 10만원)
■ 암 및 불치병 완치사례 다수 있음.
■ 주문전화(배달 및 통신판매중)
건영백화점 1층
서울 02)926-6981
휴대폰 011)262-6981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스님의 비법 :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화도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 당뇨병, 간질병,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대도시권 배달가능)
⊙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3개월이면 치료됨.
⊙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 011)707-5934

기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 - 질병상담
문제아 무료상담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신경통, 당뇨, 비만중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468-9632/011)453-861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옥천사**
주지 대원 합장

만병통치로 불리어지는 산삼

불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0348)
959-2992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기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짐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수원 용인지역임)

수맥 강좌

신비의 추 사용법

■ 매주 목요일 15시
■ 수맥관련 상담환영
(건강·양택·음택·기타)
■ 기 균형 전문(사업장 주택)
■ 행운과 건강목걸이 판매
(입시생,몸이 불편한 분, 원이 있으신분)

02)3675-2118/011)239-6817
대붕氣살림

역 학 강 의

개인지도 ○명

1~2개월이면 앞이 훤히 보임.
"팔자를 알면 출세하고 운을 알면 돈을 번다"
의 저자가 직접지도
염라 철학원
02)424-0064~5

활법선원 교육생 모집

◇내용 : - 선불교교리
- 명리학(사주학, 성명학)
- 기공(법륜공)
- 자연치유학(활법-척추교정술, 경혈지압 및 맛사지, 자연건강법)
◇특전: 교육 수료후 선법사, 활법사, 명리역학사 자격증 발급
※스님은 특혜 있음
(위치:7호선 상봉전철 1번출구앞)
교무처:02)434-7576/F.434-7576
생활선불교교육원(대학)

• 구인구직 •

인연되는 사찰을 찾습니다.

철학과 침술에 능통한 스님입니다.
절을 맡겨 운영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1)266-8108

天下大道육신통(육경신)과 退印인 符를 아십니까?

태양의 선더미묘법으로 천백억화신,유,불,신,도의 힘을 안어 생애의 희업과 인류의 영혼과 지옥의 영가해탈법과 천지만물 응화법등에 新光의 天氣을 안는 대비밀법임을 명심합지여다' 특히 경신일에는 각종병마와 혼미해진 정신과 잡신에 끄달려는 신병과 몸이 비대한 몸과 망상의 취객자들에게는 스스로 막힘이없으며 과사현정과 신출귀몰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 못하는 제석천 사대주의 대비밀장과 대우주태양의 天氣을 받는 기도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처●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 모자원고개하차)
(주) 02-821-6622 / (야)02-923-3110
016-239-3110
육신통(육경신) 도통회장 **태일법사 합장**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요양·기도·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기 타 •

용회사 수양원

수양·요양·기도공부

경전강의 참선지도
월숙식비 30만원
1인 1실, 침구일체완비

0591)746-9921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용 회 사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1)841-3591

해외(미국, 캐나다) 포교지망생 모집

불교에 관심있는 35세 미만의 미혼남녀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분, 정직하고 성실한 분 해외에 나가 장기간 활동(수행 등)할 수 있는 분

자혜불교회 선련사 북미국제불교운동(삼우스님)
연락처 : 서울 987-9180, 016-235-1080

염불전용녹음실

⊙ 법당 앰프, 마이크 설치 ⊙

●평소에 염불을 녹음하고 싶었으나 비용과 음질 때문에 망설였던 스님
●현재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에 불만을 갖고 계신 스님
●직접 법당내에서 평소에 하시는 염불을 녹음하시고 싶으신 스님
※ 수십년간 법당에서 좋은 염불을 하고 밝고 고운 음질의 마이크는 없을까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법회를 할 수 있는 영상음악과 법요의식용 찬불가 음반이 필요하신 분)
전화문의(法音寺) 김광덕 합장
0417)551-1562

장례관련상담

갑자기 상을 당하시어 경황이 없으신 분들 전화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식 장례·묘지
납골당 안내

한마음 서비스
080)4444-111

긴급적선호소

경제파탄으로 불자가족이 죽음직전에 적선을 호소합니다.

국민은행
838-21-0132-495
(김기창)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사업자금 4억원 구함

1. 유망사업임
2. 투자한분 안전하게 장치
3. 주식투자 또는 악성투자
4. 원금과 이자는 조기에 상환도 가능
5.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대불사도 하고 싶습니다.
6. 부동산도 가능.

● 투자 지원팀 02)507-6001
● 본인 02)551-2488
015)8624-0911 一覩 合掌

• 사찰안내 •

포교당 안 내

◇위치 : 서울 홍은동 4거리
◇법당 : 20평, 방, 주방5평
◇보증금 1,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 즉시 범회 가능
◇욕실 및 일체시설완비, 급히 양도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 진 불 사

토굴겸 암자안내

◆ 위치
양평 유명산 입구

011)750-7222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시흥동 대한전선 건너 수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산포 목조, 문화재급, 시설 A급)
◆요사채 : 지상 20평, 목조, 지하50평, 산신각 5평(돌벽)
◆채공실 : 17평(조립식) ◆가액 : 15억
◆ 특징 산세수려, 물좋고 납골당, 양로원, 근린시설요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
서울버스 124번 버스종점근처
서울과 거리는 3분거리, 주차장 30대 가능
※ 운영하실 분은 연락요망
02)899-428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부지 : 370평(아담한 산속)
◆ 법당 : 39평(주불 약사여래 6자)
◆ 요사 : 30평
◆가격 : 9천만원

0658)542-5859

사찰부지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에서 20분거리)
- 임야 : 9,777평(도로인접)
- 밭 : 323평
- 묘자리 가능
◇가액 : 1억 3천만원
※사정상 급히 안내(시세 1/3가격)※

042)585-1101
011)429-0222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 신림본동 신림4거리 보도10분거리 대로도변 2층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칠성탱화,각종만다라화 여러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시설및 일체물품(1천 2백만원)

02)888-1642
011)686-9925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3천 7백만원
◆ 최고의 명당
(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595)882-6407

사 찰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 평수 : 국유지 400평, 법당 30평, 방6개, 미륵불, 주차장.
◆가격 : 1억 8천(조정불가)

02)937-7241

오피스텔 안내

제일오피스텔 10층

◆위치 :송파구가락시장 맞은편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 역앞)
◆평형 : 41평
◆가격 : 2억원
◆ 꼭 연락주세요. 반야행

02)732-1523

사찰안내

◆ 위 치 : 경북
◆ 법 당 : 32평, 요사 : 38평
◆ 부 지 : 400평 ◆ 가 액 : 2억
⊙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포교당)운영하실분

◇위치 : 대구광역시
◇대지 : 48평
◇총건평 : 1층-30평 2층-30평
반지하식당-13평(공양칸)
2층 : 법당 - 1층 : 요사(방3, 주방 욕실, 총무소, 석가모니불, 동불 5자, 입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후불·신중·산신탱화, 집기일체 포함)
◇ 입주즉시 법회 가능
◇가액 : 매가 1억 3천만원

011)790-7162/053)656-6609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서성동 부림시장
◆ 법당 2층 약 60평, 요사채 3층 약 40평, 방, 주방, 욕실, 창고
◆보증금 : 1천만원, 월 56만원
◆시설비 : 2천 5백만원(절충가능)
◆시설완비 즉시 입주가

02)352-0719/011)853-8963

포교당 인수하실 분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 입구
◆ 평수 : 대지 77평, 연건평 92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가격 : 3억 1천 5백만원
※ 은행융자 1억 6천 5백만원 포함

051)556-4932

촌 집 암 자

◆위치 : 경북 의성
◆가격 : 전세금 없음
시설비 1,200만원

0576)832-0831
016)290-6699

사찰(급)안내

◆위치 : 삼천포 시내에서 5분거리 ◆부지 : 약 1,700평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20평
◆주지실: 12평 ◆버스진입도 됨, 주차장 약 200
◆가격: 1억 7천만원(전세가능)
◆특징 :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접한 기도도량으로 울창한 송림속에 자리잡고 있고, 삼천포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panorama 경관과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 편리한 교통과 사계절 일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이 접하고 있는 청정한 기도도량.
■ 창건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하신 분중 6천만원의 동참금을 내시고 평생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6천만원의 동참금은 5년후 바로 돌려드리고, 6천만원에 대한 담보설정은 즉시 해드립니다. 또한 사후 49재및 공덕도 세워드립니다

017)557-9448(주지직접)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 1억 7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 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011-801-8818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성북구 보문동
◆평수 : 64평, 한옥
◆방5개, 부엌, 마루
◆가격 : 평당 500만원(절충가능)
◆주택전철역, 교통편리, 주택밀집지역, 탑골승방 인접, 포교에 최적지임.
※ 꼭 하실 분만 전화주세요.

02)921-6831
016)262-6831

사찰 안내

비구니 스님에 한함
◆장소 : 김해시 대동면 (김해시와 부산시 중간)
◆현황 : 조계종 소속으로 산중이면서 포장된 도로 및 일체시설, 살림살이 도구등을 완비하였으며 조용한 기도, 수행처, 寺으로 적합.
◆기타: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꼭! 사주학 배우실 분

◆대상 : 스님, 재가자 남·녀
◆선착순 : 0명
◆숙식및 수강료: 면담후 결정함
◆정통이론으로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실전을 겸비한 '스님'이 강의함
◆장소 : 경남 김해시

0525)334-7399/332-8784

전통고찰 안내

◆위 치 : 경기도 강원도 경계지점 ◆부 지 : 2만 7천평
◆건 물 : 법당 25평(주3포)목재 단청, 대웅전, 선방, 용왕각 무량수전, 지장전 (40평 목재), 주지실, 공양실, 요사(40평), 건물 총9동/창건 : 1600년전
◆부속물 : 석등, 석탑, 미륵석불, 관세음보살(석입불), 연지
◆가 액 : 8억 5천만원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청정 자연계곡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하명당 자리로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시세이하 가액으로 모십니다.
※ 본 사암은 궁히 부처님 정법도량이므로 스님외 일반인, 무속인 보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512-4447/ 011)736-4447

불자 세상보기

매춘여성 1백만명
15~39세의 10%

우리나라에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백만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15~39세 여성 1천18만6천여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미혼여성은 물론 남편이 직장을 잃은 주부들까지 향락업소로 유입될 유려가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0월28일 '산업형 매매춘(賣買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퇴폐이발소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6개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가운데 매춘에 관련된 여성을 51만4천9백여명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카페 숙박업소 무허가유흥업소 '보도' 등을 포함,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백만명 이상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버스운전자 23%
경력 3년 이하

서울 시내버스 운전자의 23%가 운전경력 3년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2일 서울시가 국민회의 김홍일 의원에게 낸 서울시내버스사업 관련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버스 운전자의 23%인 4천15명이 운전경력 3년 이하이고 1년 이하인 '초보운전자'도 1천4백59명이나 됐다.

불건전정보 차단 SW
정통윤리위, 무료보급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보급이 활성화 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한 데 이어 올 12월에 차단 소프트웨어가 담긴 CD-롬 3천개를 제작, 무료로 배부하기로 했다.

차단소프트웨어는 윤리위 홈페이지(www.icec.or.kr)나 학부모정보감시단 홈페이지(cyberparents.icec.or.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실직노숙자 춥고 배고픈 겨울

서울시 · 민간단체 113개 희망의집에 수용계획
병약자 · 고령자대책 미약…"자비심을 내자"

추운 날씨로 인해 공공근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 각급 학교의 미취업 졸업생 배출 등으로 실업문제가 최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생계가 어려운 노숙자나 실직자, 그 가족들의 경우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는 노숙자 2천5백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노숙자들을 실내로 유도해 아사·동사를 막고 자활의 지를 심어줘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다. 기존 쉼터를 '희망의 집'으로 바꿔 부르고 수를 27개에서 1백13개로 대폭 확대해 노숙자 대부분을 입소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희망의 집'에 입소하면 숙식제공, 심리상담과 취업알선은 물론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다.

지난 10월20일까지 1·2차 집중상담을 통해 '희망의 집'에 입소한 노숙자는 약 1천5백여명. 하지만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희망의 집' 입소자격을 주다보니 장애자·병약자·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한편 43% 달하는 기혼 노숙자의 가족을 비롯 실직가정의 자녀와 노인들에 대한 월동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정부도 '저소득실업자 겨울대책'이란 이름으로 총 1조6천억원을 투입, 1백여만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직노숙자와 불우한 이웃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IMF관리체제의 극복도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한마음과 공동체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서울 종묘공원에서 아침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한 노숙자. 겨울이 오면 동사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눈 물적 정신적 구호 시급

"현명한 치자는 백성이 곤궁할 때 나누어 주고 넉넉할 때 거둬들이며,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잘 관단하여 될 수 있는 한 가볍게 한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잘 화합한다."(대살차니건자소설경) 정부의 '저소득실업자 겨울나기' 대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통해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종교인들도 "보살이 중생을 섭취(攝取)한다는 것은 재물의 증여(財施)와 법의 증여(法施)로써 중생을 거둔다는 것이다"(대품반야바라밀경)는 법문처럼 물적 정신적 구호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 특히 불자들은 "보살은 대자비로 중생을 교화하고 구호하기 위해 올 뿐이다"(화엄경)는 가르침대로 이 시대의 보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웃음이 보약"

스트레스 진정시키고
혈압 떨어뜨리며
혈액순환 개선 효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一切唯心造). 밝은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웃음은 보약(補藥)'이란 말이 사실로 판명됐다.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 미하엘 티체 박사는 10월 9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막된 '웃음요법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웃음은 면역체계와 소화기관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면서, "그 이유는 사람이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의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은 40년 전에 비해 하루에 웃는 횟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또 아이들이 하루에 웃는 횟수는 평균 4백번인데 비해 성인들은 하루 15번밖에 되지 않았다.

김재경 기자

북식량난민 사망률 28%
3세이하 영아 절반 넘어
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조사

혹심한 식량난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식량난민 자녀중 3세 이하의 영아들이 최근 3년간 절반 이상 질병이나 굶주림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북한을 탈출해 중국 길림성 장백이나 연변지역에 사는 식량난민 1천5백5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를 10월27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면접대상자의 총가족수를 모두 8천4백64명으로 잡았을 때 평균사망률은 27.9%(2천3백60명)에 달했으며 3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거나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살짜리 영아의 사망률은 77%, 2세와 3세는 61%, 55% 등으로 조사돼 식량난에 따른 피해가 어린이들에게 집중돼 있었다.

김재경 기자

한국 인간개발지수 '세계 30위'
UN보고서, 남녀평등 37위-여성권한 83위

유엔이 최근 발표한 〈98년 UN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M)가 총 1백3개국 중 83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각국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가 등이 수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83위에 그쳤다. 일본 38위, 싱가포르 42위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수치다.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인간개발 성취정도를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캐나다가 174개국중 1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2위, 노르웨이 3위, 미국 4위, 아이슬랜드 5위 등 대부분 북미,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30위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평균수명, 문자해득률, 취학률, 남녀소득차 등으로 평가되는 남녀평등지수(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는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랜드, 핀란드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3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3위, 싱가포르 29위, 홍콩 33위, 북한 58위 등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시론

대입 무시험 전형



정진환
〈동국대 교수 · 교육학〉

우리는 바야흐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모든 부문에서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전개됨과 동시에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주의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 궤를 같이하는 선상에서 10월 25일 청소년헌장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학교폭력, 교사체벌, 성차별 등 이른바 3대 학교악을 근절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선언적 권리를 담은 '학생인권선언'을 공포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9일 확정 발표한, 2002년도부터 실시할 새 대학입시제도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 하겠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 중학교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학년도부터 무시험전형이 대폭 확대되고 고등학교 등급제도 금지된다.

학생선발은 수능성적과 학생생활기록부 점수를 합산하는 점수위주에서 탈피하여 특기, 봉사활동, 교내학생활동, 진학계획서, 추천서, 본인의 과거 경력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수능시험은 사고력 위주로 쉽게 출제하여 최소능력 검증의 도구로 활용토록 되었으며 영역별 점수만 제시함으로써 영역별 능력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력위주 사회에서 자율-다양화 시대로 교육의 긍정적 변화"

돌이켜 보건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교육방향과 내용을 지배해 온 것이 대학입시제도였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았음을 감안할 때,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의 청사진은 21세기의 사회변화 전망에 부합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언하자면, 이번의 대학입시제도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념과 철학은 다양화, 자율화, 평등화에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 개인에 관련하여 활용가능한 정보를 모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선발주체인 대학이 선발 기준과 절차 그리고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학력위주', '지체정상인 위주', '도시 우수교 위주'의 선발정책에서 특기, 인성, 장이를 우대하며 장애인, 보통의 학교를 방치하지 않는 보상적 전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은 곧 자율, 다양, 평등정신의 제도적 의지라 여겨져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이 있는 반면 몇가지 쟁점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무시험전형의 대대적인 확대가 가져올 역작용 내지 부작용과 악용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시험'에 의한 전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무시험'전형은 이러한 가치를 포기하는 대신 '교육의 참된 본질'추구라는 주관적 카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관적 관단은 자칫 잘못하면 비신뢰성, 관단착오, 의도적 조작의 소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이번에 발표된 새 대학입시제도가 국가지향 이념과 부합되고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비한 정책적 지향이라고 할 때, 앞으로의 청소년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모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즉, 학교와 교사는 더 이상 지식전달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스스로 실험하고 관찰하고 탐구하는 학습자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로 하여금 학습방법 내지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시키는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돌려야 할 것이다. 즉,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진단·파악함은 물론 학생 스스로의 학습능력 배양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것을 계발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은 퇴출시켜야 할 때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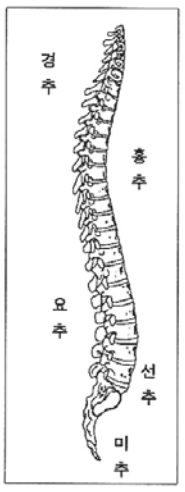
卍 天下大道육신통(육경신) 天氣道通정진대법회 卍



心力通天大道 육신통. 안,이,비,설,신,의에 입문하여 천안통,천이통,타심통,숙명통,신족통,루진통을 성취하여 저허공에 달린 대천세계신령스러운 태양의 天氣를 참마음을 가진 입문자들에게 대우주의 天氣를 백회로 입氣하면 공벽을 33초 안에 정법안장은 99초안에 태양大氣(일광변조보살)의 원력으로 눈으로 태양을 보는순간 신선,도인,선사,성현의 경지에 들어 닦은 선덕미묘법으로 천백억화신,유,불,선,도의 힘을 얻어 생애의 죄업과 인류의 영혼과 지옥의 영가해탈법과 천지만물 天氣法을 얻는 대비밀법임을 명심할지여다! 특히 경신일에는 각종병마와 혼미해진 정신과 잡신에 끄달리는 신병과 신출괴몰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 못하며 이기도는 모든 종교을 초월하여 지도자는 물론 한가지 소원과 수준높은 道를 通하여 인생으로 태어나 재벌과 총수와 황제는 못되드라도 德높은 道人에 입문하여 만인의 스승이 되여 중생구제와 도덕성 회복하는 道人이 되시며 자아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재● 양 11월 8일 (음 9.20) 해시
●해제● 양 11월 9일 (음 9.21) 해시
●회비● 1박 2일 침식제공, 편한 옷차림, 5만원.
●가도처● 서울 등작구 신대방동 360-188(구 모자원고개하차)
(주) 02-821-6622/(0)02-923-3110/016-239-3110
육신경 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度皇宮 달마심기선무기공회
대한불교 달마선원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 · 법사 · 포교원운영자 · 물리치료사 ·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2)522-1122, 011)522-1122

황토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 토굴 1 3평형 2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2-7116
FAX: 0551)283-6531

현대불교신문사
제주지사 개설을 축하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1165
T. 064)738-0710
F. 064)738-5022

21세기 인류문화 살찌울 '진리의 보고'

'21세기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장경硏 '공과 연기' 6회 세미나 열어
한국불교 세계에 알리는 초석 기대

서양철학의 사각에서 불교를 조명하고, 21세기 불교의 올바른 방향을 정리하고자 마련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세미나가 11월 14일 제6회 세미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 2월 시작한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은 총 6회 진행한 기획세미나로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함께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2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열리는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제6차 세미나에서는 허인섭박사(비백교학연구소)가 '연속과 불연속', 문을식박사(동국대 불교학부)가 '여래장 사상' 등이 발표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불교를 바라보는 동·서양의 다양한 시각을 수렴해 학술·문화의 장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 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한술·연구자료를 고려대장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 일반 네티즌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법회후원인 명단

관음사 ▶홍연화 김영모 서영화 김근모 이정옥 김정민 김정훈 김연진(대구 남구) ▶홍종현 윤여래상 홍성호 홍창호 홍정호 홍지연 박미정 윤태향 하희성 홍유림(대구 남구) ▶김광식 이재태행 김민석 김도경 김도화(대구 달성군) ▶손영화 김정자 손동표 손은주(대구 달성군) ▶이근조 김일분 이관호 오혜련 이재관 이광섭(대구 동구) ▶김경진 김정원 김정환 김정인 최혜란 김덕진 이영숙 김재원 김우원 김필균 김현수 김민지 김미성 김민희(대구 동구) ▶이반야성도규철 조희숙 조미경 성광희 조수현 조혜진(대구 동구) ▶김옥곤 김리행 김종기 이수남 김나영 김종곤 김명선 김종원(대구 동구) ▶이재원각 김정자 민현홍 민동호 민동일(대구 북구) ▶남정각 유불각도광산매화 남지월(대구 북구) ▶이상화 이진옥 이선주 이하영(대구 수성구) ▶성충섭 신정도명(대구 수성구) ▶성소엽(대구 수성구) ▶성규민 이경희 성광현 성수현(대구 수성구) ▶심경섭 장순자 김미선 김미정(대구 중구) ▶최무상화 정청안 김보륜행 정찬우 정성화 정영화 정보림 허천진성 정찬용 정자현(대구 중구) ▶유장수 임미하심 유지훈 유지영(대구 중구) ▶정기학 최대비행 정육환 정일환 정성환(대구 중구) ▶종지스님(대구 중구) ▶김영태 박수성행 김응수 한동조 김효민 김유원(대구 중구) ▶김일득 이희상 정승랑 이유열 이유형 김원미 정현숙 장정희 이재철 이재석 이재환 이재홍 이재영 이정원 이재현 이은호 이승호(대구 수성구) ▶안두래 김진욱 김장호(대구 수성구) ▶박병윤 김자연 박현모 박혜정(대구 수성구) ▶최호남 장영자 최필모 최희모 최영희 오중엽(대구 수성구) ▶허무일 박영화 허재영 허년녀 허재희(대구 수성구) ▶김태열 이말련 김재근 박미옥 김지아 김세호 김주영 유미 김지연(대구 수성구) ▶허기용 이손숙 허성일 허성문 허은정 김혜경 허진영(대구 수성구) ▶오옥희 남현육 김미현 남성욱 남영지 남경민(대구 수성구) ▶김현호 정태숙 김영도 김영옥 서수임(대구 수성구) ▶박칠양 이계장 박승위 이경숙 박기서 박민서(대구 수성구) ▶김희진 이수정 김승한 김경미(대구 수성구) ▶윤철수 하정희 윤동진 윤상선(대구 수성구) ▶신삼식 손복필 신동경 신진옥 신도윤(대구 수성구) ▶나채용 이남이 신경희 나석현 나선영 나혜정(대구 수성구) ▶김정원 정남조 김옥경 김인순 김쥰경 김애숙 김철경 최연희 김대경 손은주(대구 수성구) ▶박철수 최수희 박용준 박희경 박희선(대구 수성구) ▶이한우 우금옥 이헌국 김영숙 이혜진 이혜관 이혜정 김현수 이양진 김도일(대구 수성구) ▶신준호 임현정 신진우 신진범 신지연 신혜연(대구 중구) ▶정경표 정재표 정도현 정성호 정순주 양정수 정하니 정지연 정예정 박영희(대구 중구) ▶손대일 이정희 손문호 윤미정 손태호 윤현희 손정호 석희정 손석호 손예진(대구 중구) ▶조인재 김옥련 조경내 조현우 안은정 안성덕 안성재 안대빈 안원빈(대전 동구)

동명사 ▶이건창 이영희 이은섭 이윤진(서울 강동구) ▶김경희 김경숙 김경수 김경진(서울 강동구) ▶이원용 강명숙 이해령 이지은(서울 강동구) ▶정미현 오세정 정윤정 정우준(서울 강동구) ▶이종원 최순옥 이민우(서울 강동구) ▶김승집 천기화 김동엽 김혜수(서울 강동구) ▶신동진 김점자 신승학(서울 강동구) ▶박용정 박정자 박병관 신덕승 신경은 신경민 정순실 신규승 서은희 서영환(서울 강동구) ▶권오호 박은주 권혁성 권정희 권송이(서울 강동구) ▶유문득 유봉재 변정애 유선오 유선영 유선경 김분경 변우석 변영희 이명주(서울 강동구) ▶조도예 박상준 박상태 박혜신 유미숙 박규태 박수연(서울 강동구) ▶윤영모 하태정 윤동욱 윤동규 윤병은 양정애 하증철 김춘순 윤상철 하태형(서울 강동구) ▶김영석 김민경 이갑순(서울 광진구) ▶양종호 원일심 양혜선 양원철(서울 송파구) ▶이갈개 나경희 이관호 이석호 이석준(서울 송파구)

법해사 ▶김헌자(경기 군포시) ▶이윤직 이남규 환로광화 이등관 이용문 이보영(경기 군포시) ▶김동희 유행조 김태완 김태성(경기 군포시) ▶장순태 박재숙 장철근 장정원(경기 군포시) ▶조성현 이미숙 조영준 조영훈(경기 군포시) ▶방기선 조영숙 방주석 방주복(경기 군포시) ▶서병구 정의순 서정천 서정제 서정필 서정만 서범석 서홍석 서우석 서현욱(경기 군포시) ▶벽해스님(경기 군포시) ▶이순재 김성기 추연준 김진욱 곽상권 김은진 곽소현(경기 군포시) ▶김기돈 백귀남 김신호 김민호(경기 군포시) ▶이숙재(경기 군포시) ▶김영섭 고순미 김현승 김현지(경기 군포시) ▶한영수(경기 군포시) ▶차상천 박소애 차기영 차미애 차미라 차진효(서울 종로구)

일반 ▶박홍순 오명환 최병숙 오성진 오창윤(경기 고양시) ▶장광욱 한용찬 김옥경 한아름 한경진 한은희 박수묘 박수아(경기 고양시) ▶오호영(경기광명시) ▶윤형준 김은정 윤현주(경기 광명시) ▶이재용 배승례 이준문 이영숙(경기 광명시) ▶김영학 안용분 김정태 김경아 김광태(경기 남양주시) ▶윤종원 장은순 윤순영 윤우영(경기 남양주시) ▶김재의 정옥귀 김경원 김준식(경기 남양주시) ▶임석순 김진희 임지민 임지호(경기 양주시) ▶이대훈 강덕금 이준규 이민규 서정숙 이상규 조성희 이세희(경기 남양주시) ▶김달용 최명옥 김현기 조성자 김창원 김태원(경기 남양주시) ▶황윤중 강명숙 황태호 황태문(경기 부천시) ▶김재홍 홍순분 감국화 김인화(경기 부천시) ▶박정식 장영주 박건우(경기 부천시) ▶임도철 김정숙 임태선 임유승(경기 성남시) ▶남상근 배제인 남승우 남건욱(경기 성남시) ▶이종술 김용미 이병각 윤광희 이병육 이병나 이관희(경기 안성시) ▶김상옥 이무희 심 감창환 이일희 김은수 김완영(경기 안성시) ▶김기창 주태윤 김건호 김 원 김인숙(경기 안성시) ▶이종선 김순선 이승우 이민우(경기 안성시) ▶정희규 조은희(경기 안양시) ▶임애숙(경기 안양시) ▶류종철 박정례 류선숙 류성룡 이성자 류현호 류현지(경기 안양시) ▶김윤기 서완순 김형석 김지연 김현주(경기 안양시) ▶김길식 최오복 김현이 김명환 김현옥 김종렬(경기 안양시) ▶서정렬 이철재 김순자 이정무 이점엽(경기 양주군) ▶위갑량 강순화 위병철(경기 양주군) ▶김경순 강기영 김종옥 김인규 김찬규 김진철 김진환 임희자(경기 양주군) ▶덕현스님(경기 양주군) ▶김현주 김수영 표남희 김준환 김효진 박진설 표애희 박혜진 박창현(경기 파주시) ▶임호빈 김남수 임사혁 임대혁 임채희(경기 하남시) ▶최정식 김은숙 최병호 최병기 최대식(경기 화성군) ▶방용석(경남 거제시) ▶유병철(경남 진해시) ▶정해수 권혁수 김춘자 권원빈 권선우 권명숙(경북 경주시) ▶조주래 임명희 조민기 조민준(경북 경주시) ▶손봉하 장영미 손길성 손현애 손현숙(경북 문경시) ▶장재헌 백선희 김순동 장미혜 장용호(경북 칠곡군) ▶장재헌(경북 칠곡군) ▶최귀분 원홍연 이영희 원진선 원준석(경북 포항시) ▶송태식 김하숙 송효민 송승훈(경북 포항시) ▶윤영선 이영숙 윤선중 윤을숙 윤수정 윤수자 박양례(광주 북구) ▶광덕사 운성스님(대구 달성군) ▶김용천 고덕구 이현주 고상현(대전 유성구) ▶김영옥 박향숙(대전 중구) ▶김승영 서춘희 김상윤 김현지(대전 중구) ▶박정미 정한솔 정한결 박상종 권도숙 박형근 박성근(부산 금정구) ▶윤창훈 이숙녀 윤석련 장점숙 윤기희 윤 원 윤석열 윤상원 김계옥(부산 동구) ▶이정호 최정림 이원준 이원태(부산 동래구) ▶배향숙(부산 부산진구) ▶조 동 박준희 조승환 조영은 조민정(부산 부산진구) ▶오영희(부산 사하구) ▶손공덕림 장천진주(부산 사하구) ▶이윤준 최숙자 이승호 이승수 이승민(부산 사하구) ▶박치삼 김무애성 박성래 박선숙 박선군(부산 사하구) ▶조보리심 이적조 배선범행 이일명 이홍원(부산 서구) ▶정달만 김미숙 장수정 정찬우(부산 연제구) ▶이동훈 김난희 이장숙 정수란(부산 연제구) ▶정래상 이정자 정봉근 정보경 정소영 우동훈 정현섭 정우섭(부산 연제구) ▶강해상 김영애 강철상 강삼순 박성미(부산 영도구) ▶이수만 안정애 이자호 이언주(부산 해운대구) ▶장철용 박복련 장성혜 장은혜(부산 동구) ▶김재흡 임정미(서울 강남구) ▶조덕묵 홍화순 조병규 조수진(서울 강동구) ▶국덕중 전순옥 국종임(서울 강서구) ▶김재복 이순분 김지현 김경현(서울 강서구) ▶김수연(서울 관악구) ▶강신종 정재훈 강석형 강석윤 강영희(서울 관악구) ▶최상명 정재원 최용석 최봉균(서울 관악구) ▶최익철 방효덕 최연식 남상민 최병주(서울 관악구) ▶김진남 최응규 최숙자 최종원 최종빈(서울 광진구) ▶이문규 이정희 이진화(서울 노원구) ▶최창숙 국지현 국인호(서울 도봉구) ▶이현숙(서울 동작구) ▶박원규(서울 동작구) ▶박우홍 김동자 박순진(서울 동작구) ▶안완수 이순의 안금봉 안영실 안희정(서울 동작구) ▶이종(서울 마포구) ▶김종억 김경자 김균환 김수정 김지훈(서울 서대문구) ▶신연자 김용환 안재귀 김민선 김주환 이정인 김민준(서울 서초구) ▶장재식 이순희 장완호 장혜림(서울 성북구) ▶박동(서울 송파구) ▶장준등 주경옥 장혜상 장용상(서울 양천구) ▶이주현 박미자 이승환 이소연(서울 양천구)

대장경연구소 (02)797-0585
http://www.sutra.re.kr

참여 권유의 말

"사찰·탑짓는 불사 못지않아"

운성스님



팔만대장경 전산화.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내심 걱정이 앞섭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우리 불교의 일을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무엇인가 도움이 될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차에 현대불교신문사와 공동 진행하는 팔만대장경전산화 후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화 팔만대장경은 사찰을 짓고 탑을 만드는 불사와 함께 미래의 자손들에게 우리시대의 부처님법을 길이 전하는 미래불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님 법을 따르는 우리가 나누어 해야 할 공덕이며 21세기 인류가 나누는 보시행의 시작입니다.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불교의 미래를 담고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는 귀중한 정보로 부처님의 법이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대구 광덕사 주지〉

"우리의 문화정신 담는 법보"

원명스님



팔만대장경은 1천5백14종의 경전을 담고 고려 몽고침입의 국난극복의 정신을 담은 우리의 법보이며 문화유산입니다.

그간 해인사 장경각에서 문화유산으로 7백여년을 우리와 함께 해왔던 팔만대장경을 누구나 찾고 볼수 있게 한다는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미래세의 새로운 문화 유산을 남기는 중요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자 한자 고려시대의 숨결과 관각의 다양한 사연이 담긴 고려대장경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팔만대장경 전산화 본은 우리시대의 문화정신과 혼을 담는 민족불사이며 나아가 미래의 우리후손들과 함께 하는 우리의 정신이며 혼입니다. 따라서 그 작업은 사부대중의 발원으로 원만성취되는 21세기의 문화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빛을 발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대구 관음사 주지〉

"법명 받으니 불자 실감"



◇ "저에게도 불심을 심어주세요." 전북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에서 열린 청소년 수계법회에서 청소년 1천5백여명이 스님의 연비를 기다리고 있다.

전북지역 청소년 포교 사상 최대 규모인 37개 학교 1천5백여명의 중·고등학생이 모여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파라미타 전북지구(지구장 도영스님·금산사 주지)와 전주교사불자회(회장 이용의)는 25일 금산사에서 제2회 전법대회를 개최하고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등 중·고등학생 1천2백여명이 참여한 제1회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도영스님, 지원스님(전북 완주 송광사 주지스님), 도웅스님(전북 김제 학성암 주지) 등 수계식 계사를 맡은 스님들이 청소년들의 청법가에 맞춰 대웅전 뜰앞에 마련된 법석에 올라서는 것으로 시작했다.

계사 도영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불법의 도리는 하늘이 덮지 못할만큼 광대하고 땅이 싣지 못하며 항상 자비광명을 놓아 일체를 윤택하게 한다"며 "생명의 존귀함에서 살생을 비방하지 않는 십중대계를 지키는 불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사 스님들이 5계를 설명하며 "따르겠습니까?"라고 묻자, 1천5백여명의 청소년들은 두 손 모아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계를 수지한 청소년들은 연비하고 5계를 지키겠다는 원을 세웠다.

이번 수계법회에서는 김재석군(17), 김현정양(15)과 같은 오누이 뿐만 아니라 자매·형제 등 동기간이 수계식에 나란히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불교대학에서 매주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는 김군은 "부모님을 따라 사찰을 자주 찾았지만 아직 법명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 받은 '무상'이라는 법명 때문인지 정말로 불자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전북파라미타·교사불자회 전법대회

37개교 1500명 수계
청소년포교 초석 기대
자연보호활동도 전개



"엄마, 세상이 참 넓어 보여요!" 명성여자중학교(교장 안은자)는 22~27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체, 농·어촌, 각종 기관 체험학습' 현장 사진과 영상자료, 보고서 등을 전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에서 재학생 1천2백여명은 병영·경찰서·목장·갯벌·공장·호텔·병원 등 삶의 현장을 평균 4회 이상 방문해 일하는 기회를 가졌다. 명성여중은 지난 3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진로체험 거점학교'로 선정됐다.

미리 가 본 삶의 현장

삼중스님 EBS 출연
세상보기서 4회 법문

EBS-TV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20분부터 8시까지 40분간 EBS 세상보기 '박삼중스님' 편을 방송한다. 강의 형식의 법문으로 진행될 이 프로는 △6일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3일 '작은만남, 큰 인연' △20일 '어머니가 세상을 바꾼다' △27일 '교도소에서 바라본 세상' 등의 순서로 꾸며진다.

비행예방 명상반 운영

동대부속중학교(교장 이원주)는 11월 2일부터 26일까지 4주동안 '비행 예방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명상 프로그램은 명상으로 불안·충동 등의 감정을 완화시키고 심성훈련을 통해 자기와 타인의 이해 폭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 '건강 365일' 기사넘쳐 쉽니다.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주부신행담

포교사 된 전주댁 ①

나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랐다. 어렸을 때 있었던 보릿고개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는 명절조차 못 지내는 집이 있었다. 1백여 마지기 정도 농사를 지었던 우리집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머슴을 시켜서 누구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지 보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가족 수대로 한말 줄 집, 닷되 줄 집 등을 가려 쌀을 보내서 명절을 지내게 했다.

어머니는 처음 수확한 곡식을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올리셨다. 부처님께 올릴 쌀은 땅에 놓으면 안된다고 하셨던 어머니는 머슴들이 쌀을 찧어주면 손수 쌀을 씻고 돌을 골라내고, 깨끗이 빨아 놓은 자루에 담으셨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내면 직접 쌀자루를 이고 절을 찾으셨다. 버스도 없던 시절 어머니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가도 이틀은 족히 걸리는 곳에 있는 절에 쌀을 이고 가셨다. 절에 갔다 오시면 꼭 나에게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라고 하셨고, 나는 그저 어머님 말씀대로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렀다. 옆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참을 부르고 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머리 위에 빙긋 웃으시며 계신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림·문병성

노보살 권유로 절에 갔으나…

어머니의 불심을 지켜보며 지내던 나는 1972년 서울로 올라왔다. 생활을 위해 구멍가게를 차리고 이리 저리 옮겨 다니던 끝에 인현동 인쇄소 골목상가에 자리를 잡게 됐다. 당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자 나는 가게를 그만두고 집을 샀다. 열심히 가게를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온 몸이 아팠다. 아들이 회사에서 퇴근하면 엄마는 왜 이렇게 부시시 하냐고 할 정도로 몸도 부었다. 아들은 일하던 분이 집에만 있으니 몸이 아픈거라고 콩소 하고 싶어하던 서예를 하라며, 서예원에 등록을 해주었다.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서예원에서 글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같이 절에 다녔던 노보살이 물어물어 우리집을 찾아 오셨다. 노보살은 "전주댁, 요즘도 절에 잘 나가시지?" 하고 물으셨다. 그때 나는 절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부처님 오신날 하루나 절에 갔을 정도였다. 노보살님은 구인사라는 절을 소개하며 가자고 하셨다. 다음 날 우선 신촌 성룡사에 이끌려 갔다. 절이 참 마음에 들었다. 아, 이게 인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룡사에서는 한달에 한번 정기 법회를 봉행하고 있었다. 그날은 절에 간다고 내 나름대로 몸단장을 했다. 구멍가게를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않았던 내가 아들이 준 구두표로 새구두를 사 신고 절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절에서 화장실에 갔다와보니 내 신발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나는 총무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총무는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간 뒤에는 신발이 있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말을 믿고 차분한 마음으로 법회를 보고 나와보니 신발장에도 문에도 어디에도 내 신발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다 떨어진 신발 한 켤레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부처님 제자들이 도둑질을 하나 싶어 한동안 성룡사엘 가지 않았다.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언짢았던 것이다.

윤성애 〈서울시 양천구 신천동〉

포교·교양프로그램 강화
불교방송 가을개편… '정보가이드' 등 신설

'룸비니동산' 부활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2일 포교·교양 프로그램 강화와 어린이 프로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을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정연수의 정보가이드'(월요일~일요일, 오후6시15분~오후7시). 이 프로는 하루 동안의 주요소식을 비롯 청취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끼는 경제와 시사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알려준다.

'한밤의 명상'(월요일~일요일, 오전1시~오전1시55분)은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성현의 가르침이 소개된다. 자용스님(연화유치원 원장)이 진행을 맡아 찬불 동요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불교 용어 등을 해설해 주는 '룸비니동산'(일요일, 오후3시5분~오후4시)은 2월 개편에서 폐지됐다가 8개월만에 부활됐다.

이외에도 산사나 일터에서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일요초대석'(일요일, 오후5시20분~오후6시)과 명사들을 초청해 공개강좌를 듣는 '일요교양강좌'(일요일, 오전7시5분~오전8시)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9개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11개가 폐지됐으며 포교프로 편성비율은 44.3%에서 0.7%가 늘어난 52%대를 유지하게 됐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buddhapia shopping mall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배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016 PCS 최신기종 ·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총3000대만 준비 하였습니다.
(현재150대 남아있음)

단말기 사양 * 각 단말기 공히 신기종이며 통화감도 으뜸

모델명	G-2(한화)	4300(삼성)	4200(삼성)	4310(삼성)
크기	125×44×26㎜ (H×W×D)	116×45×23㎜	116×45×23㎜	116×45×23㎜
무게	144g (스탠 바터리 사용)	105g	105g	105g
통화시간	배터리 S 90분 배터리 M 168분 배터리 L 300분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 420분 연속통화
대기시간	배터리 S 26시간 배터리 M 48시간 배터리 L 87시간	120시간	120시간	120시간
모시는가격	60,000	115,000	120,000	120,000

* 가입비 포함

제품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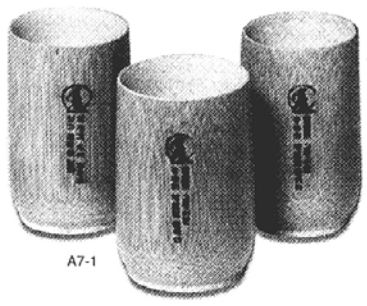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02-732-1522,737-8881
팩스:02-737-0697 / 737-0698,0696

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
농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
우체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

대나무 잔

원진 자연산 대나무로 기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빔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4.5 (가로)㎝,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일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발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쌓일 때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수월관음좌상

관음보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시어 모습의 자세나 옷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심을 변화신(變化身)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신의 모습은 응현신의 숫자만큼 삼십삼신의 여러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이를 삼십삼신의 관음(삼십삼관음신)을 33현신이라고도 한다
본 좌상은 수월관음좌상으로서 물위의 연꽃위에 앉아계시며 물에 비친 달을 관(觀)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크기 260×300(㎜)
수월관음좌상(차색)
가격 : ₩ 120,000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금색) 가격 : ₩ 99,000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 하신후 남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꽃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가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레몬향) 1set(10개) ₩ 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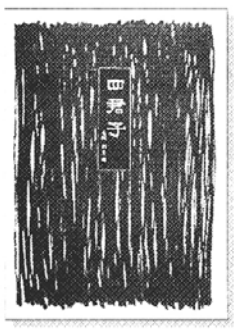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시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빙검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시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기 이난 배우는 분의 정서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격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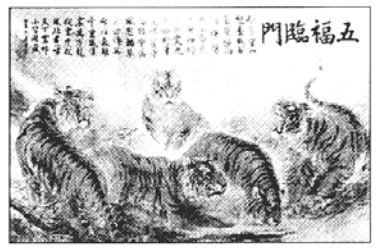


대하기 회화상의 소재로써 존이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오대(五代)부터이나 산물화조화(人物花鳥畵)의 일부 예경으로 송원회이에서 기우리 이작됐고 목탄된 소재로 당신 된 것도 복송예인으며 문기지수신수인 공인(孫仁)이었다 그는 소동파 직접전수라 교유하면서 수련된 대화나무의 싱은 그림자가 벗겨드는 것을 보고 그 소재한 맛에 시부 좋아 붓으로 형태를 그리니기 목이심대(木骨一體)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같은 시승인 묘그리는 에 의해 이목직 세계하기 시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4기 무렵 고려 중기부터 대나무와 더불어 고려기와 조선시대에 걸쳐 문인 사대부들의 심을 확충하고 정서(情緒)를 표출하는 데서도 그역 유명하다

(본문내용 중)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五福臨門 猛虎圖(오복림문 맹호도)



산속 부르는 신호에
맹호 노하여 위풍 당치니
무새들 놀라 흩어지고
여러 짐승들도 달아난다
산바람 처달리는 맹호앞에
천바람 두렵이 치니
여러 짐승들은 두려움에 떤다
시방의 신아는
싸늘히 부르르고
해진넉 찬바람은
댓닢은 흩날리는데
어지러운 세파에 맹호의
응대한 기상은
천만리에 위용을 떨친다
중은 사방을 진동한다지만
맹호는 구름과 같이 어울린다
호풍이 한번 휩자게 불 때
천하의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놀라 쥐 구멍을 찾는다

응 도 액자용
크 기 52㎝ x 61㎝
가 격 : ₩ 6,000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하나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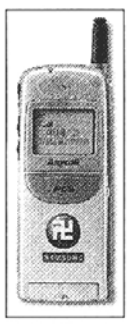


응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야외 기도, 기정 기도, 제사, 신소품 용도다양
포장재질
천연 오동나무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비람막이2개

가격 : 1세트 ₩ 2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히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산하며 뇌종양 유산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리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통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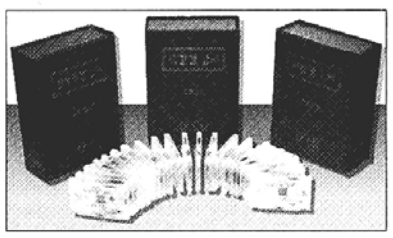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용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막서 등과 우액파
규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비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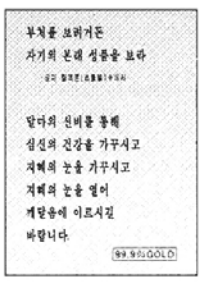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기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기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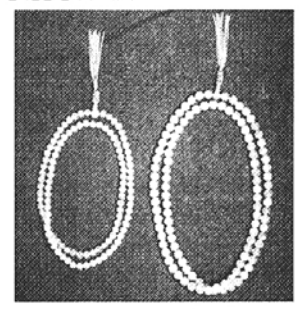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펌이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x 7㎝
가 격 : ₩ 20,000

순금 99.9%

건강 옥 염주

옥은 군자의 길에 비기며 회남자(淮南子)에는 친지의 정(情)이라고 하였다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 두통 스화풍 랑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부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추석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종 류 청옥 택옥염주(小) ₩ 30,000
청옥 택옥염주(大) ₩ 40,00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가격 ₩ 5,000
색상 자주색
재질 T/C (면 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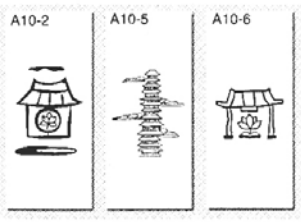
거산죽염 - 선조들의 비전 비방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健康鹽(건강염)제조 비방에서 전래된것으로 생명유지의 필수물가결한 鹽性(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염입니다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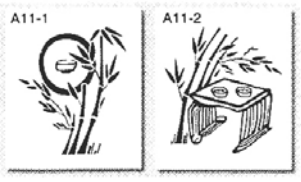
기도포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특이 넓어졌습니다 기도하실때 한걸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반야심경 종 차겔이

왔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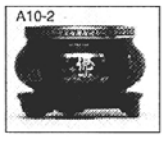
※ 별보시 희실 경우 할인 가능 합니다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컬라 디자인



종 류 검정, 밤색, 흰색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직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앞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재질 동
특징 수공에 작품
규격 39㎝×43㎝

가격 : ₩ 50,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얼굴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심독에서 벗어날 뿐만 이나라 모든 소원이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을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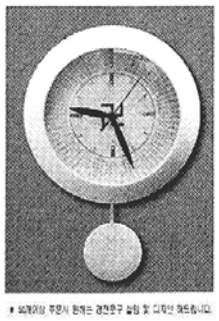


색상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로킹
특징 변색이 없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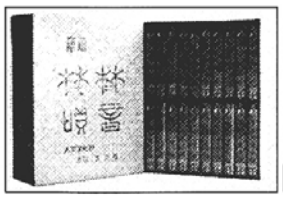
· 육비라밀 생시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 택색원관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 외제이상 주문시 원제는 경전문구 실림 및 디자인 제도됩니다.

가격 ₩ 15,000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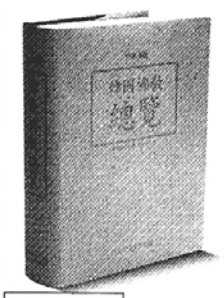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통공의식, 심신이운 영신작법, 대령, 관욕 외식등 분야별로 녹음 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심신이운
3. 신징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욕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목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명진점인
20. 증성 · 천수작법 · 요잡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1) 한국불교의 현황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익숙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기적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브크린"은 강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대신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수수된 참문하고 현덕이 된다지 부여된 참단생물공학적 고가 음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중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집균작업자 및 오염물질들을 친숙하게 제거해 주는 "오브크린" 천연이점이 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한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균비누는 이질등 수종이지된 "오브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참문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스럽게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제대 이이지어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법회안내



보광스님(해인사 주지)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능인선원 큰스님초청법회. (02)577-5800



지광스님(능인선원 주지) 5일 동국대 사회교육원 초청 특강. 8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능인선원 대법당 수험생을 위한 특별법회 28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보살계 수계 대법회. (02)577-5800



청학스님(길상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길상사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청년회법회. 매월 세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거사림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02)3672-5945

일광스님(자비정사 주지)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7일 오전 10시 정진기도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거사회법회. (062)234-0879

한정섭법사(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4일 수요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 11월 다보법회. (02)703-010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1월5일 (목)

■백련사 청화스님 초청법회=전남 무안군 백련사는 오후 1시 30분~3시까지 대법당에서 청화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나아갈 방향 세미나=21세기불교연합회는 오후 2시 하림각에서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나아갈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6-9948

■미얀마 고승초청 국제 보살계법회=하늘개인날 포교원은 오전 10시 미얀마 고승초청국제 보살계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한다. (051)513-5874

■대구 불교사회교육원 불교기초교리강좌=대구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불교기초교리반을 개강한다. 3개월간 매주 목요일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진행된다. (053)784-3669

■제1회 부산BBS불교합창제=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부산불교방송주최로 제1회 BBS불교합창제가 열린다. (051)644-5114

11월6일 (금)



◇삼화불교대학은 유아포교 교재교구를 3층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교구 전시회=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은 7일까지 삼화불교대학 3층 전시실에서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교구 전시회를 연다. 절 찾아가기, 삼독심 없애기, 범종찾기, 어린이오계, 우리절 돌아보기, 육바라밀 알기, 부처님 일대기, 스님 다녀오세요, 불교퍼즐, 동자스님 길찾기 등 유아들이 불교를 친숙하게 느끼고 익힐수 있는 교재 교구들이 다수 전시된다. (02)511-2026

■국제선무학회 학술세미나=국제선무학회는 '선과 현대생활' 학술세미나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연다. (0653)850-6619

■'열반신앙과 그 미술' 학술발표회=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는 제3회 정기학술발표회를 연다. 주제는 '열반신앙과 그 미술'. (0335)330-2851

■1백일기도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월악산 청련암은 오전 10시 1백일 기도 입재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안한다. (0444)422-1330

11월7일 (토)

■송광사 쌍봉사 운주사 순례=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8일까지 승보사찰이자 참선도량인 순천 송광사와 우리나라 부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철감선사 도윤의 부도가 있는 화순 쌍봉사, 도선국사 비기가 숨겨진 천불천탑 도량 운주사를 순례한다. (02)725-1284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 예술제=한마음선원 광주지원(주지 혜월)은 제2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제를 광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062)373-8801

■서울불교청년회 대성사 정진법회=오후 7시 우면산 대성사에서 대성사 청년회와 함께 정진법회를 갖는다. (02)730-9108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 창립 2돌법회=오후 2시 대구 대명동 불광사에서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지부장 심업) 창립 2돌 기념법회 및 축하공연이 열린다. (053)6560-911

11월8일 (일)

■대불련 부산지부 창립 34돌 대불련제=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오전 10시 30분 신라대학교 인문관 529호에서 창립 34주년 기념 대불련제를 갖는다. (051)469-0458

■능인선원 3천배 철야기도=오후 8시 능인선원 법당에서 3천배 철야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2)577-5800

■불연 이기영박사 2주기 추모법회=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는 오전 11시 연구원 구도법당 원효문고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 2주기 추모법회 및 〈불교개론강의〉 출판기념회를 봉행한다. (02)3411-6167

■법흥사 중흥불사 천일기도=영월 적멸보궁 법흥사(주지 도완)는 오전 10시 중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및 10만등 불사를 봉행한다. (0373)374-9177

11월10일 (화)

■영주 부석사 참배=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한국건축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부석사 무량수전과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찾아 답사를 떠난다. (02)275-4333

게 시 판

♣ 알림

△풍경소리 일일찻집=좋은벗 풍경소리는 찬불동요제작기금마련 작품전시회 및 일일찻집을 8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연다. (02)242-2567

△구인구직 알선=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구인구직 알선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이용료는 무료. (02)852-0525

△무료진료 및 상담=능인종합복지관은 15일 복지관 202호에서 한방 무료진료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02)577-5800

♣ 모집

△생활일어회화=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일어회화 및 문법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02)421-6077

△요리아간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한, 일, 중, 양식 손님 접대음식 조리법을 지도하는 직장인 요리 야간반을 모집한다. 3개월 과정으로 11월 개강. (02)852-0525

△성훈 따주기 수강생=수효사는 제28기 성훈따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일 개강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수효사 문화원에서 지도한다. (02)313-3060

△소년소녀 합창·무용단원=불교교육연구원은 제6기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과 무용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생~고등학교 2학년생까지며 15일까지 접수한다. (02)725-2527

△방과후 교실 자원봉사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방과후 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1~2회 초등학생의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보조하면 된다. (02)806-1377

△회망의 집 입소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성실직노숙자를 위한 희망의집 입소자를 모집한다. 급식, 잠자리, 미용, 상담, 귀향, 의료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낮시간 공공근로 등 취부업을 알선한다. (02)817-8052

△발반사 강좌 수강생=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6일부터 발반사건강요법 및 항기요법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53)784-3669

△실직자 겨울나기 물품접수=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자 겨울나기를 위한 물품후원을 접수한다. 남자 성인 겉옷, 신발, 속옷등. (02)282-1100

△머리미용·컴퓨터 자격증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주, 야간 머리미용,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을 모집한다. 4개월과정으로 수강료는 월 3만7천원이다. (02)817-8052

△청년회 회원=광주 무각사 불교청년회(회장 박근완)에서는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20세 이상 남녀불자이며 법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무각사 대웅전. (062)383-0108

△신바람 노인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낮 12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바람 노인교실을 연다. (02)577-5800

♣ 답사

△동해안 영동지방 사찰=강원문화 바로보기 연구회는 동해안 영동지방을 불교문화순례지로 정착시키고자 제1회 동해안 사찰순례 답사여행을 실시한다. 낙산사, 건봉사, 봉정암, 신흥사 등을 참배한다. 매일 출발 (0392)637-0638

♣ 화촉

△국민회의 연등회 대외협력국장 이상곤씨가 7일 토요일 오후 2시 마포 불교방송국 3층 공개홀에서 김보현양과 화촉을 밝힌다.

종단소식

조계종

팔만대장경 보살계법회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2일부터 3일까지 경내에서 팔만대장경 수호 보살계수계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장경이운 6백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법회는 2일 만등점화, 보살계법문, 영가천도가, 3일에는 영가시식, 괘불봉안, 수계식 등이 각각 진행됐다. 한편 몽탑선원(원장 장산)은 3일 고암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정진 및 만일미타기도법회를 봉행했다.

화암사 십대왕상 봉안

강원 고성 금강산 화암사(주지 동선)는 10월 28일 명부전(지장전) 십대왕상 영가천도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 이날 화암사는 명부전에 1m 크기의 염라대왕등 10대 왕상을 봉안했다.

태고종

보성스님 49일 추모대재



제 15세 종정 보성스님 열반 49일 추모대재 및 사리친견법회가 10월 21일 원주 보림사에서 봉행됐다.

선암사 운영규정 제정키로

총무원(원장 인곡)은 27일 선암사에서 제1차 선암사운영위원회를 열고 선암사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인곡(위원장) 지암(선암사 부주지) 보안(총무원 부원장) 지허(총무원 정수원장) 등표(선암사 재적승) 지성(총무원 총무부장) 월해(대전종무원장)스님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12월에 열릴 정기 중앙종회에 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행자 142명 수계산림

제22회 합동득도수계산림이 남행자 118명 여행자 24명 등 총 142명의 행자승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7일 선암사에서 열렸다. 수계산림은 11월16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천태종

문장사 지관전 낙성식



문경 문장사(주지 래장)는 10월 17일 지관전 낙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운덕총무원장을 비롯 김학문 문경시장, 신국환 자민련 문경예천위원장, 이시하 도의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선대열반스승 추념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10월 21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선대열반스승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한 2백여명의 전국 스승들은 중생교화와 종단발전을 위해 한 생을 바치고 열반에 든 선대 스승들의 유덕을 기렸다.

관음종

태허 대종사 탄신 94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0월 15일 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홍선 대종사 탄신 94주기를 맞아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또 수산스님(경기종무원장)과 대홍스님(경기종무원 부원장)의 태허문도 입실건당식과 5명의 수계 득도식도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혜웅 원로원장 스님을 비롯 각도 종무원장, 문도 및 소속사암 주지 등 3백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청송스님 취임



총무원은 제5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청송스님의 취임법회를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하림각에서 가졌다. 청송스님은 1958년 월하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92년 종회부의장, 95년 경남교구 종회의장, 96년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듦.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氣가 통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진다

●全身氣通의 오묘한 功法-천문을 통해 氣가 들어오면 병기, 사기, 탁기가 빠져나오며 명문혈에서는 옷자락이 펄럭일 정도로 찬기운이 빠져나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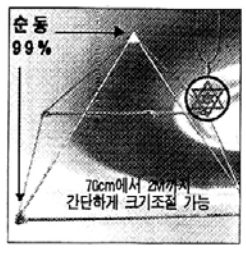
●누구나 좋은 집터, 명당을 얻는다 - 한 유명한 지관이 길을 가다 분묘에 서본다. 이윽지리에 분묘는 명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좌향이 15 틀어져 아무리 이 자리가 명당일지라도 그 자손이 비참하게 멸망하는데…「이 묘 쓰고 크게 번영했는데 사초하고 망했구먼」 집안청년 17명이 1년내 죽어 버렸고 재산은 모두 탕진했습니다.

●암, 당뇨요법 - 이제껏 이 자료를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어느 대학교수가 뇌종양환자의 치료를 한다고 나의 문헌을 요구해왔다.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었던 바 그 교수는 수개월후에 제약회사에 갖고가서 신약을 발표, 의학박사 학위를 획득,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자료는 개업의에서부터 여러 대학의 의사들이 노력도 하지않고 박사학위를 획득하는 제물이 되어 버리므로 공표를 굳게 거절해왔다.

●숯가루요법, 설사, 장염 ●히란야 육각성의 기적
●氣功治病秘法 ●소주천 속성법의 비밀
●氣주입법(미국 일본 등에 알려진 氣주입법)

기적의 육각성 피라미드

최근 피라미드가 인체의 피로회복·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신비의 피라밋 파워를 이용 건강증진, 기수련, 질병치유 촉진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책자 정가 ; ₩10,000 ·우체국: 014092-0035728-17(김건순)

氣功研究會 ☎ 02)455-6944/453-5851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가을 호 제7호(통권 제27호)

지상강연 교육학자, 김종서 박사에게 듣는다
21세기를 대응하는 불교교육

특집 IMF시대 이후 불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불교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제언
1 불교계의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 불교계의 재정운용 현황과 실태
3 타종교의 예
- 천주교
- 개신교
- 원불교
4 심보정재 관리의 모범사례 및 제언

특별기획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❺
행동하는 불교지성, 월폴라 라훌라 스님
- 1997년 입적한 월폴라 라훌라 스님
동서양을 두루 섭렵하며 현대를 대표하는 불교 지성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끊임없이 깨우침을 실천해오신 스님의 삶, 그리고 그가 추구한 불교지성인의 역할과 수행자로서의 수행법을 조명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불교 사상을 살펴본다.

한국의 미 ❺ 한국의 담과 굴뚝

칼라화보 사진으로보는 성보기행 ❼ / 명부전의 이모저모
죽음의 문화 - 그 빛과 그늘

山寺古談 ❸ 마음으로 자비를 깨치신 산부처, 청담 큰스님

특별기고 다시 종교편향문제를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불교편향과 훼불사건 자료-훼불사건 일지

불교계진단 ❺ 현행 불사(佛事)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현재 불교계에서 빚이고 있는 각양각색의 불사를 점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지상중계 강건기 교수의 불교와 기독교 ❶
지혜의 길, 믿음의 길

고전산책 선논쟁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❷
지난 호 추사의 편지글(證白坡書)에 이어 이번 호에는 백파 스님의 편지글 (김좌판 정희에게 답함)을 소개한다.

발굴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생태탐사기 조계산 송광사와 선암사 주변의 자연생태

불교계 주요일지(1998.6 - 9)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불교와 문화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편집실(02)719-2606,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 - 719 - 1855, Fax. 02 - 719 - 5052

강원지역 복지불사 '바람'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 실직자 가정돕기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와 군인봉사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쌀을 보시받고 있다.

[원주] 천태종 청소년수련원 착공
[평창] 월정사 진부유치원 건립중
신흥사 · 강룡사 주민복지관 추진

강원 불교계의 복지 및 사회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다지기가 한창이다. 현재 강원도내에 설립중인 복지시설은 원주의 천태종 청소년수련원을 비롯 평창 월정사의 진부유치원, 홍천 강룡사의 불교복지회관 등이다.

천태종(원장 운덕)이 원주시 행구동 3만여평의 부지에 설립중인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건축불사에 착수했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을 비롯 체력단련장, 민속놀이장, 강당 등이 들어선다.

평창 월정사(주지 현해)는 진부면 송정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진부유치원을 건립중에 있다. 7백50여평의 규모로 내년초 완공예정인 진부유치원은 어린이집, 독서실, 예식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홍천 강룡사(주지 월도)가 사찰 인근 8백50여평의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불교복지회관은 유치원, 예식장, 강당, 법당,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도 불교복지회관은 노인들의 신행 및 휴식공간 등을 비롯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지 월도스님은 "강원불교계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교계가 그만큼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포교및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강원불교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속초 신흥사가 춘천에 불교복지회관을, 춘천 삼운사가 종합불교회관을, 영월 삼태사가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강원지역 복지시설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강릉자비복지원, 원주 자연학습원, 양양 보리수마을 등 90% 이상이 위탁 및 수용시설이다. 반면 현재 추진중인 시설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복리및 편의시설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형적인 조건으로 도시의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불교계의 영향력이 저조했던 강원불교계. 최근들어 사찰을 중심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교계의 복지시설 바람은 강원불교계의 새로운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용주사 수원포교당



◇만불보전 내부 불사가 한창인 용주사 수원포교당 물교문 화원. 원내는 주지 성관스님.

종합도량 '불교문화원' 건립

효행의 도시 수원에 최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포교공간이 건립되고 있다.

불자들의 신행 · 문화 · 교육 · 포교 등의 종합공간으로 조성되는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불교문화원이 바로 그것. 불교문화원 불사는 전 신도들의 발의로 대법당인 만불보전이 극장식 형태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신도회를 중심으로 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송춘섭 · 신도회장)를 결성하고 92년 불사에 착수한 불교문화원은 현재 지하1층 지상 1~2층 불사를 마무리하고 만불보전 내부불사가 한창이다.

극장식 5층 만불법당
신행 · 교육 · 문화공간
내부공사중…내년 완공

연건평 9백5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로 조성되는 불교문화원은 지하 1층에 예식장 및 문화공간이, 1층에 종무소와 신도들의 휴식공간인 청한산방, 탁아방, 신도회 사무실 등이, 2층에는 어린이 청년회 등 각 신행단체들의 법회장으로 사용하게 될 소법당과 스님들의 방사가 들어선다. 특히 3층부터 5층까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극장식 대법당인 만불보전이 웅장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만불보전 내부 3면은 불상으로 조성된다. 상단에는 삼존불과 협시보살이, 그 윗쪽에는 지장보살상 3백14구가 봉안된다. 또 좌우측에는 원불 5천6백80구가 감실형태로 들어선다.

1천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불보전은 일반법회 뿐만 아니라 연극공연, 영화상영, 시청각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이를위해 만불보전에는 최신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이 설치된다.

성관스님은 "포교 도량으로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전통식 법당은 한계가 있다"며 "불교문화원은 신행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활동 등 포교의 현대화를 위한 신 포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20년 '용주사 포교소'로 창건되면서 일요법회를 개설하는 등 도심속에서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70여년동안 포교활동의 선구자로써 각종 포교활동에 매진해 온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이 완공되면 불법에 메마른 수원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감로법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

'직지찾는진로소주'
'참통' 뒷면에 홍보 상표

진로소주가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찾기운동에 나섰다.

(株)진로(대표이사 김선중)는 민족문화유산 보존사업의 하나로 직지찾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참나무통 맑은 소주 뒷면에 '민족의 자랑, 직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보조상표를 부착 10월22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이 상표엔 직지를 찾는 방법, 연락처 등과 직지찾기 운동본부가 직지 소재 제보자에게 1천만원, 직지 대여자에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건 사실을 소개하고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소년가장 돕기 합창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는 7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제2회 소년 · 소녀가장돕기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제'를 개최한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이번 합창제에서는 30여명의 어린이 불자로 구성된 합창단(지휘 이선안)이 '이 작은 생명을'(황학현 글 · 유익상 곡), '정신발전의 길'(대행스님 글 · 박범훈 곡), '비오는 오솔길'(신혁득 글 · 김남삼 곡) 등 15곡을 발표한다.

(062)373-8801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충주 자혜방생원 낙성
도안사 "무의탁 노인시설 · 기도도량 활용"

충북 충주시 충주호에 무의탁 노인시설 자혜방생원이 건립됐다.

상계동 도안사(주지 혜자)는 10월 27일 충주 자혜방생원에서 법동(도안사 조실), 혜성(지장사 주지), 현성(현성정사 주지)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혜방생원 낙성식 및 수월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95년 불사를 시작한 자혜방생원은 건평 3백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1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이, 2 · 3층에는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20여개의 방사, 3층에는 대법당 등 최신식 시설로 갖추어져 있다.

한편 자혜방생원은 이날 옥탑에 수월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점안식을 가졌다.

혜자스님은 "은사이신 청담스님을 시봉하면서 인연이 된 윤무루행보살의 대시주와 도안사 신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됐다"며 "자혜방생원을 복지시설 수련원 기도도량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도안사는 10월27일 충주에 무의탁 노인 복지시설인 자혜 방생원 낙성식을 봉행했다.

광주사암련 새회장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새 회장에 천운스님이 추대됐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10월 21일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제12대 회장에 천운 향림사 조실스님을 추대했다.

이번 새회장 추대는 회장 현지스님이 송광사 주지 취임과 관련, 9월 14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치뤄졌다.

김중근 기자

영남 불교대학 새학사 기공
5백평 지상 5층 규모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주지 우학)는 11월초 새법당 신축사 기공식을 거행한다.

새법당은 기존의 법당을 단계적으로 헐고 대지 5백평 연건평 1천8백평에 지하 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지하에는 식당이, 1층에는 종무소 서점 다실이, 2층은 시민선방 예식장 문화공간이, 3 · 4층에는 강의실겸 법당이, 5층에는 전용법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법당에는 1차로 3천기의 청동좌불 및 보살상이 봉안되며 2~3차에 걸쳐 모두 1만기의 불상을 봉안한다는 계획이다.

이윤호 기자

법륜교수불자회 10돌

대구 법륜교수불자회(회장 신준식)는 8일 청도 운문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의 법문, 주운숙 명창과 대금연주자 김경애씨 등이 출연하여 판스리 '홍부가', 민요,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국악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윤호 기자

청소년 산사 문화체험교실
부산 불교신도회
내년 1월21일부터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10월 26일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10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불교청소년 산사문화체험교실(안)'를 실시키로 했다.

5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청소년 산사문화체험교실 기획안'을 최종확정하는등 신도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불교청소년 산사문화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이 산사를 찾아 역사와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하여 포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내년 1월 21일 부산일대 사찰을 선정, 첫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날 부산불교신도회는 부산중학생불교연합회, 부산고등학생불교연합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등에 총 5백만원의 포교기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구 남구 자활센터 개원
실직자 취업 알선등 활용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는 남구자활지원센터가 3일 남구 이천동 희망의 집에서 개원됐다.

자활센터는 저소득층과 실직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취업알선, 자영창업자 지원, 인력파견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자활센터는 연건평 1백50여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작업장 작업교육실, 체력단련실, 무료급식소 등이 들어서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미래불교 초석되자"
통도사 1353돌 개산재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주지 월파)는 10월 28일 설법전에서 1353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괘불 이운식, 연고재, 개산대재 법요식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청하 영축총림 부방장, 이주경 경남도 부주지사 등이 참석해 개산조 자장율사의 뜻을 기렸다.

법요식에 이어 통도사 말사 부설 유치원생들의 천수경 독송, 아리랑, 춤 등의 재롱잔치와 합창단 경연대회 등을 통해 불자들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천미희 기자

은해사 보살계 법회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10월 25일 창건 1189주년 개산대재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앞서 은해사는 높이 3.5m, 넓이 1.5m 크기의 은해사 입석 제막식을 가진뒤 운부암 선원 '운부단아'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은해사는 이날 만등불사 점등 및 지장보살 점안식도 거행했으며 말사인 거조암은 10월 26일 오백나한재를 봉행했다.

이윤호 기자

위기극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삼매체험 선禪수련회 개최

'98 겨울 지도자 스님 일반인 청소년 수련생 모집

산과 바다가 맞닿은 청정한 한라산 산하 제주에서 참선의 진수를 맛볼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선생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학생과 일반인 법회를 맡아 지도하는 스님 등을 대상으로 단기로 참선을 체험하고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최근 753불의 위불을 당한 원명선원에 본부를 두고, 참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이 참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취지 : 맹목적이고 타성에 젖은 삶 속에 과연 사람의 삶, '내'가 있습니까. 내가 실종된 세상에서 의욕과 용기가 있습니까. 참선생활운동본부에서는 누구나 곧 바로 마음 자리를 닦아 삼매를 체험할 수 있는 3박 4일의 수행후 일상생활(직장 가정 학교 사회)속에서 순간 순간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길, 인간을 찾을 것입니다.

◆ 특징 : 참선 수련이 어렵거나 극기와 같은 힘든 수련이 아니며 수련후 일상 생활중에 실천이 가능함.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참선을 체험할 수 있음. 묵은 때는 벗고 생활의 활기를 찾으며 매 순간 분위기 전환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음.

◆ 각종법회 지도하는 스님대상 특별수행체험 기회 마련함. 학생(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생) 및 성인법회를 지도하는 스님 위주로 하며, 참선을 새로 시작하는 스님과 참선 접근이 어려운 스님들을 위하여 개인점검도 갖는 수행 기회를 가짐

◆ 신청서류/일반/청소년 1.성명(한글, 한자) 2.주소 3.전화(자택, 직장, 휴대전화) 4.종교 5.주민등록번호 6.직업/청소년:학교(과)반 7.참가동기 8.수련회참가경험 유 · 무(유경험자는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를 지망 차수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기재(일정표참조)

◆ 신청서류/스님 : 1.법명(한글,한자) 2.법회지도사찰과대상 3.거주사찰(또는 소속교육기관, 강원등) · 4.참가이유 5.승려번호 6.참선정진경험유 · 무 7.선방안거유 · 무(언제 어느선방) 8.희망차수

◆ 자원봉사신청 : 매차수별 7명내외 ●동참금 8만원(일반, 스님)/6만원(학생)

◆ 참가확정통보 : 일반인, 청소년 12월 10일까지/ 스님-11월 30일까지 개별통보(통보받은후 불참사유가 생겼을 경우는 일반인, 청소년은 12월 15일까지 스님은 12월 5일까지 필히 불참 연락바람)

◆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묵언, 법문, 행선20분, 좌선20분, 예불, 선문독송(염송, 염송글사경)

◆ 장소 및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본부(제주교대옆, 공항에서 함덕 또는 동회선 시내, 좌석버스 제주교대하차) ☎ 064)755-3322 전송 064-755-8913

선수련회일정표	차수	기 간	인 원	신청기간	대 상	연 령 외
	1차	98.12.8 ~ 10	50명	10.20 ~ 11.10	스님	법회지도자, 희망하는 스님
	2차	15 ~ 17	50명	〃	스님	
	3차	23 ~ 26	100명	10.20 ~ 11.30	일반인	65세이하
	4차	27 ~ 30	150명	〃	청소년	학생
	5차	99. 1.1 ~ 4	100명	〃	일반인	65세이하
	6차	7 ~ 10	〃	〃	〃	〃
	7차	14 ~ 17	〃	〃	〃	〃
	8차	21 ~ 24	〃	〃	〃	〃

참선생활운동본부

제주시 화북1동 4684 한라산 조계종 원명선원 ☎064)755-3322

10만배 기도운동 '확산'

본지게재 김병규씨 '수행일기' 읽고 감동
우리는선우 제천지회 80여회원 동참

'10만배 기도운동이 재가불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선우 제천지회 김연호 회장(진주동물병원장)이 9월 4일부터 하루 2천배를 하며 50일간 10만배 기도정진을 회향했으며, 송현선교수(세명대 전기공학과), 권선보살, 김은수양(세명한의대 본과4년), 해태보살, 김영돈학생이 김회장의 뒤를 이어 10만배 기도정진에 동참했다.

이들은 10만배 기도를 도반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작은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29일 제천관광호텔에는 강원도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온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애초 30여명을 예약했으나 8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법회는 본지 '수행일기 〈187~189호〉'란에 실린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10만배 수행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정진 하겠다는 염원을 가진 제천불교거사림회, 우리는선우 제천지회, 백련사·강천사 신도회, 세명대교수불자회가 마련한 김병규 논설위원 초청법회.



◇우리는선우 제천지회 등 제천지역 신행단체들은 10월 29일 김병규위원 초청법회를 열고 10만배 수행결사를 시작했다.

김위원은 이날 "마음의 개혁만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으며, 마음의 개혁은 기도와 정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위원은 "생활이든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건 잠재력과 직관력을 길러주는 요가의 압축관인 절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매일 매일 새로운 탄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며 "절을 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보는 평상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기도정진을 통해 저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회를 주관한 김연호회장은 "사회가 침울하고 어두울수록 불자들이 더욱 수행에 힘써야 한다"며 "21세기를 맞아 10만배 수행결사가 제천에서 시작돼 한국불교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가한 백련사신도회 송동혁회장은 "막막하게만 여겨졌던 수행길을 터준 것 같다"며 "김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10만배 기도정진의 원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동안 책으로만 불교공부를 해왔다는 이경은씨(SBS 방송작가, 경기도 과천)도 "남편과 함께 10만배 정진하며 향기로운 글을 남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축대돌로 방치됐던 팔공산 마애약사불이 서울 길상사에 봉안된다.

팔공산 축대돌로 방치됐던 약사불
길상사에 모셨다

팔공산자락의 축대돌로 방치돼 있던 마애약사불이 길상사로 이운됐다.

10월 25일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이근후회장(이대의대 교수), 서현 답사부장, 김종욱 대구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길상사 영선스님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에게 이운을 알리는 고불식을 가졌다. 고불식에 이어 불상주변 축대를 해체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석불을 드러내는 작업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 석불은 2년 전 김종욱씨가 대구교육원 운동장에 축대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이근후회장에게 제보했다. 이회장은 조계종총무원과 여러 사찰에 공문을 보내 부처님을 모실 곳을 찾았으나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0월초 길상사 주지 청학스님이 이회장에게 돌부처 모시기 원을 밝히면서 길상사와 인연을 맺게 됐다.

〈본지 137호 4면 참조〉

최초 발견자인 김종욱씨는 "부처님이 제자리를 찾아가니 불자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길상사주지 청학스님은 "좌대를 새로 만든 뒤 11월말 점안식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포교사단
11·12월 포교사 교육

사찰안내, 상담 등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이 11, 12월 두 달 동안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10월 29일 "포교활동 영역과 계층이 다양화함에 따라 전문화된 포교인력 배출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며 교육일정을 밝혔다.

포교사단은 또 포교사제도 개선을 위한 2, 3차 토론회를 4일과 17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뉴스 & 뉴스

조계종교육원 교직자연찬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 불학연구소는 10월 27일 성북동 길상사 극락전에서 전국 승가대학 교수스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자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승국스님(송광사 교수)은 '1학년 사미과 교재의 구성에 대한 검토-현 종국찬술 치문 구성을 한국찬술로 대체하는 방안' 발제에서 "한국스님들의 교학과 수행을 담은 한국치문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교재는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한국스님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원은 10월 2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역경연찬회도 가졌다.

이온자 기자(ejlee@buddhapia.com)

원각사 노인급식소 개원

서울 원각사(주지 보리스님)는 10월 27일 오전 원각사지 탑골공원에서 '보물 제3호 원각사비 비각 준공기념 및 원각사 향적료 개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므(이천 영월암 주석), 고옹(청량산 각화선원 원장), 송월(진주 송원사)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원각사 공양간의 옛 명칭을 딴 '향적료'는 공원인근 종로구 낙원동 220번지에 소재한 30평 규모의 노인 무료급식소로서 매일 4~5백명의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공양을 실시하게 된다. (02)741-8822 김재경 기자

'종교계 사회복지' 심포지엄

지난 6월 창립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11월4일 오후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각 교단의 사회복지활동의 교의적 근거'를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갖는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참여교단으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예장통합, 기감, 기장,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원불교 등 8개 교단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법사연합회 연석회의

한국불교법사연합회(공동대표 선진규 한정섭 정병조)는 11일 송현클럽에서 회장단 고문 지도위원 연석회를 열고 재정마련 방안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법사연합회는 지난 6월 창립 때 전개키로 했던 △법사품계 제정 △포교당 운영지원 △법사연수과정 운영 등을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자비의 쌀 26세대 전달

새불고운동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진관, 석담)는 10월27일 도봉구 안골마을 실직자 및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26세대에 자비의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봉은사 초하루법회 때 모은 40kg짜리 쌀 20가마를 비롯 총 26가마로 자민련 도봉을 지구당을 통해 전달됐다. 도필선 기자

노인휴양원 '양지정사' 개원

성남포교원, 용인에

전국불교신도회 경기도지부 성남포교원(주지법사 임선교)은 11월1일 경기 용인 주북4리에 유료 노인휴양원 양지정사를 개원한다.

7백5(평의 정원을 갖춘 한옥식 건물로 이뤄진 양지정사에는 아미타부처님이 봉안돼 있는 법당과 방 7개, 운동기구실,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어 10명의 할머니를 모실 수 있다. 또 매월1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의 도움으로 무료 정기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성남포교원 소속 불자 중 수지침과 안마, 뜸 등의 기능을 갖춘 불자들이 봉사반을 운영, 매주 1회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성남포교원은 이와함께 11월15일 양지정사 법당의 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와 동시에 인근 산자락에 세워질 1백50명 수용규모의 노인요양원 기공식을 갖는다. 1천5백여평의 대지에 4층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이 요양원에는 무의탁 노인들도 수용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총장재임반대 성명
동국대 학생-교수회

지난달 22일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차기 총장에 재선출된 것과 관련, 교수회와 직원노조,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회는 차기총장 재임결정을 철회하고, 이번 결정의 책임을 지고 이사 및 송석구 총장은 사퇴하라"고 천명했다. 특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10월26일 이사장실을 점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송석구 총장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내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대학과 법과대학, 의료원은 10월27일 각각 이사회의 결정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박세리 계룡산 동월선원 참배



골프 여왕 박세리선수가 28일 고교시절 세계적 골프스타의 꿈을 키우며 자주 찾아가 마음을 다스렸던 계룡산 자락의 동월선원(주지 석암스님)을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월선원은 아버지 박준철씨와 어머니 김정숙여사가 딸을 미국 무대에 보낸뒤 지성으로 불공을 드렸던 곳이기도 하다.

박선수는 "부처님의 가피가 오늘의 나를 있게한 원동력이다"며 "어려운 고비때마다 참선과 기도로 이겨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남북불교합동 윤이상추모재

4일 평양 법운사

남북불교계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故 윤이상 선생의 위대한 생애와 조국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기리기 위한 '남북불교합동추모재'를 11월4일 평양 용악산 법운암(예정)에서 봉행한다.

한편, 추모재에 앞서 11월3일부터 평양에서는 남북한 음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이상 통일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는 5일까지 계속되며,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과 명창 안숙선씨 등이 남측 음악인 11명과 함께 31일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다.

고문 정산스님과 상임부회장 지현정사(진각복지회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정산스님과 지현정사는 10월31일 7박8일의 일정으로 베이징을 통해 방북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목탁소리

대입기도 동참 현수막

이 경 숙 〈취재2부 부장〉

수능을 앞둔 이때쯤이면 예외없이 각 일간지의 1면 톱을 장식하는 사진이 있다. 대입 자녀들을 위해 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들 사진이다. 이러한 사진을 볼 때면 자녀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원이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왠지 씁쓰레하다. 절이라는 곳이 대학입시를 위해 북을 비는 곳이란 인상을 온 국민들에게 주는 것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의 한 사찰에는 대웅전을 비롯 그 좁은 경내 세 곳에나 '대학입시 백일기도 봉행' 대형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20만원이란 동참비를 받고 백일동안 기도를 올려준다고 한다. 이렇게 입시철이면 도심의 사찰은 물론 산속의 절까지 대부분 '대학입시 백일기도' 현수막을 걸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기도 동참 대형 현수막을 부처님의 몸이라 할 대웅전 벽에까지 걸어놓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대웅전이 사진에 찍혀 문화재 책에까지 칼라로 실리기도 하니 정말 꼴불견이다.

불자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자녀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이 느껴져 아름답다. 또한 신도들을 위해 절에서 같이 백일기도를 정성껏 올려주는 일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요란하게 현수막까지 걸고 광고를 해야하는가.

차라리 절에서는 부모들에게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한번이라도 동반해 직접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권유했으면 한다. 또한 기도동참비를 받기보다는 법당 한켠에 따로 조그마한 불전함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 불전함에는 이렇게 쓰여있으면 좋겠다.

"올 겨울은 몹시 춥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정성껏 희사하신 이 보시금은 모두 실직노숙자들이나 접심을 못 싸오는 학생들, 불우노인, 청소년들의 겨울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 하시길 빕니다."

(gslee@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가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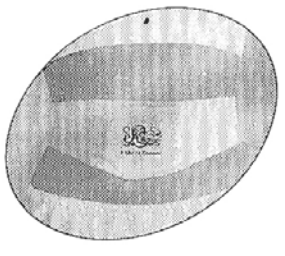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키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팔비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입 문

문답속에 흐르는 법리 감로수



■전등록4/문재현 옮김

스승과 제자와의 문답 사이에서 드러나는 명철한 법리. 그러나 선문답이 어찌 문답에 그칠 것인가. 법을 구하는 자의 갈증을 풀어주고, 삿된 견해를 잘어 정도로 이끌어주며, 발상치 않은 문답 속에서 제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끌어 올려주니, 이야말로 친정한 감로수라 할 것이다. 전등록이 전등록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전등록은 전5권짜리 '바로보인 전등록'의 네 번째 권. 법리의 측면에서 깊이 살펴 기존에 번역 출간된 것보다 원문의 취지에 더욱 근접해 있다. 조사의 참뜻을 제대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이런 점에서 법리에 밝은 문재현 법사가 번역해 낸 이 책은 선불교가 가지는 특성의 맥을 짚고 갖가지 표현에 대한 진의를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 하다.

바로보인 18,000원 (02)597-2460

에 세 이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혜성스님 지음

사람은 이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빛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방이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피력을 밝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85

기 타

신앙고백을 통한 종교적 삶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지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전을 읽는다. 순간 2천5백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부처님이 나타난다. "마음은 나의 밥이고 말씀은 나의 씨앗이다…" 생생한 부처님의 음성. 그 가르침을 받아들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진리이자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마음의 어둠이 벗겨지고 환희심에 사로잡힌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다가오는 느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가장 입체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잡아함경〉. 이 책은 〈잡아함경〉에서 가려뽑은 1백개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가르침을 마치 녹음테이프를 듣듯 생생하게 전해준다. 저자가 〈잡아함경〉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들을 재현해 놓아 경전을 읽는 감동을 높여준다.

각 경전마다 주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달아놓았으며, 경전 내용을 보강한 이야기와 경전에 드러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 놓았다. 사찰 법회와 신행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장승 8,000원 (02)723-1679

수행자의 구도열정 고백



■덧없는 세월 속에 덧없는 해탈을 하나 얻게나/혜민스님 지음

혜민스님(도봉산 무문관)이 자신의 삶에 깊게 있는 한영들을 모은 자전적 에세이. 출가의 인연과 세상의 덫을 벗어난 자유로움, 맑게 영귀낸 만남들이 산사의 숲내음으로 다가선다. 어렸을 적의 아련한 추억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통렬한 해학, 그리고 침묵 거친 세상 속에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으란 가르침인가.

"불교의 입립 속에서 들여다 본 자유는 남만이 아닌 처다보기조차 두려운 처절한 허망이었다"는 고백 속에 담긴 구도열정이 담담하게 독백하듯 내말한 목경소리로 열린다.

불넷 7,000원 (02)323-7366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흔들리는 모습에 던지는 방향제시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청담스님 외 31인 지음

사람들은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기만 한다. 그 철저한 무책임성. 커다란 밥그릇을 독차지한 채 돌아앉아 자신의 입에만 밥을 퍼넣는 이기심.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네 삶에 대한 구짖음과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 · 효봉 · 경봉스님 등 35인 스님의 법문과 동아대 박만엽 교수 등 6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들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맑고 청빈한 얘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스님 지음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줄기처럼, 때로는 경하히 내리는 싸락눈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갇혀있는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개우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개우침을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흙내로 담아냈다. 명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석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63-1941

금주의 추천도서

아함경을 통한 불교입문, 방향제시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반영규 지음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입문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책. 〈아함경〉은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전으로 꼽힌다. 구전되어 오던 부처님의 교설을 기억에 의해 정리 · 집성한 것으로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지혜로운 삶과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경전과 교리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세상사는 이야기를 섞어가며 설명함으로써, 마치 수필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다른 입문서와는 다른 특징이다.

〈아함경〉으로 불교를 배우는 가람에서부터 불교의 역사와 기본사상, 붓다가 본 인간, 우리가 사는 세상, 수행 등을 주제로 엮어져 있다.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방향까지 제시해 준다.

솔바람 7,000원/ (02)720-0824

발간 즉시 5쇄 돌입

임경택 교수의

숨쉬는 이야기

11월 2일 KBS-1TV '아침마당' 출연

삼풍 사고 현장에서 氣로써 생존자 3명을 찾아낸 임경택 교수
그가 3년 만에 밝히는 단전호흡과 기의 실체!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으로부터 전해지는 심오라기 같은 생기(生氣)!
임경택 교수는 호흡을 수련하는 중에 그 생기를 감지하고 곧장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 그들을 구조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과연 단전호흡 수련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20여 년간 호흡 수련을 해온 임경택 교수가 기와 단전호흡(단침과 열기)의 모든 것을 밝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험생, 인내심과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선수,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단전호흡법을 공개합니다.

신국판 /값9,500원

■30년 참선 수행한 스님도 이 책을 봅니다.

신간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건강법을 찾는 DIY건강법 형상의학!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조성태 지음

생긴 모습에 건강이 숨어 있다

사람은 다르다. 생동이도 생긴 모습이 다르고,
건강법이 다르다. 혼자 사는 것도 병이고,
머리가 빠지는 것,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것도 병이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을 앓을 수 있는 흠을 갖고 태어났고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건강법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도 가지고 태어났다. 문제는 과연
자기자신의 생김생김을 정확히 읽어 자신만의 건강법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건강법을 찾을 것인가?

신국판 /값8,000원

■현재 BBS불교방송 라디오 상담 중.

신간

남산 스님의 거침없는 에세이집

인연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파스 한 장으로 지치고 고달픈 중생들을 달래주는
남산스님의 넉넉한 보고일지! 가는 곳마다 좌충우돌,
야단법석, 황당무계한 일을 벌이지만
그 속에 자비가 있고 부처가 있다.

스님에게 뱀루투리다 되어 혼난 경력, 절 시시 시주 장사하는 신문사 간부, 참자는 작부의 유집을 주물러 시주를 받아 낸 시연, 병신 될 고쳐줬더니 논 다섯 마지기를 오린 된으로 때우는 구두의 영감, 스님에게 점퍼 달리는 점쟁이.
단청 물시 해달라고 해쓰는 스님 등 포복절도할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펼쳐집니다.

신국판 /값8,000원

■SBS서울방송 '살맛 나는 세상' 출연 예정.

지금 실의에 빠져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가난아 비켜라 내가 간다

남은 자전거 한 대로 약장사를 시작해 국내 굴지의 제약 회사로 키우기까지 동성제약 이선규 회장의 땀과 눈물의 성공 이야기!

이선규 지음 /신국판 /값7,500원

성형 수술 A부터 Z까지

양두병 박사의 미인 만들기

미용성형수술 어디를, 어떻게?

얼굴형, 신체 부위별, 유형별로 성형수술방법, 얼굴 미학, 최신 성형 정보까지 일반인들이 성형수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양두병 지음 /46변형판 /값9,500원

한국 대형 서점 건강 코너 장기 베스트 셀러 돌입!

IMF 시대의 新가정주치의의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천 원짜리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파스요법의 신비한 비밀을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남산 스님 /신국판 /값10,000원

고금리 강제 인하 위해 실업 대란 유도했다!

김대중 경제 속지 않고 읽는 법

병폐적 경제 질서 치유 않고 공수요확대에 급급하여 구조 조정 변조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꼬집는다.

김종천(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신국판 /값10,000원

탐그루! 한국 환타지 문학의 결정판! 전 12권, 곧 출간됩니다. PC통신 절찬리 접속 중(나우누리, 하이텔)

명상 영업국 TEL:733-4277~8 FAX:733-4279
편집국 TEL:739-2520 722-5970 FAX:738-7709